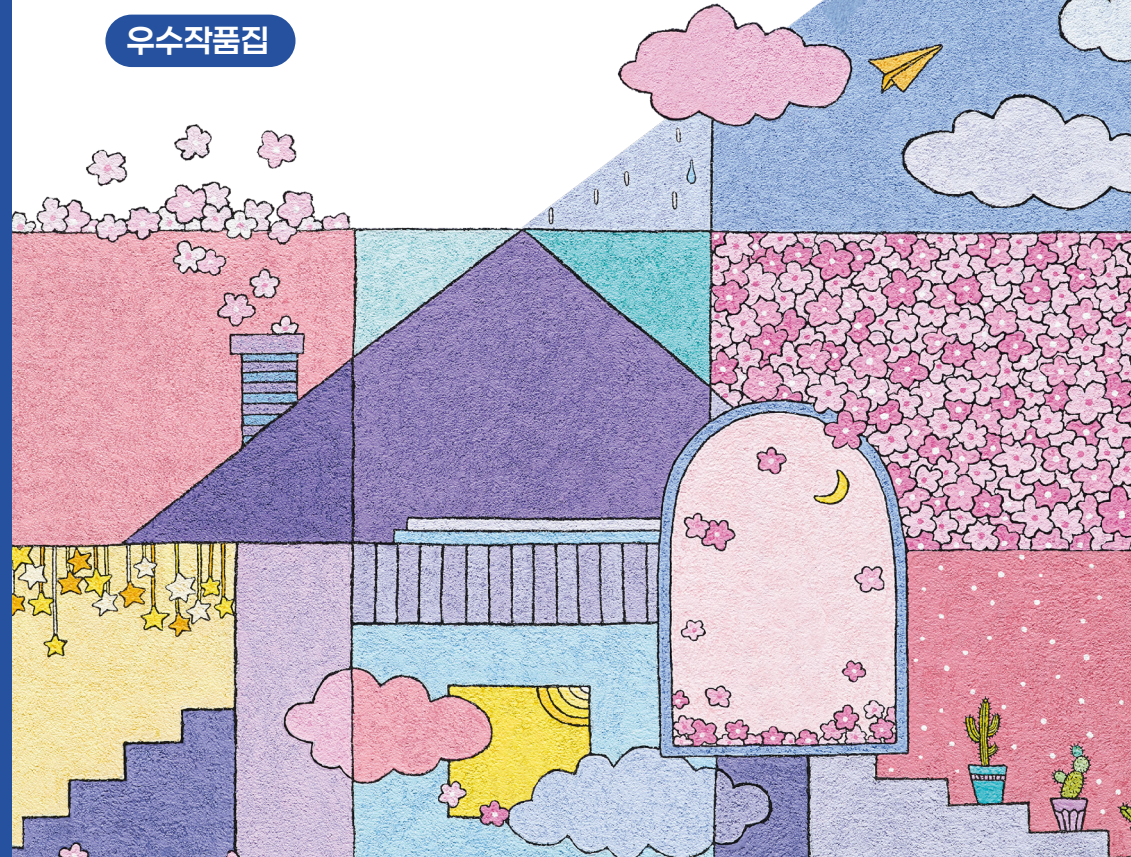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무해,
나 세상
달라 보여요

우수작품집



무해,
나 세상
달라 보여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무해,
나 서기상이
달라보여인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목차 Contents

글꿈상

뽕튀기	도성자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6
-----	-----	--------------	---

글아름상

이제야 만난 내 꿈	김재심	영암군청	8
내 이름을 썼다	박봉순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10
내 꼬막 손	손정남	보성군청	12
지금, 내 이름을 씁니다	안공례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4
내 인생 첫 학교	이계순	광양시청_직영	16
고마운 한글	이주순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18
문자메시지	최인순	완도군청	20

전라남도지사상

“같이가요, 학교에.”	문경자	영암군청 평생배움학교	22
니가 글자를 아니?	박복순	풀뿌리희망문화학교	24
글씨를 몰랐던 나, 그리고 당신	박양임	완도평생교육원	26
이젠 내가 술래	서선자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28
일흔의 여주행	손복례	사단법인 슬로스쿨	30
기차를 타고	윤춘심	쌍봉종합사회복지관	32
느그들 두고봐라	이진순	화순군청 평생학습센터	34
나도 사는것처럼 사는것 같당께	장애순	해남군 꿈보배학교	36
공부하러 가는 길	조옥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38
나의 이름은	천정례	무안군북합문화센터문해학교	40

전라남도 의회의장상

손	김연례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42
수퍼맨	김형심	고금비전한글학교	44
다른세상이 보인다	박용순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46
배움의 행복	손순초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8
외꽃 핀 내 얼굴	이길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50
뭘 배웠소?	이서운	곡성군미래교육재단	52
영감에게	이춘자	중부노인복지관	54
애타는 마음	임연희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56
희망의 입학식	진용순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58
말로는 다 못해요	황영애	장성군청 찾아가는성인문해교실	60

전라남도 교육감상

우리반 학생들	곽옥순	진도군청 지막(상)문해학교	62
기계에서 돈 찾기	김만자	해남군 꿈보배학교	64
거울 속 나	김종임	섬사랑평생교육원	66
안늦었소	안숙자	여수시노인복지관	68
내 이름 석 자	임한순	홍지중고등학교부설성인문해교실	70
흰머리 염색	전난례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72

눈이 부신 날이다	주 복 순	화순군청 평생학습센터	74
어머니	최 정 혜	장성군청 찾아가는성인문해교실	76
꿈은 이루어지고	최 춘 임	영암군청 평생배움학교	78
우리 할머니	황 수 남	전라남도교육청 나주도서관	80

**전남인재
평생교육
진흥원장상**

엄마 일 좀 그만요	김 경 희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82
공부쟁이	김 공 순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84
섬 소녀	김 귀 심	홍지중고등학교 부설 성인문해교실	86
내 인생 꽃 피는 날	김 금 순	나주도서관	88
옛날 꽃날에는	김 금 순	해남군 꿈보배학교	90
보고싶다	김 기 숙	목포시청(연동 성인문해교실)	92
기억자 인생	김 기 순	화순군청	94
엄마께	김 길 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96
즐거운 공부하는 날	김 량 순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98
이름 빛	김 명 자	섬사랑평생교육원	100
스승의 은혜	김 미 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102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 복 임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04
엄마의 일생	김 복 임	완도군청	106
글자꽃 피었네	김 봉 임	해남군 꿈보배학교	108
왕언니	김 사 임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110
나는 공부합니다	김 삼 엽	완도군청	112
자랑스런 내 인생	김 선 심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114
공부	김 숙 자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16
우리영감	김 순 삼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118
섬	김 순 애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120
웃음꽃 문해교실	김 애 라	보성군청	122
글 배우는 애순이	김 애 순	완도군청	124
글로 배운 요리법	김 연 순	목포시노인복지관	126
나는 대학생	김 영 례	홍지중고등학교 부설 성인문해교실	128
기억력도 돌아오고	김 오 매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130
아픈 몸과 마음	김 옥 순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132
나만의 시간	김 옥 심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134
춤추는 공부	김 점 심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136
내 공부	김 정 속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138
나의 꿈은 배움이다	김 정 순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140
눈 뜨는 희망	김 정 자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142
귀한 손님	김 정 자	완도평생교육원	144
나의 일기	김 추 월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146
키오스크	김 판 님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148
국어사전	김 희 진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충민정음대학	150
행복한 학교 길	나 영 순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52
꽃이 피었네	노 점 례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154
마지막 소원	맹 용 순	중부노인복지관 문해학교	156
후련한 내 인생	박 규 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158

공부방	박 금 심	목포시청(연동 성인문해교실)	160
학교에 간다	박금안례	완도군청	162
공부가 재미져	박 금 자	화순군청	164
가슴이 뚫다 뛰어	박 기 심	해남군 꿈보배학교	166
서러움과 기쁨	박 노 덕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168
증거운 문해 학교	박 복 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170
강아지 눈 뜻듯이	박 삼 예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172
세 친구	박 성 임	고급비전한글학교	174
한글 공부	박 성 자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176
봄나물과 언니	박 순 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178
글 공부 재미	박 순 자	목포시노인복지관	180
키오스크가 뭐지?	박 순 희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82
괜찮은 내 인생	박 영 란	나주도서관	184
마늘밭	박 영 란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186
어머니	박 영 순	장성군청 찾아가는 문해교실	188
아름다운 미소	박 옥 희	섬사랑평생교육원	190
내 인생	박 점 자	무안군청	192
지금이 쟈 좋아	박 정 순	목포시노인복지관	194
스도쿠	박 정 자	화순군청	196
물러거라! 키오스크	박 정 자	섬사랑평생교육원	198
친절한 사람	박 형 심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200
나는 강부자	배 선 임	고급비전한글학교	202
지나온 시간	백 미 자	광양시청_직영	204
파랑새	백 정 자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206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성 감 덕	금일소망한글학교	208
내 이름 석 자	송 사 례	고급비전한글학교	210
기계 세상, 이겨보자	송 춘 재	영암군청	212
평등 아짐	신 금 순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214
지금, 나의 무대	안 맹 생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216
인생	오 정 래	빛가람동성당(빈첸시오회)	218
세 번째 학교	유 납 심	금일소망한글학교	220
재밌다 한글	윤 성 자	풀뿌리희망문화학교	222
글을 읽고 배우기	윤 소 심	여수시노인복지관	224
없다 없다	이 금 자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226
과일 집	이 말 심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훈민정음대학)	228
학교에서 CAFÉ까지	이 명 임	보길도 꿈꾸는 학교	230
하다 보면 되 것지	이 미 금	보길도 꿈꾸는 학교	232
할머니도 이런걸 해?	이 복 순	화순군청	234
내 마음의 지주	이 숙 자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236
새 책을 받고	이 윤 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238
내 이름은 채소 장사 이선태	이 음 전	광양시청_직영	240
받아쓰기 백점	이 인 진	완도군청	242
글씨를 배운 기쁨	이 장 덕	완도평생교육원	244
나의 꿈	이 재 영	무안군청	246

엄마 얼굴	이 행 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48
돋보기	임 평 녀	금일소망한글학교	250
커피	임 형 빈	무안군청	252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장 귀 례	사단법인 슬로스쿨	254
카드기 사용법	장 금 임	여주시청 행복문해학교	256
정신 차려 고고	장 화 자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258
이어주는 말 '그리고'	정 쌍 봉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훈민정음대학	260
보배는 보배손	정 오 례	보성군청	262
한글공부	정 창 심	금일소망한글학교	264
아버지	조 양 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66
새로운 도전	조 종 금	보길도 꿈꾸는 학교	268
한글 간판	주 월 막	여주시청 행복문해학교	270
다시 쓰는 내 삶	주 정 례	쌍봉종합사회복지관초등학교인정문해교육	272
다시 태어난 나의 인생길	채 복 례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274
작은 네모 속 큰 세상	최 권 례	영암군청	276
봄꽃	최 귀 임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278
당당한 나	최 상 덕	여주시청 행복문해학교	280
지금부터 행복 시작	최 석 심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282
배움에는 끝이 없당께	최 아 임	풀뿌리희망문화학교	284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	최 양 순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286
내 마음	최 연 화	사단법인 슬로스쿨	288
제철에 피지 못한 꽃	최 영 희	해남군 꿈보배학교	290
첫사랑	최 화 순	나주도서관	292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	추 남 례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294
더 나은 나	하 복 례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296
세월	하 정 자	광양시청_직영	298
디지털 문해 교육	한 문 석	완도평생교육원	300
나는 일자무식이었다.	한 삼 례	여주시노인복지관	302
행복	홍 송 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304
임 벌린 고등어	황 선 순	중부노인복지관 문해학교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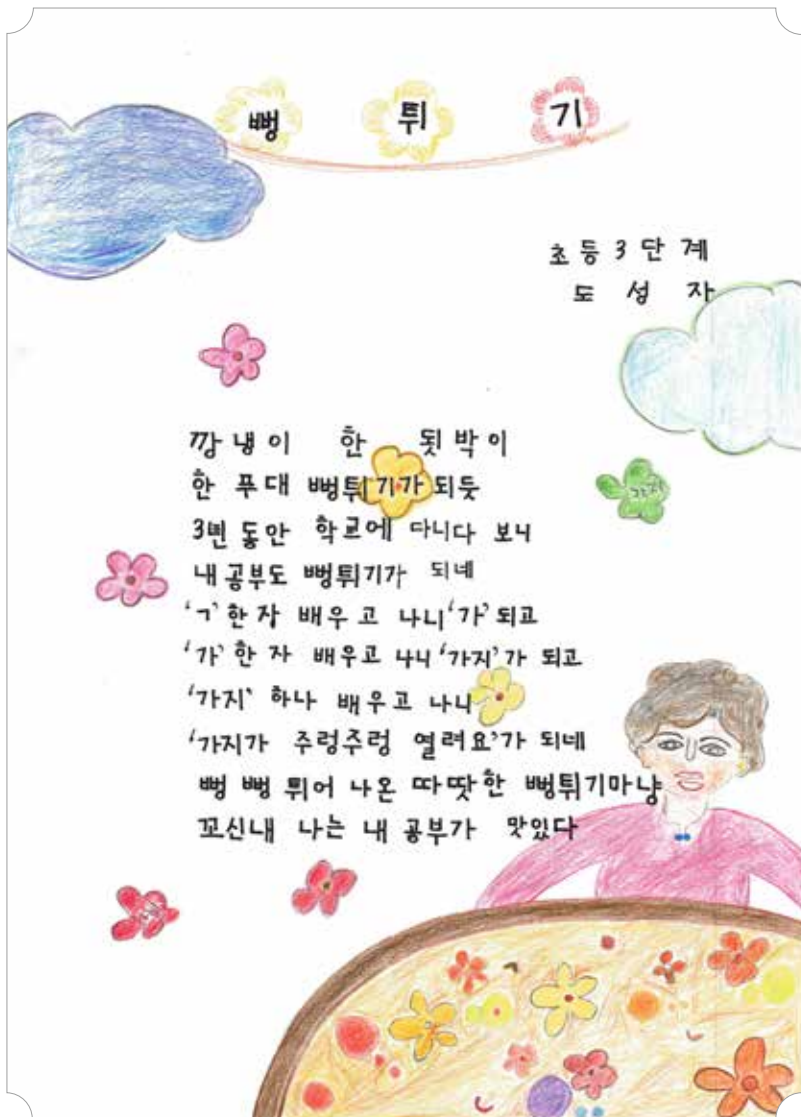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꿈상



뽕튀기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도성자

깡냉이 한 뒷박이
한 푸대 뽕튀기가 되듯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다 보니
내 공부도 뽕튀기가 되네
‘ㄱ’ 한 자 배우고 나니 ‘가’되고
‘가’ 한 자 배우고 나니 ‘가지’가 되고
‘가지’ 하나 배우고 나니
‘가지가 주렁주렁 열려요’가 되네
뽕 뽕 튀어나온 따뜻한 뽕튀기마냥
꼬신내 나는 내 공부가 맛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이제야 만난 내 꿈

김재심



세 살 어린 날
큰 병이 와야간 내 다리
지팡이 짚고 평생 절뚝이며 살아왔다

앞을 보지 못한 남편과 결혼하여
눈발이 쌓여있고 고된 날들이 많았었다.
세 아이 물어 안고
부모다 눈물이 먼저 끊인 그 시절도 지나왔다.

글을 몰라서 강지도 못하고
그저 흙 들은 손으로 살아냈다
내 자식만큼은 부모보다 잘 살게 할라고....

세월이 흐른 지금
큰 딸이 전해준 영암평생배움학교
배움보다 날이 더 가까웠고
연필보다 호미가 손에 익은 나에게
글자가 내 손 곁에 내려앉을 때마다
가슴속에 글자꽃이 동심몽실 피어난다.

다 지나가더라도
오늘도 나는 절뚝이며 견지만
책가방을 짊어지고 끈게 당당히
배움의 길을 걷는
공부하는 할머니다!





이제야 만난 내 꿈

영암군청
김재심

세 살 어린 날
큰 병이 앓아간 내 다리
지팡이 짚고 평생 절뚝이며 살아왔다

앞을 보지 못한 남편과 결혼하여
논밭이 삶이 있고 고된 날들이 밥이었다.
세 아이 품어 안고
밥보다 눈물이 먼저 끓던 그 시절도 지나왔다.

글을 몰라서 장사도 못하고
그저 흠 묻은 손으로 살아냈다
내 자식만큼은 부모보다 잘 살게 할라고.....

세월이 흐른 지금
큰 딸이 전해준 영암평생배움학교
배움보다 받이 더 가까웠고
연필보다 호미가 손에 익은 나에게
글자가 내 손끝에 내려앉을 때마다
가슴속에 글자 꽃이 몽실몽실 피어난다.

다 지나가더라
오늘도 나는 절뚝이며 걷지만
책가방을 짊어지고 곧게 당당히
배움의 길을 걷는
공부하는 할머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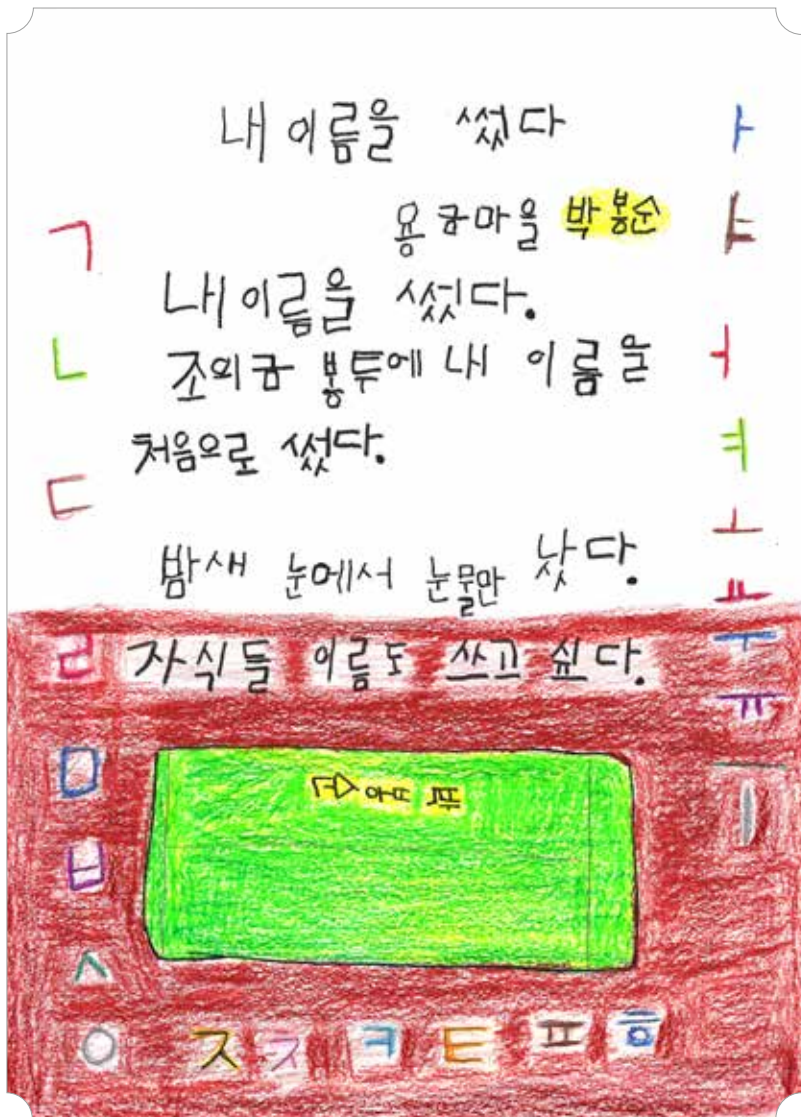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내 이름을 썼다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박봉순

내 이름을 썼다.
조의금 봉투에 내 이름을
처음으로 썼다.

밤새 눈에서 눈물만 났다.
자식들 이름도 쓰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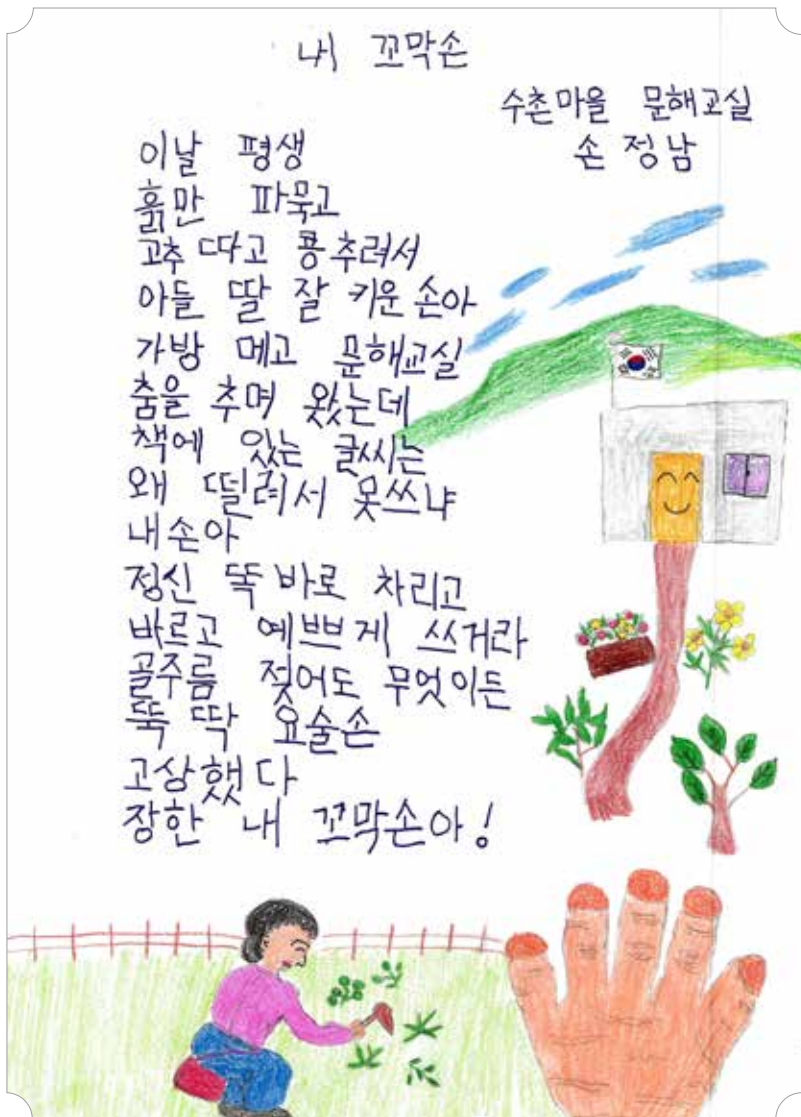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내 꼬막손

수촌마을 문해교실
손 정남

이날 평생
 흘만 파묵고
 과추 따고 콩추려서
 아들 딸 잘 키운 손아
 가방 메고 문해교실
 춤을 추며 왔는데
 책에 있는 글씨는
 왜 떨리서 못쓰냐
 내손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고 예쁘게 쓰거라
 골주름 적어도 무엇이든
 똑똑 요술손
 고상했다
 장한 내 꼬막손아!



내 꼬막손

보성군청
손정남

이날 평생
흙만 파묵고
고추 따고 콩 추려서
아들딸 잘 키운 손아
가방 메고 문해교실
춤을 추며 왔는데
책에 있는 글씨는
왜 떨어져서 못쓰냐
내 손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고 예쁘게 쓰거라
골 주름 젖어도 무엇이든
똑 딱 요술 손
고상했다
장한 내 꼬막손아!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지금, 내 이름을 씹습니다

안공례

스무살엔 눈발이 내 학교였고
 서른살엔 부엌이 내 책상이었다
 신이 되어도 내 이름은 도장으로 찍는 글자였다
 아이 다섯을 키우며
 한번도 내가 먼저인 적 없었고
 속으로만 말하는 법을 배웠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삶이었다
 이제야 일흔 살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품는다
 처음 써본 내 이름
 눈물이 고이고
 지금 내 인생을 새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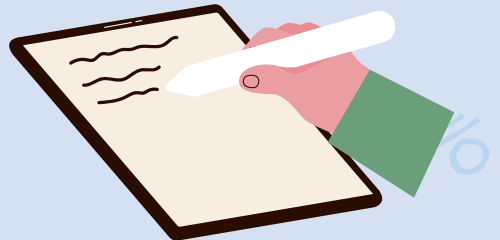


지금, 내 이름을 씁니다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안공례

스무 살에 논밭이 내 학교였고
서른 살엔 부엌이 내 책상이었다
손이 되어도 내 이름은 도장으로 찍는 글자였다
아이 다섯을 키우며
한 번도 내가 먼저인 적 없었고
속으로만 말하는 법을 배웠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삶이었다
이제야 일흔 살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품는다
처음 써본 내 이름
눈물이 고이고
지금 내 인생을 써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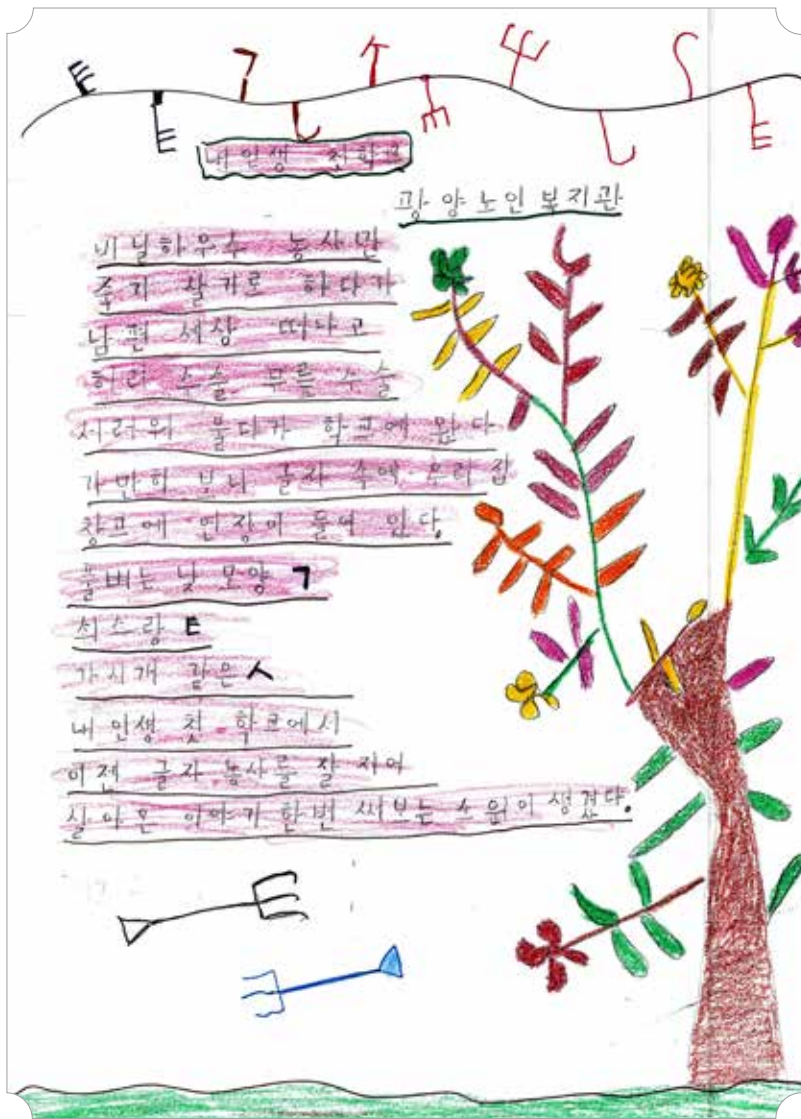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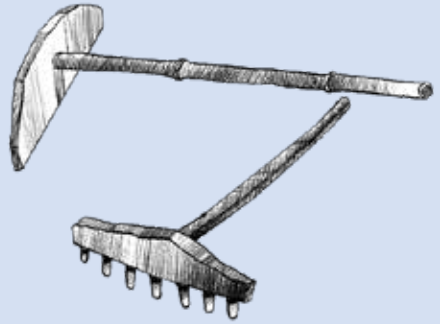
글아름상



내 인생 첫 학교

광양시청_직영
이계순

비닐하우스 농사만
죽기 살기로 하다가
남편 세상 떠나고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서러워 울다가 학교에 왔다
가만히 보니 글자 속에 우리 집
창고에 연장이 들어 있다.
풀 벼는 낫 모양 ㄱ
쇠스랑 ㅌ
가시개 같은 ㅍ
내 인생 첫 학교에서
이젠 글자 농사를 잘 지어
살아온 이야기 한 번 써보는 소원이 생겼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고 마 운 반 글

전라남도교육청 영광도서관
3 단계 이주순

마흔 둘에 남편을 보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새 아들을 키웠어요
 무너진 마음을 주켜세울 시간도 없이
 착석들 뒷바라지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늦감이 학생이 되어 한 글자 한 글자
 서 가는 재미가 이렇게 오질 수가
 없어요 막내아들 결혼을 마지막으로
 밀려드는 지난날의 아픔으로 넘어지면
 할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선사해 준
 한글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고 지나온 날들마저도 이제는
 고마운 추억이 되었어요





고마운 한글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이주순

마흔둘에 남편을 보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 아들을 키웠어요
무너진 마음을 추켜세울 시간도 없이
자식들 뒷바라지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늦깎이 학생이 되어 한 글자 한 글자
써 가는 재미가 이렇게 오질 수가 없어요
막내아들 결혼을 마지막으로
밀려드는 지난날의 아픔으로 넘어지려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선사해 준
한글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고 지나온 날들마저도 이제는
고마운 추억이 되었어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아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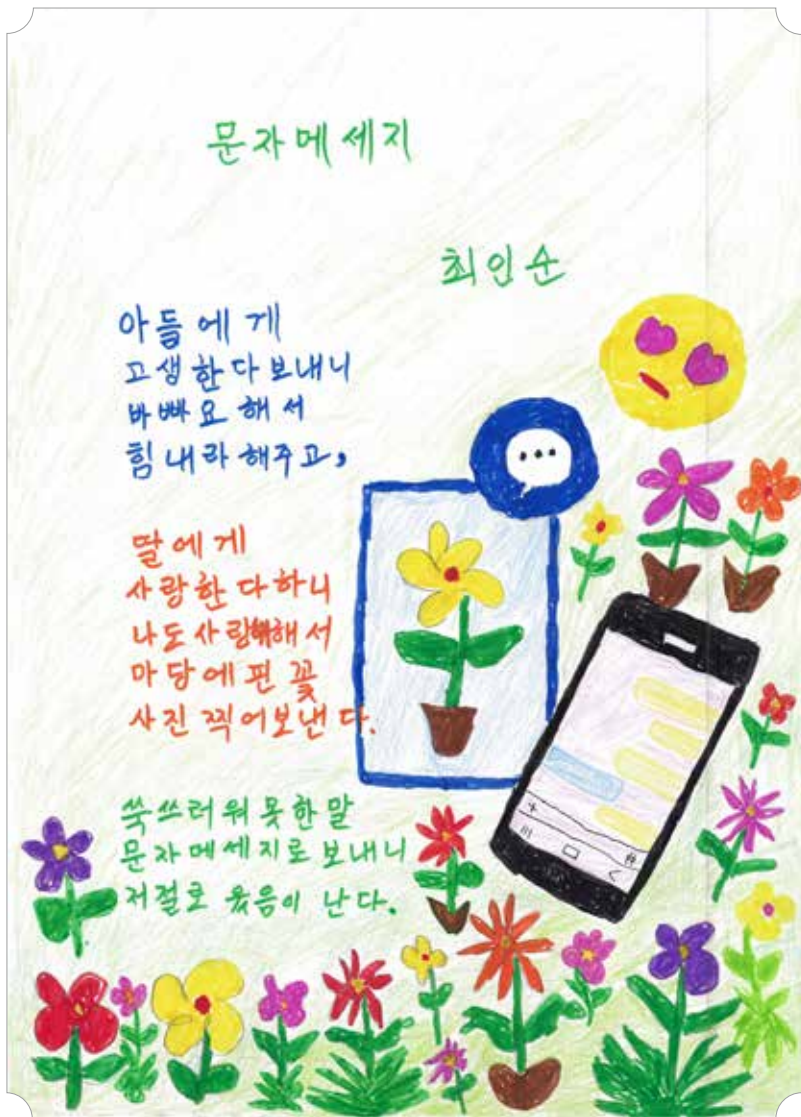
문자에 세기

최인순

아들에게
고생한다 보내니
바빠요 해서
힘내라 해주고,

딸에게
사랑한다 하니
나도 사랑해서
마당에 핀 꽃
사진 찍어보낸다.

쑥스러워 못한 말
문자에 세지로 보내니
저절로 웃음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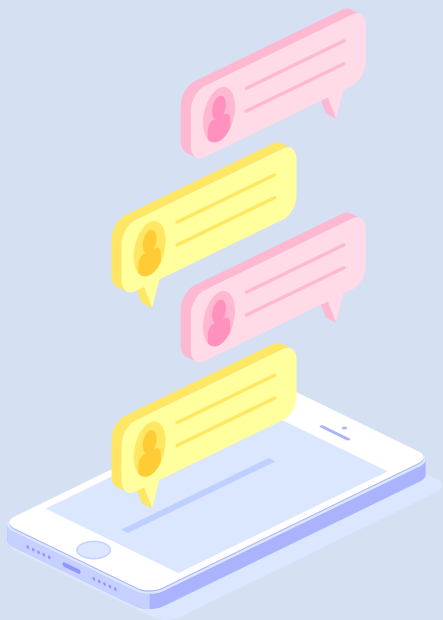
문자메세지

완도군청
최인순

아들에게
고생한다 보내니
바빠요 해서
힘내라 해주고,

딸에게
사랑한다 하니
나도 사랑해 해서
마당에 핀 꽃
사진 찍어 보낸다.

쑥스러워 못 한 말
문자메세지로 보내니
저절로 웃음이 난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같이 가요, 학교에.”

문경자

딸이로서,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다.
연애결 핑계로,
책 대신 눈물 삼켰다.
어둠 속 야학,
그 조차도 금지였던 을 아버지
내 청춘이 서럽고 야속하다.



시집와서 농사 지으며
자식 키우며
한 글자, 두 글자
가슴팍에만 썼다.
그런 나를
불러준 교회 집사님 목소리,
“같이 가요, 학교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야
배움답게 배워보는갑다
웃음이 절로절로
학교 가는 발걸음
행복이 가득하다.

“같이 가요, 학교에”

영암군청 평생배움학교
문경자

딸이라서,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다.
연애질 핑계로,
책 대신 눈물 삼켰다.
어둠 속 야학,
그조차도 금지였던 울 아버지
내 청춘이 서럽고 야속하다.

시집와서 농사지으며
자식 키우며
한 글자, 두 글자
가슴팍에만 썼다.
그런 나를
불러준 교회 집사님 목소리.
“같이 가요, 학교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야

배움답게 배워보는 갑다
웃음이 절로절로
학교 가는 발걸음
행복이 가득하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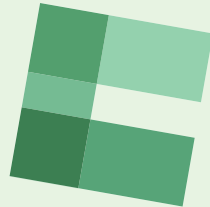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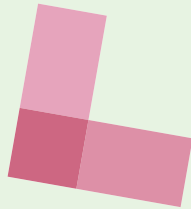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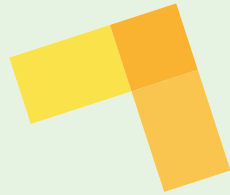


니가 글자를 아니?

풀뿌리희망문화학교

박복순

은행에 가면 두 손이 벌벌
면사무소 가면 머릿속이 하얘
한글 공부 시작하여
자신감이 쑥 내 삶도 쑥
벌벌 이는 허공으로 날려 보내고
늦 터진 아이처럼
한글이 재밌다
글자가 두 눈에 들어온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글씨를 몰랐던 나. 그리고 당신

완도 평생교육원

박양임

나는 글씨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즐거워 가득했지만 나는 그 세상에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써준 글도 봉투도 버스 안내문도
 읽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날 당신은 하늘나로 떠났고
 내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읽을 수 있지만
 가장 읽고 싶은 건 당신의 편지 한장
 당신의 칭찬의 말 한 마디입니다.
 글씨를 몰랐던 그 시절의 나를 그대로 안아주던 당신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합니다.



글씨를 몰랐던 나, 그리고 당신

완도평생교육원

박양임

나는 글씨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글자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세상에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써준 글도 봉투도 버스 안내문도

읽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날 당신은 하늘나라로 떠났고

내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읽을 수 있지만

가장 읽고 싶은 건 당신의 편지 한 장

당신의 칭찬의 말 한 마디입니다.

글씨를 몰랐던 그 시절의 나를 그대로 안아주던 당신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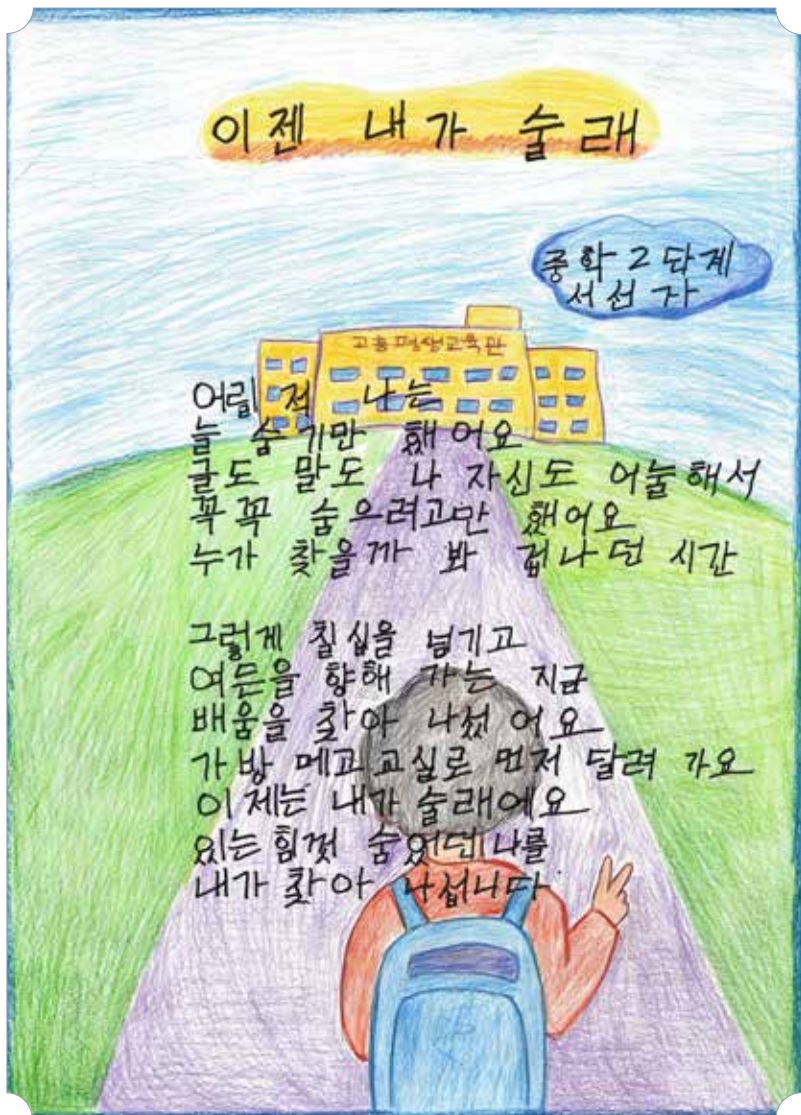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이젠 내가 솔래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서선자

어릴 적 나는
늘 숨기만 했어요
글도 말도 나 자신도 어눌해서
꼭꼭 숨으려고만 했어요
누가 찾을까 봐 겁나던 시간

그렇게 칠십을 넘기고
여든을 향해 가는 지금
배움을 찾아 나섰어요
가방 메고 교실로 먼저 달려가요
이제는 내가 솔래예요
있는 힘껏 숨었던 나를
내가 찾아 나섭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일흔의 여주행

슬로슬로 손 복레

내 손이 작을땐 호미통고 허리 펼날 없더니만
물론이 정이서야 주박한 손으로 연필을 잡아보네

கு어 시간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자장 자장 자장가 같고
ABCD abcd 노트에 아무리 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산들바람백인 이곳에 my name is 손복레는
누구에게 소개 할까나

그러나 저러나
학교 가는 기다림. 시험보는 부담감. 소풍가는 설렘은
어린 시절 똑같구나

마음만은 꽃처럼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문제 풀고 친구들과 공부하여
주름 가득 뒤통 할머니가 아닌
어엿한 학생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 그따위를 열어 보련다





일흔의 역주행

사단법인 슬로스쿨

손복레

내 손이 작을 땐 호미 들고 허리 펼 날 없더니만
일흔이 넘어서야 투박한 손으로 연필을 잡아보네

국어 시간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자장자장 자장가 같고
ABCD abcd 노트에 아무리 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산들바람뿐인 이곳에 My name is 손복레는
누구에게 소개할까나

그러나저러나
학교 가는 기다림, 시험 보는 부담감, 소풍 가는 설렘은
어린 시절 똑같구나

마음만은 꽃청춘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친구들과 공부하며
주름 가득 뒷방 할머니가 아닌
어엿한 학생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 3막을 열어 보련다

C B
A%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기차를 타고

여수쌍봉복지관 윤륜성

기차를 타고 내 마음이 한글을 향해 달린다
 가 나를 만나면서 내 이름을 알았고
 화장실을 혼자서 찾아가고
 핸드폰 문자 친구를 만나고
 열기를 쓰는 한글 나라를 시웠다

나의 한글 나라에는
 집안 일의 조 단 함으로 베풀을 상호
 내 커리의 통증으로 우리 창을 닦으면서
 내 머리속의 서운한 열들을 청소한다
 오늘 꼬끼오 씨가 낳은 계란숙자를 세면서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기어본다

내 삶의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귀시아 향기를 맡으며
 영어공부 기차를 타고 달리고 싶다



기차를 타고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윤춘심

기차를 타고 내 마음이 한글을 향해 달린다
가 나를 만나면서 내 이름을 알았고
화장실을 혼자서 찾아가고
핸드폰 문자 친구를 만나고
일기를 쓰는 한글 나라를 세웠다

나의 한글 나라에는
집안일의 고단함으로 벽돌을 쌓고
내 허리의 통증으로 유리창을 닦으면서
내 머리속의 서운한 일들을 청소한다
오늘 꼬끼오씨가 낳은 계란 숫자를 세면서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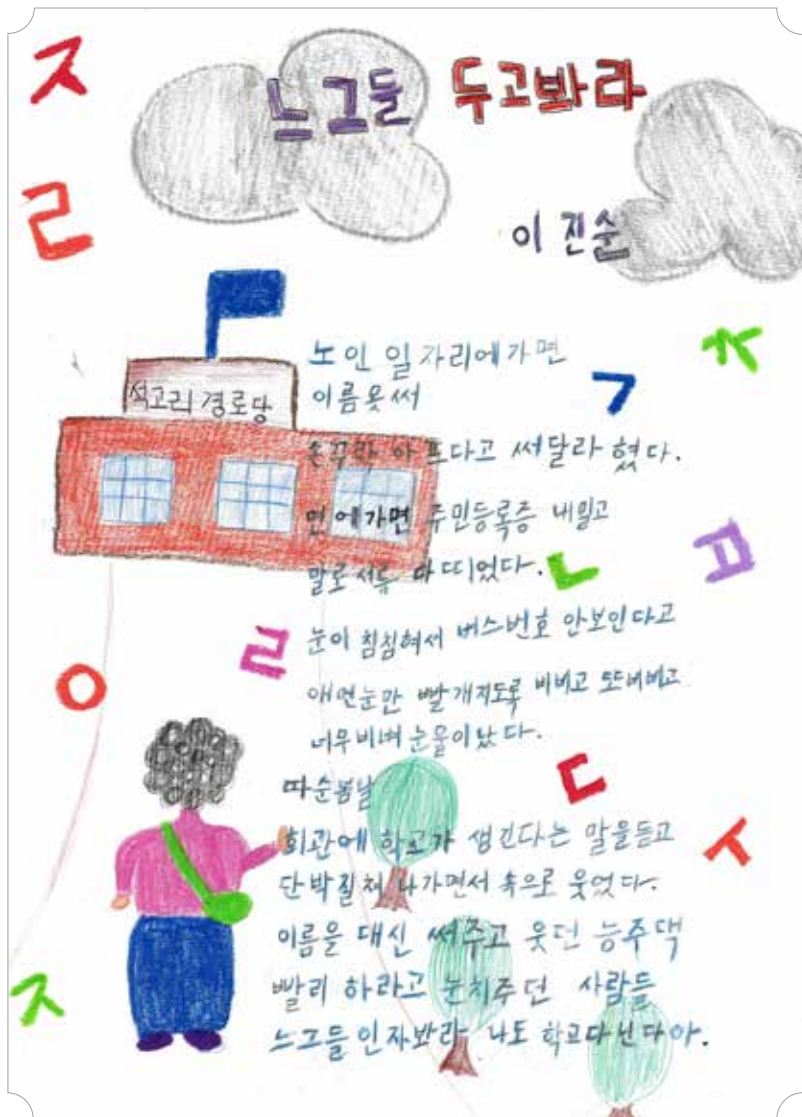
내 삶의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며
영어 공부 기차를 타고 달리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느그들 두고보라

화순군청 평생학습센터

이진순

노인 일자리에 가면
이름 못써
손꾸락 아프다고 써달라 했다.
면에 가면 주민등록증 내밀고
말로 서류 다 띠었다.
눈이 침침해서 버스 번호 안 보인다고
애먼 눈만 빨개지도록 비비고 또 비비고
너무 비벼 눈물이 났다,
따순 봄날
회관에 학교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단박질쳐 나가면서 속으로 웃었다.
이름을 대신 써주고 웃던 능주대
빨리하라고 눈치 주던 사람들
느그들 인자봐라 나도 학교 다닌다아.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나도 사는 것 처럼 사는 것 같당께

장 애 순

작은 방에서 태어났다고 짝뻥레라 불렀제
학교 갈라 하면 애나 보라 하고
몰래 가면 동생 없고 할매가 쫓아왔제
글도 이름도 내 것이 아니었던 세월

‘엄마, 나도 이제 멋있게 학교 다녀’
이젠 장애인이며 장애인 반장이며

터미널에 가도 식당에 가도
‘턱’ 하니 서 있는 이름도 어려운 그거
키오... 키오.. 쿠르 키오스크
사람들은 척척 누르는데
그놈 앞에 서면 손이 얼어부러
선생님 따라 처음 해본 날
‘주문 시작’

손가락이 떨려도 사야알짜 눌러보고
살~짝 누르고, 또 사~알짜
오메~ 담날라 하네
요놈이 ‘주문 완료’ 한다
‘아이고야’ 나도 해냈다

나는 지금 하루 하루 배워가는 중이다
나도 사는 것 처럼 사는 것 같당께





나도 사는 것 처럼 사는 것 같당께

해남군 꿈보배학교

장애순

작은 방에서 태어났다고 짝방레라 불렀제
학교 갈라 하면 애나 보라 하고
몰래 가면 동생 업고 할매가 쫓아왔제
글도 이름도 내 것이 아니었던 세월

‘엄마, 나도 이제 떳떳하게 학교 다녀’
이젠 장애순이여 장애순 반장이여

터미널에 가도 식당에 가도
‘턱’하니 서 있는 이름도 어려운 그거
키오... 키오..쿠르 키오스크
사람들은 척척 누르는데
그놈 앞에 서면 손이 얼어부러
선생님 따라 처음 해본 날
‘주문 시작’
손가락이 떨려도 사아알짝 눌러보고
살~짝 누르고, 또 사~알짝
오메~ 땀날라 하네
요놈이 ‘주문 완료’한다
‘아이고야’ 나도 해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 배워가는 중이다
나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당께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공부하러 가는 길

삼기면 원등2구

조옥임

우리 마을은 행정
공부하는 곳은 옆 마을 원등2구

골다리까지 걸어도면 땀이 송글송글
마음은 청춘인데
그늘에 앉아 세월을 뺏는다.



공부하러 다닌다는 소리 듣고 좋아하던
아들 생각하며 다시 구르마를 짚는다.

고추밭을 지나고 냇가를 건너면
멀리 회관에서 성님들 웃음소리가
먼저 마중 나온다.



공부하러 가는 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조옥임

우리 마을은 행정
공부하는 곳은 옆 마을 원등2구

굴다리까지 걸어오면 땀이 송글송글
마음은 청춘인데
그늘에 앉아 세월을 닦한다.

공부하러 다닌다는 소리 듣고 좋아하던
아들 생각하며 다시 구르마를 잡는다.

고추밭을 지나고 냇가를 건너면
멀리 회관에서 성님들 웃음소리가
먼저 마중 나온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지사상

나의 이름은

천정례 (무안 화목반)

나의 이름 천정례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 반지락 아줌마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반지락을 판다고
반지락 아줌마 한글 학교에 오면
나의 이름을 불러 준다.
날 내 이름이 자랑스럽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내 이름은 잠시 잊어 갔지만
학교 오니 되 찾은 내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나의 이름은

무안군북합문화센터문해학교

천정례

나의 이름 천정례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 반지락 아줌마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반지락을 판다고

반지락 아줌마 한글 학교에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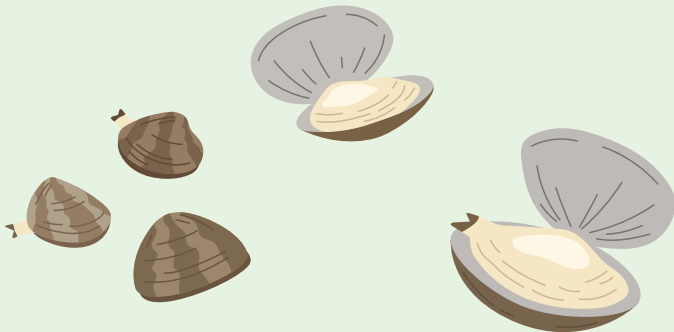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난 내 이름이 자랑스럽다

결혼하고 예들 낳고 내 이름은 잠시 잊어갔지만

학교 오니 되찾은 내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손 김연례

팔 남매를 키운 손은 (여수시평생학습관)

사랑의 손

농사를 지었던 손은

살리는 손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이끌던 손은

길잡이 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손은

기억의 손

지금은 내차례 하지만

돌아보여 없는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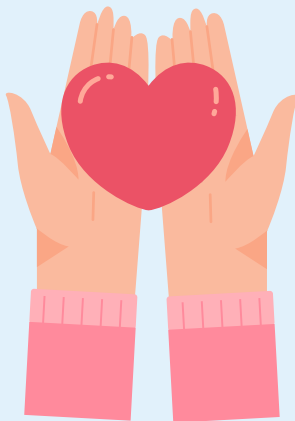


손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김연례

팔 남매를 키운 손은
사랑의 손
농사를 지었던 손은
살리는 손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이끌던 손은
길잡이 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손은
기억의 손
지금은 내 차례 하지만
돌아보니 없는 손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수퍼맨

김형심

목수 남편 만나 한 평생
나무꾼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
밤마다 공부 해서
보름만에 글자에 눈 떴다

반
도
수
퍼

반도수며 고금의원 간판도 본다
부친 아들 집까지 지하철로 혼자 간다
텔레비 자막이 너무 빠르지만
나이 70에 앞을 보는
나는 수퍼맨

고금의원

내 마음을 편지로 써서
자식들 친구들에게 보낼란다
함문 영어 컴퓨터 공부해서
중학교도 가고 싶다

수퍼맨

고금비전한글학교

김형심

목수 남편 만나 한평생
나무꾼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
밤마다 공부해서
보름만에 글자에 눈 떴다

반도수퍼 고금의원 간판도 본다
부천 아들 집까지 지하철로 혼자 간다
텔레비 자막이 너무 빠르지만
나이 70에 앞을 보는
나는 수퍼맨

내 마음을 편지로 써서
자식들 친구들에게 보낼란다
한문 영어 컴퓨터 공부해서
중학교도 가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다른 세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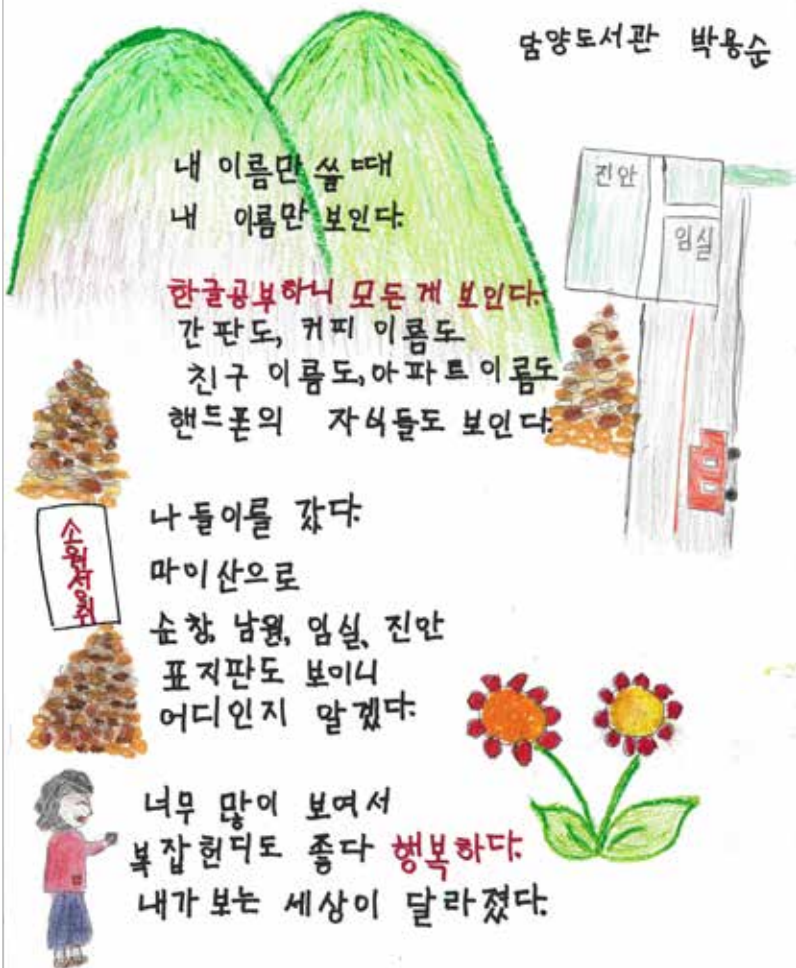
담양도서관 박용순

내 이름만 쓸 때
내 이름만 보인다

한글공부하니 **모든 게 보인다**
간판도, 커피 이름도
친구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핸드폰의 자식들도 보인다.

나 돌아를 갔다
마이산으로
순창 남원, 임실, 진안
포지판도 보이니
어디인지 알겠다.

너무 많이 보여서
복잡한 것도 **좋다 행복하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



다른 세상이 보인다.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박용순

내 이름만 쓸 때
내 이름만 보인다.

한글 공부하니 모든 게 보인다.
간판도, 커피 이름도
친구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핸드폰의 자식들도 보인다.

나들이를 갔다.
마이산으로
순창, 남원, 임실, 진안
표지판도 보이니
어디인지 알겠다.

너무 많이 보여서
복잡헌디도 좋다 행복하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배움의 행복

내가 가고싶던 학교

손순초

항상 마음속 환 자리에 있었다.

그 꿈 이제 현실이 되었네

지금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한 마음

소망의 나무 바를때는 내 머리 오쪽

배움의 나무 바를때는 내 머리 십쪽

지혜의 나무 바를때는 내 머리 이십쪽

된것 같다 배움은 즐거운

시간이며 행복이다





배움의 행복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손순초

내가 가고 싶던 학교
항상 마음속 한 자리에 있었다.
그 꿈 이제 현실이 되었네
지금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한 마음
소망의 나무 배울 때는 내 머리 오 척
배움의 나무 배울 때는 내 머리 십 척
지혜의 나무 배울 때는 내 머리 이십 척
된 것 같다 배움은 즐거운
시간이며 행복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외꽃 편 내 얼굴

이 글 레

23 살 때 결혼한 남편이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 크게 샀어요

남 편은 광주 대학병원에서 음작달씩도 못하고
만삭으로 배가 부른 내가 대소변 받아내다가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갑원비 걱정되어 밤 12시에 목포로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남 편이 걱정되어 갓난아기를 그냥 놔두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얼굴에 왜 외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거흔흔 봤더니
얼굴에 진짜로 노란 외꽃이 피었어요

오일 만에 다시 만난 애기가
이불로 뭉클말아 놓았면 애기가
살아 있어서 눈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미안해서 지금까지 알 못했는데
고맙게 엄마한테 잘 하는 딸입니다.





외꽃 핀 내 얼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이길례

23살 때 결혼한 남편이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남편은 광주 대학병원에서 움짱달짝도 못 하고
만삭으로 배가 부른 내가 대소변 받아내다가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입원비 걱정되어 밤 12시에 목포로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이 걱정되어 갓난아기를 그냥 놔두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얼굴에 왜 외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진짜로 노란 외꽃이 피었어요

오일만에 다시 만난 애기가
이불로 둘둘 말아 놓았던 애기가
살아 있어서 눈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미안해서 지금까지 말 못했는데
고맙게 엄마한테 잘하는 딸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뭐 배웠소?

경면 윤교리 2구
이서운

공부를 다치고 집에 가니
딸이 물어본다
“뭐 배웠소?”
“아무 것도 생각이 안난다.”

공부하는 날은 기다려 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즐거운데
문턱만 넘어서면
아무 것도 생각이 안난다.

약국에 가서
생각이 잘나는 약을 샀다.
약을 먹었으니
이제 생각이 잘나 겠지.



뭐 배웠소?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이서운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니
딸이 물어본다
“뭐 배웠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공부하는 날은 기다려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즐거운데
문턱만 넘어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약국에 가서
생각이 잘 나는 약을 샀다.
약을 먹었으니
이제 생각이 잘 나겠지.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영감에게

나주 중부노인복지관
이춘자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금슬 좋게 살려고 하니
 당신은 치매가 걸렸오
 여가도 배워야 한다면서
 복지관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모르는 글자는 알려주고
 밥 차리지 말고 숙제나 하라고 하던 영감이
 치매가 오더니 하루 종일 성질만 내요
 자상하던 영감이 성질내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똥망이질을 하오
 치매온 영감이 정신이 들어
 숙제 하라고 공부 하라고 하면
 꼭 옛날 영감이 돌아온 것 같소
 글 모르는 내가 당신 없는 세상에서 어찌 살까
 걱정하던 영감이 돌아온 것 같소



영감에게

중부노인복지관

이춘자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금슬 좋게 살려고 하니
당신은 치매가 걸렸오
여자도 배워야 한다면서
복지관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모르는 글자는 알려주고
밥 차리지 말고 숙제나 하라고 하던 영감이
치매가 오더니 하루 종일 성질만 내요
자상하던 영감이 성질내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방망이질을 하요
치매 온 영감이 정신이 들어
숙제 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면
꼭 옛날 영감이 돌아온 것 같소
글 모르는 내가 당신 없는 세상에서 어찌 살까
걱정하던 영감이 돌아온 것 같소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애 타는 마음

초등 3 단계
임 연 회

내머리는 왜 이럴까?
 배워도 배워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으니
 어짜면 좋을까 참 애가 탄다
 그래도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볼란다
 배우다 배우다 보면
 한 자라도 배우긴 배울 것인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애 간장 녹기 전에
 이공부가 내 머리에 와야 되는데
 참말로 애가 탄다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 볼라고
 오늘도 우리 선생님 애간장 녹이려
 학교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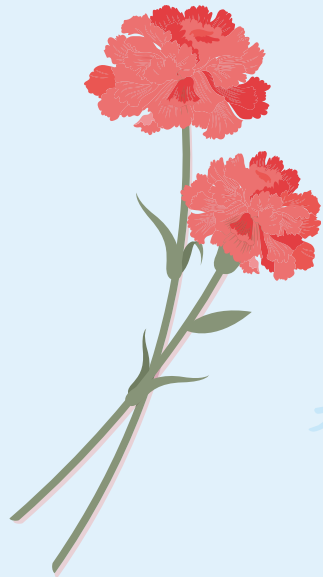


애타는 마음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임연희

내 머리는 왜 이럴까?
배워도 배워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으니
어짜면 좋을까 참 애가 탄다
그래도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볼란마
배우다 배우다 보면
한 자라도 배우긴 배울 것인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애간장 녹기 전에
이 공부가 내 머리에 와야 되는데
참말로 애가 탄다
그래도 하나라도 배워 볼라고
오늘도 우리 선생님 애간장 녹이러
학교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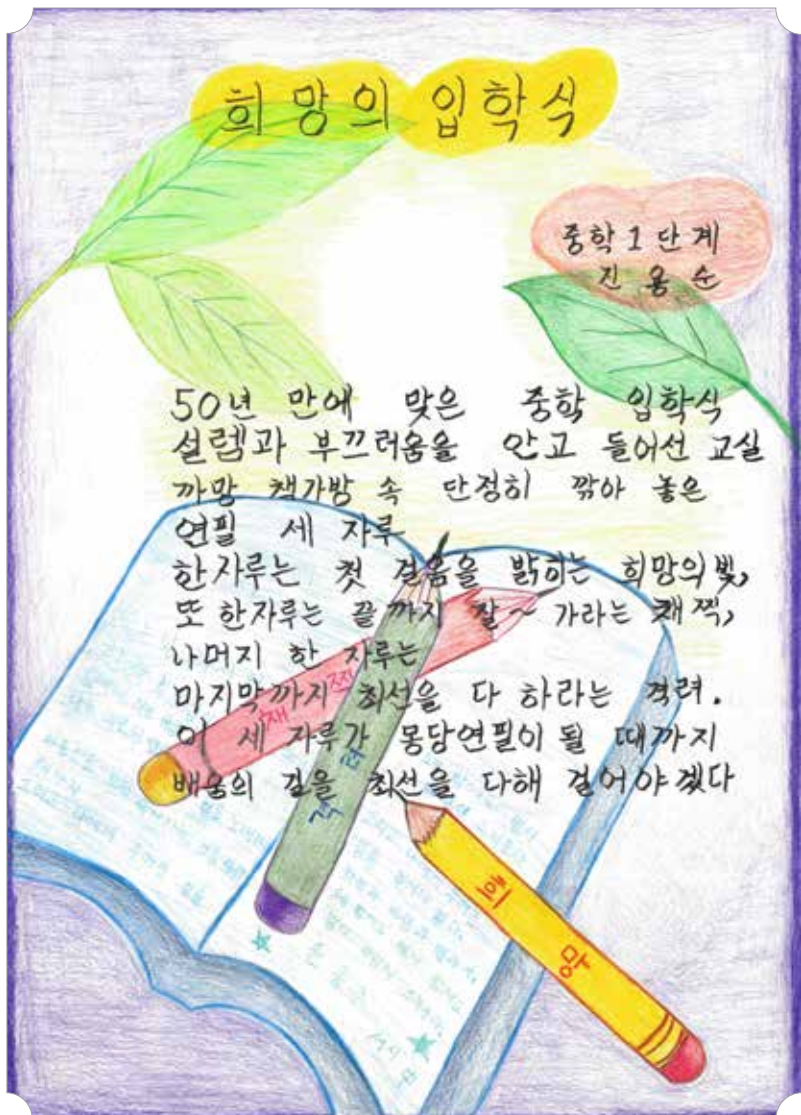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희망의 입학식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진용순

50년 만에 맞은 중학 입학식

설렘과 부끄러움을 안고 들어선 교실

까망 책가방 속 단정히 깎아 놓은

연필 세 자루

한 자루는 첫걸음을 밝히는 희망의 빛,

또 한자루는 끝까지 잘~ 가라는 채찍,

나머지 한 자루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

이 세 자루가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배움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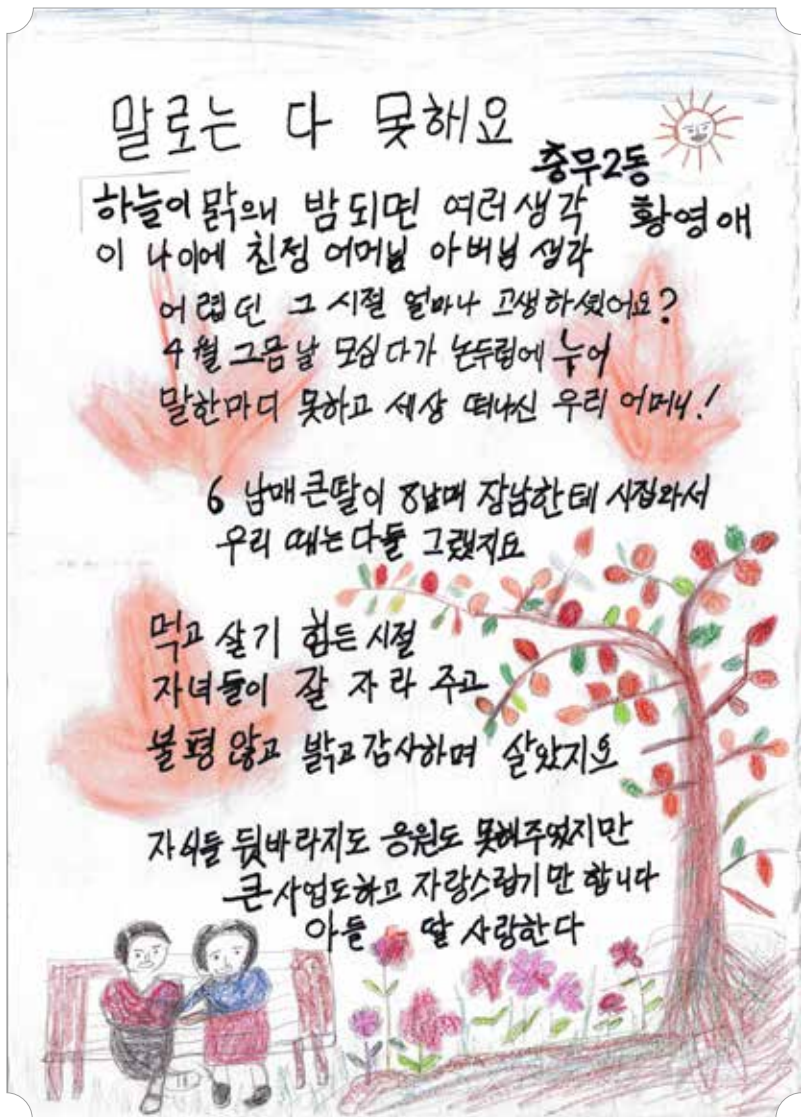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의회의장상



말로는 다 못해요

장성군청 찾아가는성인문해교실

황영애

하늘이 맑으니 밤 되면 여러 생각
이 나이에 친정어머님 아버님 생각
어렵던 그 시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4월 그믐날 모 심다가 논두렁에 누어
말 한마디 못 하고 세상 떠나신 우리 어머니!

6남매 큰딸이 8남매 장남한테 시집와서
우리 때는 다들 그랬지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자녀들이 잘 자라 주고
불평 앓고 밝고 감사하며 살았지요

자식들 뒷바라지도 응원도 못 해주었지만
큰 사업도 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아들 딸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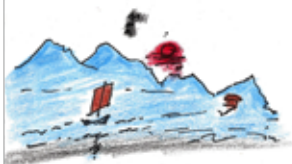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우리반 학생들 곽우순

지팡이 쥘고 오는 학생들
 밀쳐 밀며 오는 학생들 지난 날에 사연들도 많겠지만
 흐으나마 문해교실 나오니 한자 두자 써먹기면
 희망이 넘치네
 선생님은 낯설지만 손을잡아 가르치니
 선생님 이 제일어제, 터미분에 가서도
 우리동네 갈수있고, 농협에 가서도 배손으로 쓸수있고
 땀발을 땀 뻘뻘 청춘이 다시오네
 배우니 즐겁구나
 알아 가니 즐겁구나.
 삼들면서 외어보내 오늘 배운 글자 들을
 손자 손녀 오면 사랑 할까
 마음이 쉼이네
 많은것을 써워서 나누며 살고싶네...2



우리반 학생들

진도군청 지막(상)문해학교

곽옥순

지팡이 짚고 오는 학생들
밀차 밀며 오는 학생들 지난날에 사연들도 많겠지만
늦으나마 문해교실 나오니 한 자 두자 배워가면
희망이 넘치네
선생님은 낮설지만 손을 잡아 가르치니
선생님이 제일이네. 터미널에 가서도
우리동네 갈 수 있고, 농협에 가서도 내 손으로 쓸 수 있고
백발을 닦았드니 청춘이 다시 오네
배우니 즐겁구나
알아 가니 즐겁구나.
잠들면서 외워보네 오늘 배운 글자들을
손자 손녀 오면 자랑할까
마음이 설레이네
많은 것을 배워서 나누며 살고싶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기계에서 돈 찾기

김만자



탁복래 선생님 하고 농협에 갔다.

질 먼저 인출 늘르고
확인 늘르고



그리고 인자 비밀번호 늘르고
또 확인 늘르고

얼마 찾을지 정하고 돈을 차렸다.
몇 번 실수 했다



배우고 보니 어렵지 안트라
기분이 하늘로 날아가 겠드라.
농협에도 편사무소에도 못 들어가보고.

어른이 다 함께 안 갔다.

곧쓰라고 할까 봐 무섭고 떨려서 안 갔다.

인자 나 혼자
면에도 농협에도 간다.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혼자 서류 작성하고 잡다.



기계에서 돈 찾기

해남군 꿈보배학교
김만자

박복래 선생님하고 농협에 갔다.
질 먼저 인출 늘르고
확인 늘르고
그라고 인자 비밀번호 늘르고
또 확인 늘르고
얼마 찾을지 정하고 돈을 찾았다.
몇 번 실수했다
배우고 보니 어렵지 않드라
기분이 하늘로 날아가겠드라.
농협에도 면사무소에도 못 들어가 보고.
어른이 다 함께 안 갔다.
글 쓰라고 할까 봐 무섭고 떨려서 안 갔다.
인자 나 혼자
면에도 농협에도 간다.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혼자 서류 작성하고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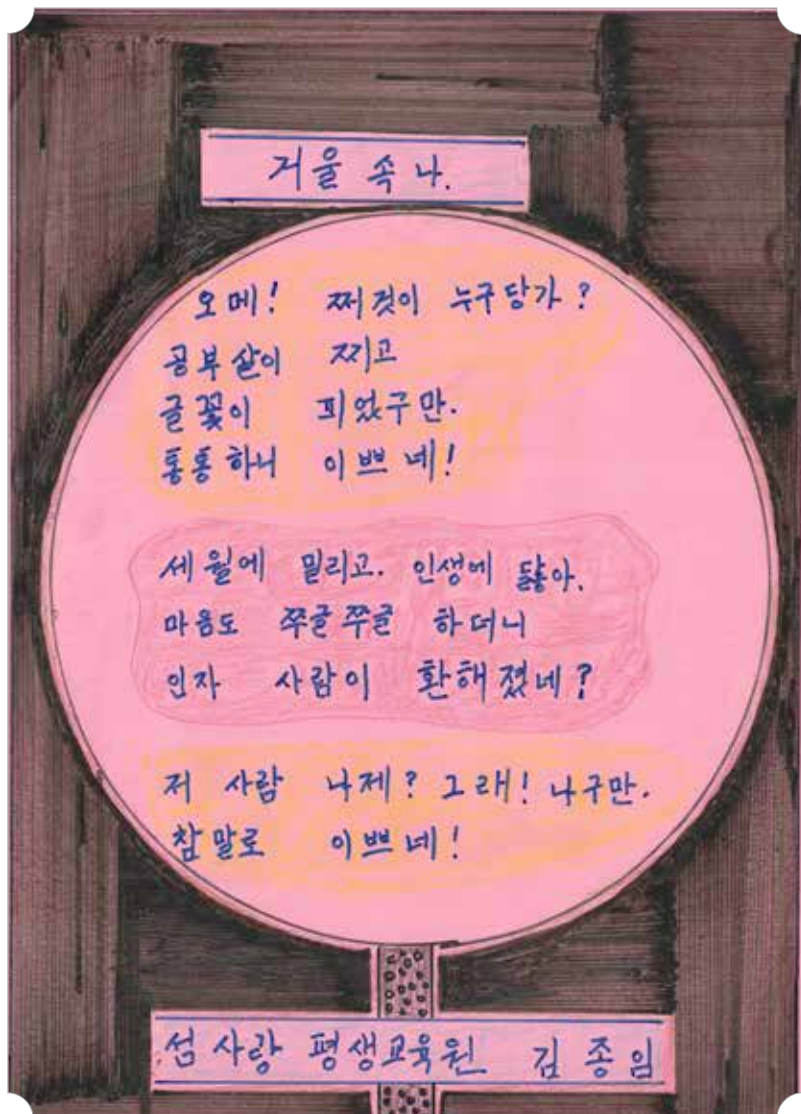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거울 속 나.

섬사랑평생교육원

김종임

오메! 짜겅이 누구당가?
공부살이 찌고
글 꽃이 피었구만.
통통하니 이쁘네!

세월에 밀리고. 인생에 닳아.
마음도 쭈글쭈글하더니
인자 사람이 환해졌네?

저 사람 나제? 그래! 나구만.
참말로 이쁘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안 늦었소
안숙자

세월아.

너는 잠도 없느냐.

내 가슴에 핀 한글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공부,

가을 하늘에

구름이 덩실덩실 할 때

국화도 필 준비를 한다.

칠십이 넘어서

늦깎이 학생

한글꽃

한 번 피워 볼란다.





안 늦었소

여수시노인복지관

안숙자

세월아.
너는 잠도 없느냐.
내 가슴에 핀 한글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공부,
가을 하늘에
구름이 덩실덩실할 때
국화도 필 준비를 한단다.
칠십이 넘어선
늦깎이 학생
한글 꽃
한 번 피워 볼란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내 이름 석자

엄 한 순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

배도 고프고 글자도 고프다

아버지 몰래 야학을 다녔다

겨우 5일 다녔는데

가시나가 늦게 다닌다고 못 가란다

그때 배운 내 이름 석자

기만 눈구멍도 그것으로 슬 잘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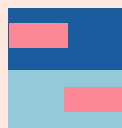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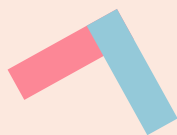
내 이름 석자

홍지중고등학교부설성인문해교실

엄한순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
배도 고프고 글자도 고평파
아버지 몰래 야학을 다녔다
겨우 5일 다녔는데
가시나가 늦게 다닌다고 못 가란다

그때 배운 내 이름 석자
까만 눈구녕도 그것만은 술술 잘 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흰 머리 영색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배움반 전난례

학교다녀오니 남편이 고기를 먹으러 가라고 했다
 “고기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소”
 남편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내나이 벌써 76세, 검정어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다
 남편에게 하얀밥을 해주니 흰머리카락 들어가면
 안보일까봐 검정어리 영색을 한다
 눈이 아파도 한다 ‘여보 당신은 내마음 알랑가’
 늦었지만 남편 응원받으며 공부를 하니 감사하다
 “여보 고맙소”

내일은 학교 가는날
 또 무엇을 배울까 기대된다



흰머리 염색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전 난 례

학교 다녀오니 남편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고기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소”
남편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내나이 벌써 76세, 검정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다
남편에게 하얀 밥을 해주니 흰머리카락 들어가면
안보일까 봐 검정머리 염색을 한다
눈이 아파도 한다 ‘여보 당신은 내 마음 알랑가’
늦었지만 남편 응원받으며 공부를 하니 감사하다
“여보 고맙소”

내일은 학교 가는 날
또 무엇을 배울까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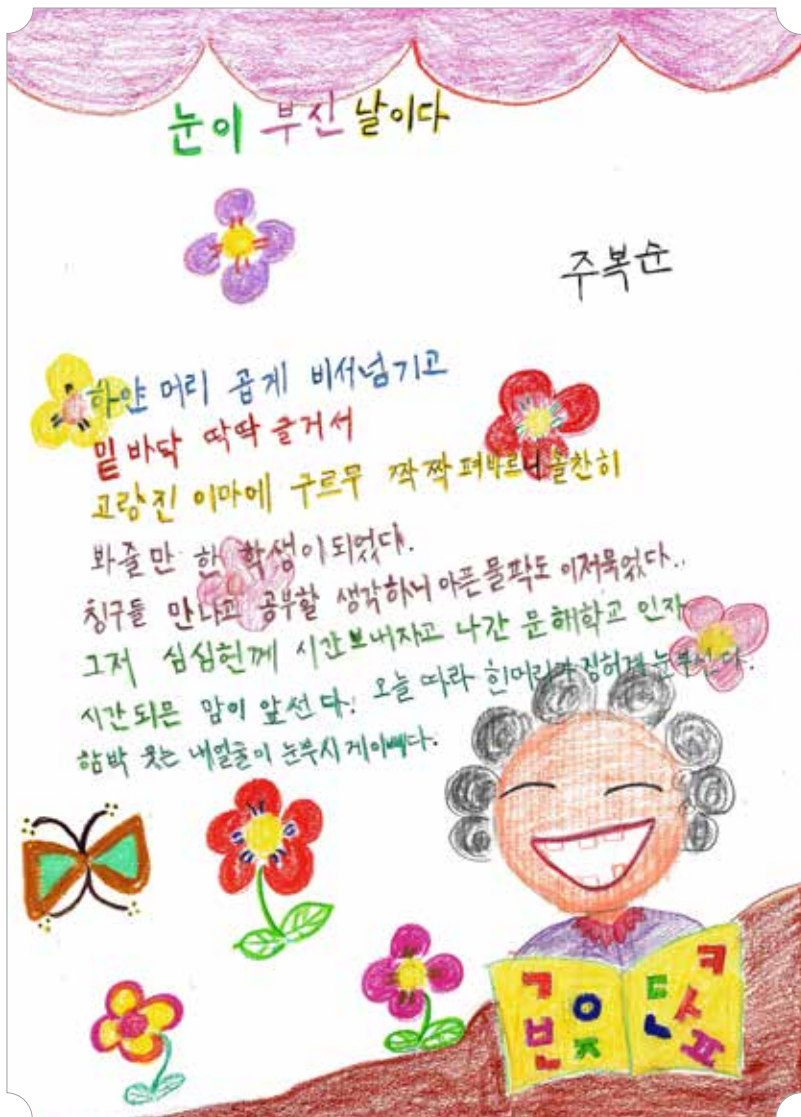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눈이 부신 날이다

화순군청 평생학습센터

주복순

하얀 머리 곱게 빗어 넘기고
밀바닥 딱딱 굽어서
고랑 진 이마에 구르무 짹짹 펴 바르니 솔찬히
봐줄 만한 학생이 되었다.
친구들 만나고 공부할 생각 하니 아픈 무르팍도 잊어먹었다..
그저 심심헌께 시간 보내자고 나간 문해 학교
인자 시간 되믄 맘이 앞선다!
오늘따라 흰머리가 징허게 눈부시다.
함박 웃는 내얼굴이 눈부시게 이뻐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어머니

최정혜

작은 한 스킨 조차
스미기 션 면 어머니
귀운 영 귀 주름 되보



귀운 영 귀 주름 되보

내 영 애쓰 다듬으 시면
마음 쓴 슬픔까지



바바 관 마 처 도
바바 관 마 처 도
어머니 어개 위 예

나를 스관 하 한 세 일의
귀스관 하 한 세 일의

귀스관 하 한 세 일의
귀스관 하 한 세 일의
야속 영 영 노래
그리움 이 노래

발러 보 기 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

장성군청 찾아가는성인문해교실

최정혜

작은 한숨조차
숨기셨던 어머니
고운 얼굴 주름 되고

굳은 살, 멍뚱한 손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
마음 속 슬픔까지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림 없으시던
어머니 어깨위에
나를 위한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남아
흐르는 시간의
야속함에
그리움의 노래
불러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꿈은 이루어 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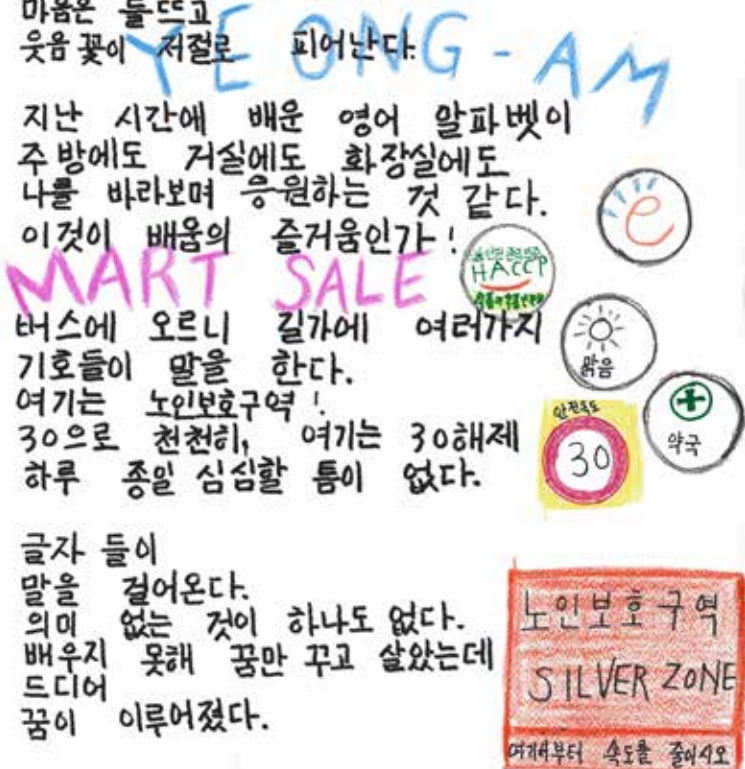
최준임

평생 배움학교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처럼 가볍고 즐겁다
마음은 들뜨고
웃음꽃이 저절로 피어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말파벳이
주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나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배움의 즐거움인가!

버스에 오르니 길가에 여러가지
기호들이 말을 한다.
여기는 노인보호구역!
30으로 천천히, 여기는 30해제
하루 종일 심심할 틈이 없다.

글자 들이
말을 걸어온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배우지 못해 꿈만 꾸고 살았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지고

영암군청 평생배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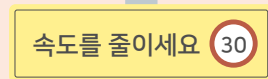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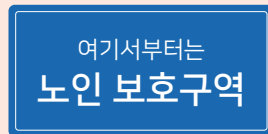
최춘임

평생 배움학교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처럼 가볍고 즐겁다
마음은 들뜨고
웃음꽃이 저절로 피어난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알파벳이
주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나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배움의 즐거움인가!

버스에 오르니 길가에 여러가지
기호들이 말을 한다.
여기는 노인보호구역!
30으로 천천히, 여기는 30 해제
하루 종일 심심할 틈이 없다.

글자들이
말을 걸어온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배우지 못해 꿈만 꾸고 살았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라남도교육감상

우리 할머니

전남교육청 4주도서관
황수남

나는 할머니라고 살았다
 할머니는 나를 많이 잔뜩하게 생각했다
 인자 할머니한테 말해야지 공부한다고
 하루에 버스 가세 번 다니는 데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성가셔서
 읍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했다
 한번은 동네 이장이 아침이 될까 하는지 많이
 밝아졌고 말삼도 잘하시고 좋아보이요 한다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나 보다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어 좋고 나도 자신감이 있다
 우리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좋아 하실까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늘 나라에서 잘 계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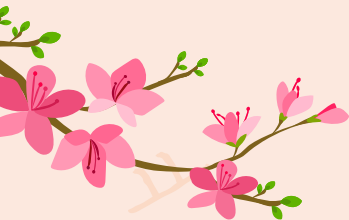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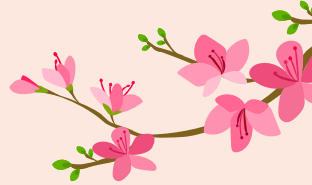
진달래

우리 할머니

전라남도교육청 나주도서관

황수남

나는 할머니하고 살았다
할머니는 나를 많이 잔하게 생각했다
인자 할머니한테 말해야지 공부한다고
하루에 버스가 세 번 다니는 데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성가셔서
읍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번은 동네 이장이 야심이 뭘 하는지 많이
밝아졌고 말씀도 잘하시고 좋아 보ियो 한다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나보다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어 좋고 나도 자신감이 있다
우리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좋아 하실까
우리 할머니가 보고싶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신지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엄마 여수시 평생학습관
 일좀 그만요 김정희

올해도 엄마 밭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고
 엄마 밭에는 상추가
 울긋불긋 녹색이 짙어지고
 엄마 손이 닿으면
 이렇게 다 사는데
 우리 엄마 얼굴은
 더 진해진다
 엄마 일좀 그만 해요
 엄마도 곱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일 좀 그만요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김경희

올해도 엄마밭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고
엄마 밭에는 상추가
울긋불긋 녹색이 짙어지고
엄마 손이 닿으면
이렇게 다 사는데
우리 엄마 얼굴은
더 진해진다
엄마 일 좀 그만해요
엄마도 곱게 살았으면 좋겠어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부쟁이

우과면 우과리 김공순

화투를 치니 재미있다
그림 맞추고 노니 재미있다
오몰에 푹 빠져 나는 화투쟁이

공부를 하니 힘들다
바침이 머시 드러간다나
이거시 맞다나 저거시 마따나

아라서 책혀 쓰면 안 힘들텐다
모르게 힘들다

공부가 뭐시다고
오노메 오몰단지에
푹 빠져든다
나는 공부쟁이





공부쟁이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김공순

화투를 치니 재미있다
그림 맞추고 노니 재미있다
요물에 푹 빠져 나는 화투쟁이

공부를 하니 힘들다
받침이 머시 드러간다냐
이거시 맞다냐 저거시 맞다냐

알아서 척척 쓰면 안 힘들텐데
모르게 힘들다

공부가 뭐시다고
요놈에 요물단지애
푹 빠져든다
나는 공부쟁이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섬 소녀

김귀심

섬나라 한적한 시골마을

첫 딸로 태어난 소녀

들판에서 일만 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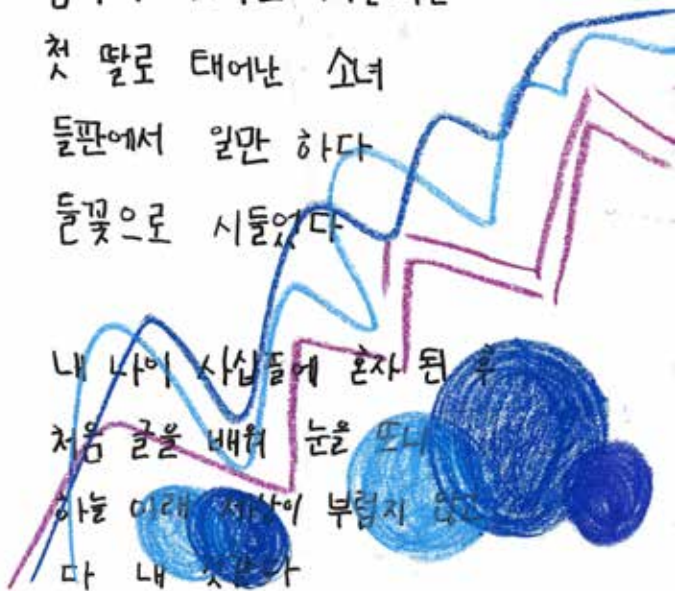
들꽃으로 시들었다

내 나이 사십들에 혼자 된 후

처음 글을 배워 눈을 뜨니

하늘 아래 사람이 부럽지 않다

다 내 것이라



섬소녀

홍지중고등학교 부설 성인문해교실

김귀심

섬나라 한적한 시골마을
첫 딸로 태어난 소녀
들판에서 일만 하다
들꽃으로 시들었다

내 나이 사십팔에 혼자 된 후
처음 글을 배워 눈을 뜨니
하늘 아래 세상이 부럽지 않고
다 내 것 같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인생 꽃피는 날

전남 교육청 나주 도서관

김금순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은 언제였나
 어려서는 글을 몰라 이리기웃 저리기웃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다
 젊어서는 시집살이 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나여만 많이 먹었다



이 나이에 도서관에 와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도
 지금이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다





내 인생 꽃 피는 날

나주도서관
김금순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은 언제였나
어려서는 글을 몰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다
젊어서는 시집살이 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나이만 많이 먹었다
이 나이에 도서관에 와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도
지금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옛날 꽃날에는

해남군꿈보배학교

김금순

옛날 꽃날에는
가슴에 냉갈이 차고 새벽에 눈 비비며
애려서 남의집 살이 서러움이 있었다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때는 세끼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았다
내 두 손이 나무등걸이 되어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기억 소리높여 배우고 글자를
알아가면서 내 이름 김금순
쓸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편지에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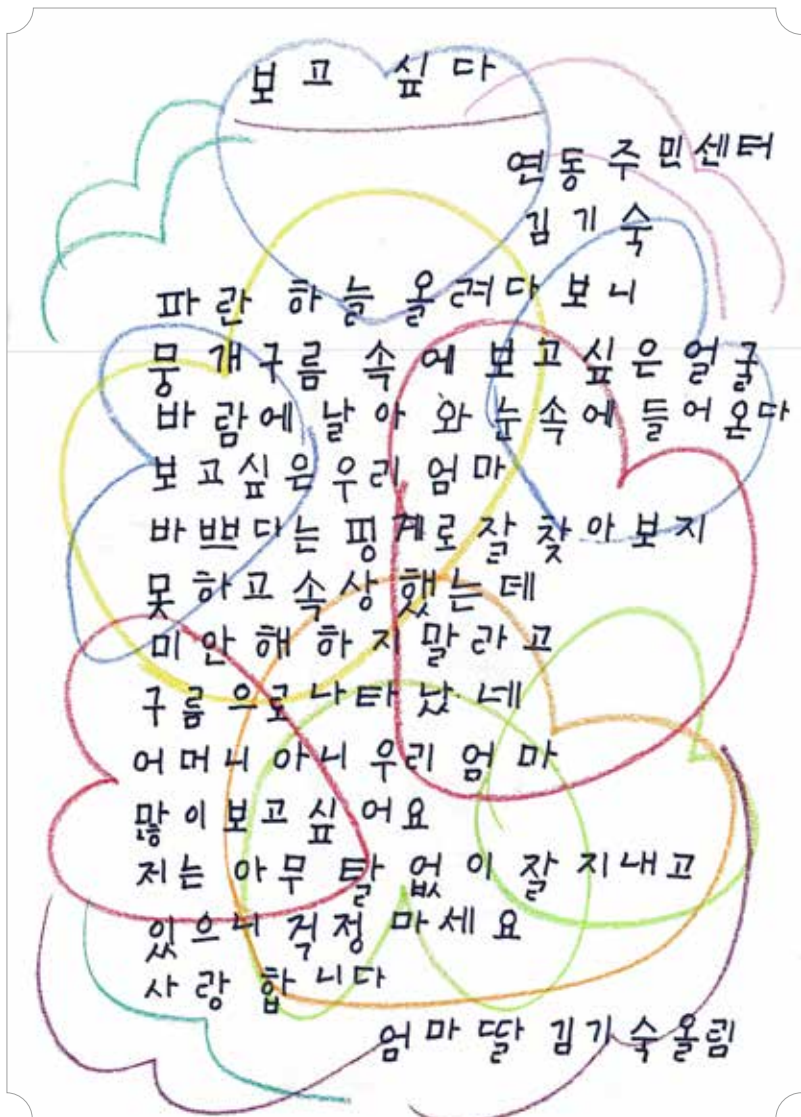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보고싶다

목포시청(연동 성인무해교실)

김기숙

파란 하늘 올려다보니
몽게구름 속에 보고 싶은 얼굴
바람에 날아와 눈 속에 들어온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보지
못하고 속상했는데
미안해하지 말라고
구름으로 나타났네
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딸 김기숙 올림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기억자 학생

김기순

거울에 비친 내가 즉, 기억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눈뜨면 들고 사는
 낯노코도 모르고 산 세상
 나이먹어 배워서 워허나고 놀러먹은
 영등어집 피해서 나간 회관학교
 연자는 어깨 짝 피고 문해학교 간다.
 딸내미가 사온 알자탕을 가방에 넣고
 장에서 사온 참외를 가방에 넣고 학교
 갈 준비하느라 겁나 바쁘다.

구분 어깨라서 가방에 묵직하지만
 맘은 새털가치 가볍다.
 무관한 가방에 가득담길 즐거운 공부
 으 재서 인자와쓰까.

기억자 학생



기억자 학생

화순군청
김기순

거울에 비친 내가 ㅏ, 기억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눈 뜨면 들고 사는
낮 놓고도 모르고 산 시상
나이 묵어 배워서 뭐 허냐고 놀려 묵은
영동아침 피해서 나간 회관학교
인자는 어깨 짝 피고 문해학교 간다.
딸내미가 사 온 알사탕을 가방에 넣고
장에서 사 온 참외를 가방에 넣고 학교
갈 준비하느라 겁나 바쁘다.
굵은 어깨라서 가방이 묵직하지만
멤은 새털같이 가볍다.
므끈한 가방에 가득 담길 즐거운 공부
으째서 인자와쓰까.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엄마께

2025년 6월 18일

김길순

세월은 흘러 흘러 배가이 벌써 팔순이 되고

어릴때 공부하고 싶었지만

섬인 내고향 학교도 없었네

아빠는 일찍 여의고

엄마는 우리 육남 매를 혼자 키우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하늘 나라에서 건강하시길

이 딸이 두손 모아 기도할게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이름

떨은 매일 엄마 생각에 눈물 나네 동백꽃





엄마께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김길순

세월은 흘러 흘러 내 나이 벌써 팔순이 되고
어릴 때 공부하고 싶었지만
섬인 내 고향 학교도 없었네
아빠는 일찍 여의고
엄마는 우리 육 남매를 혼자 키우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서 건강하시길
이 딸이 두 손 모아 기도할게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이름
딸은 매일 엄마 생각에 눈물 나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즐거운 공부하는 날

목과면 설옥리 김량순

오늘은 즐거운 공부하는 날
모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자 한자 배우니 재미 있다

일도 많고 몸이 고되도
하나하나 배우기 재미지다
오늘은 즐거운 공부하는 날
너마음에 꽃이 핀다



즐거운 공부하는 날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김랑순

오늘은 즐거운 공부하는 날
모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 자 한 자 배우니 재미있다

일도 많고 몸이 고되도
하나하나 배우니 재미지다
오늘은 즐거운 공부 하는 날
내 마음에 꽃이 핀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이름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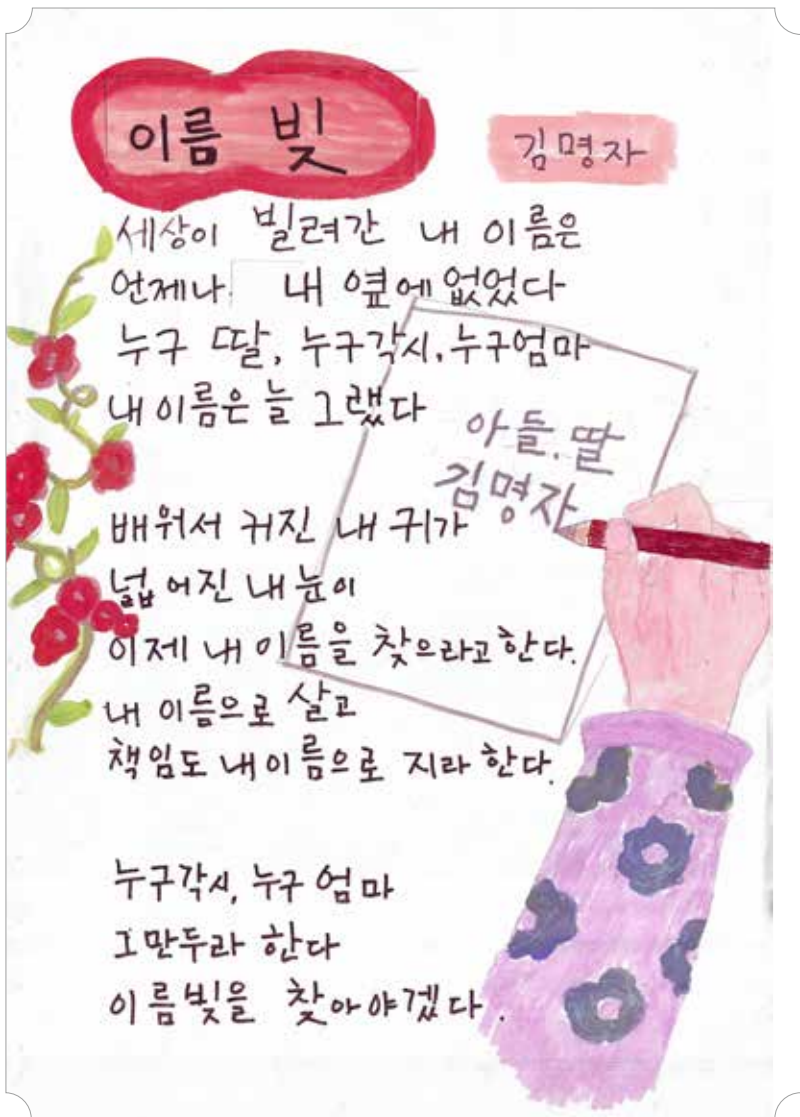
김명자

세상이 빌려간 내 이름은
언제나 내 옆에 없었다
누구 딸, 누구각시, 누구엄마
내 이름은 늘 그랬다

아들. 딸
김명자

배워서 커진 내 귀가
넓어진 내 눈이
이제 내 이름을 찾으라고 한다.
내 이름으로 살고
책임도 내 이름으로 지라 한다.

누구각시, 누구엄마
그만두라 한다
이름빛을 찾아야겠다.



이름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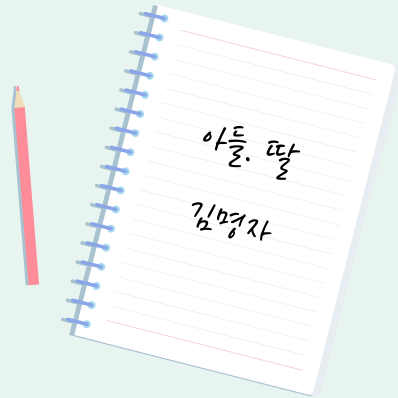
섬사랑평생교육원

김명자

세상이 빌려 간 내 이름은
언제나 내 옆에 없었다
누구 딸, 누구 각시, 누구엄마
내 이름은 늘 그랬다

배워서 커진 내 귀가
넓어진 내 눈이
이제 내 이름을 찾으라고 한다.
내 이름으로 살고
책임도 내 이름으로 지라 한다.

누구 각시, 누구 엄마
그만두라 한다
이름빛을 찾아야겠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스승의 은혜

김미자

칠판에 쓰진 스승의 은혜
 아들 손자들이 부르던 노래
 부르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선생님 얼굴 안보안다

글자 하나 하나 배우면
 마음 하나 하나 키지고
 못배운 서러움
 기쁨으로 채워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속으로 매일 매일
 꽃을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김미자

칠판에 쓰진 스승의 은혜
아들 손자들이 부르던 노래
부르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선생님 얼굴 안 보인다

글자 하나하나 배우면
마음 하나하나 커지고
못 배운 서러움
기쁨으로 채워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꽃을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이 제 부 터 시 작 이 다

김 복 임

공부를 할 수 없어 슬펐던 내 젊음 시절
글씨를 몰라 주민번호도 못 쓰고
주소도 쓸 줄 몰라 설움도 많았던 나

어린 딸아이가 내민 학교 알림장을 받고도
읽을 수가 없어 미안하고 또 미안했던 마음
그렇게 흘러간 내 젊었던 나날들

지금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용기를 주는 선생님도 있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다

배움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을
정말 학교에 다니길 잘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김복임

공부를 할 수 없어 슬펐던 내 젊은 시절
글씨를 몰라 주민번호도 못 쓰고
주소도 쓸 줄 몰라 설움도 많았던 나

어린 딸아이가 내민 학교 알림장을 받고도
읽을 수가 없어 미안하고 또 미안했던 마음
그렇게 흘러간 내 젊었던 나날들

지금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용기를 주는 선생님도 있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다



배움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을
정말 학교에 다니길 잘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생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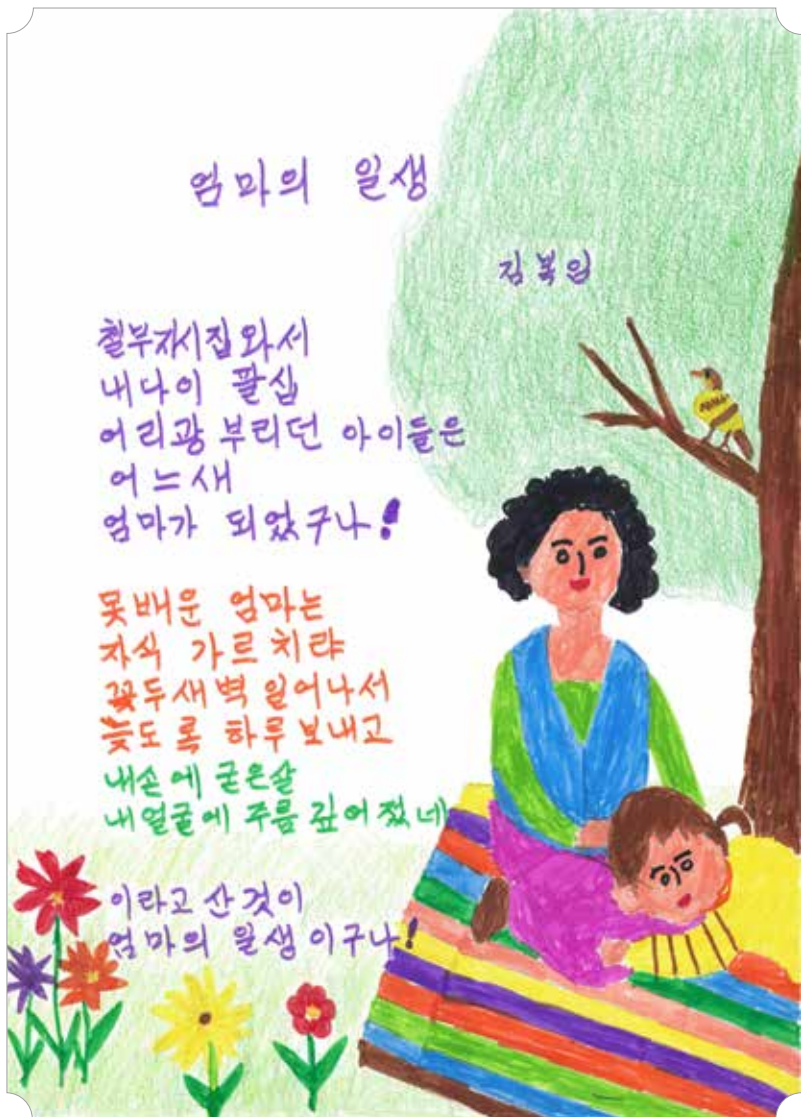
엄마의 일생

김복임

철부재집와서
내나이 팔십
어리광 부리던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가 되었구나!

못배운 엄마는
자식 가르치랴
꽃두새벽 일어나서
눅도록 하루보내고
내손에 굳은살
내얼굴에 주름 깊어졌네

이라고 산것이
엄마의 일생이구나!





엄마의 일생

완도군청
김복임

철부지 시집와서
내 나이 팔십
어리광 부리던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가 되었구나!

못 배운 엄마는
자식 가르치랴
꼭두새벽 일어나서
늦도록 하루 보내고
내 손에 굳은살
내 얼굴에 주름 깊어졌네

이라고 산 것이
엄마의 일생이구나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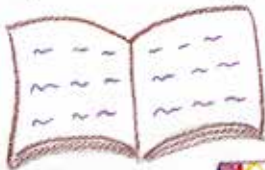
글자꽃 피었네

김봉연

내 나이 88세
 문래 고실에서 공부한지 3년이 되었네
 해가 다르게 눈은 흐려지고
 기억은 점점 가물 가물 거리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며 써 온 일기와 그림이
 내 방 한쪽에 작은 담처럼 쌓여가네
 받침은 틀리고 무슨 말을 썼는지 두서가 없는 글을
 둘째 딸이 엄마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고
 일기와 그림을 넣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김봉연 책을 만들었다네



같이 공부하는 할머니 둘이
 딸 잘 두었다고 부러워 한다네
 내 인생에 책 한권을 받아 들다니
 죽는 날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배워도 배워도 새롭고 재미 있다네





글자꽃 피었네

해남군꿈보배학교

김봉임

내 나이 88세
문해교실에서 공부한 지 3년이 되었네
해가 다르게 눈은 흐려지고
기억은 점점 가물가물 거리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며 써 온 일기와 그림이
내 방 한쪽에 작은 탑처럼 쌓여가네
받침은 틀리고 무슨 말을 썼는지 두서가 없는 글을
둘째 딸이 엄마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고
일기와 그림을 넣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봉임 책을 만들었다네

같이 공부하는 할머니들이
딸 잘 두었다고 부러워한다네
내 인생에 책 한 권을 받아 들다니
죽는 날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배워도 배워도 새롭고 재미지다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왕언니

김사연

여성도서관 한글 교실에서
내 나이가 제일 많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 드릴 말씀도
앞장 서서 한다.

모두 왕언니라고 좋아한다.





왕언니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김사임

보성도서관 한글 교실에서
내 나이가 제일 많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 드릴 말씀도
앞장서서 한다.

모두 왕언니라고 좋아한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는 공부합니다

김삼업

이것도 모른다고
저것도 모른다고
서 리움받고
아무것도 몰라
답답 하네요
그래서 배울라 니다

눈도 희미하고
손도 힘이 없고
이 나이에
공부하니 힘이 드네요
그래도 공부합 니다.

이제는 공부해서
내 힘으로 해볼라 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완도군청
김삼엽

이것도 모른다고
저것도 모른다고
서러움 받고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
그래서 배웁니다

눈도 희미하고
손도 힘이 없고
이 나이에
공부하니 힘이 드네요
그래도 공부합니다.

이제는 공부해서
내 힘으로 해볼랍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자랑스런 내 인생

김 선 심

내나이 팔순에 학생이 되었다
가방에고 통학 택시 타고
물루 락라~ 꽃초래 통일거리며.
졸집계 학교에 간다.

글을 몰라 답답하고 설음받았던
어종의 세월일랑 지우개로 쓱쓱 지워버렸다.

눈도 침침하고 깜박깜박 잊어버려진 커도
공나물에 물주면 쭈우욱 쭈욱자라듯이
환자 한자 배움을 키어나가는
지금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배움이란 글자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되었다.





자랑스런 내 인생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김선심

내 나이 팔순에 학생이 되었다
가방 메고 통학 택시 타고
룰루랄라~ 콧노래 흥얼거리며
즐겁게 학교에 간다.

글을 몰라 답답하고 설움 받았던
어둠의 세월일랑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렸다.

눈도 침침하고 깜박깜박 잊어버리긴 해도
콩나물에 물 주면 쑥우욱 쑥욱 자라듯이
한 자 한 자 배움을 키워나가는
지금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배움이란 글자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만 몇 번이었던가

공부라는 글만 보아도 미소가 절로
일흔이 넘은 나이
이제 와서 무얼 하나 싶었지만
참 잘한 일이다

그리도 부러워했던 공부
학교에 간다는 생각만 하여도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 시간만큼은
그리움도 보고픔도 잊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방을
아들이 사 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린다
아~~ 앞도 함께 하소서



공부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김숙자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만 몇 번이었던가

공부라는 글만 보아도 미소가 절로
일흔이 넘은 나이
이제 와서 무얼 하나 싶었지만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부러워했던 공부
학교에 간다는 생각만 하여도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 시간만큼은
그리움도 보고픍도 잊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방을
아들이 사 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린다
아~~ 오늘도 함께 하소서



10

11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우리영감

성덕마을 김순삼

영감 그곳은 편안하요?
모내기 끝나고 영감 생각나서 몇자 써보요

영감도 모르고 시집 와서 처음 본 영감
활판한 언물에 마음에 들었소
단것 없고 성실하고 자상한 영감 덕에
매운 시집 살이도 견딜 수 있었소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가셨소
영감이 남긴 소꿉우려 농사 지으며
자식들 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외로운 나에게 힘이 된 자식들

영감이 자식들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힘든 세월 지나 편안해 진게 생각이 더 하요
힘겨운 제고 다시 만나면 고생했다고
서로 안아주시다





우리영감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김순삼

영감 그곳은 편안하요?

모내기 끝나고 영감 생각나서 몇 자 써보요

얼굴도 모르고 시집와서 처음 본 영감

흰한 인물에 마음에 들었소

딴짓 않고 성실하고 자상한 영감 덕에

매운 시집살이도 견딜 수 있었소

그런디 왜 그렇게 빨리 가셨소

영감이 남긴 소 키우며 농사지으며

자식들 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외로운 나에게 힘이 된 자식들

영감이 자식들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힘든 세월 지나 편안해진게 생각이 더 나요

언제고 다시 만나면 고생했다고

서로 안아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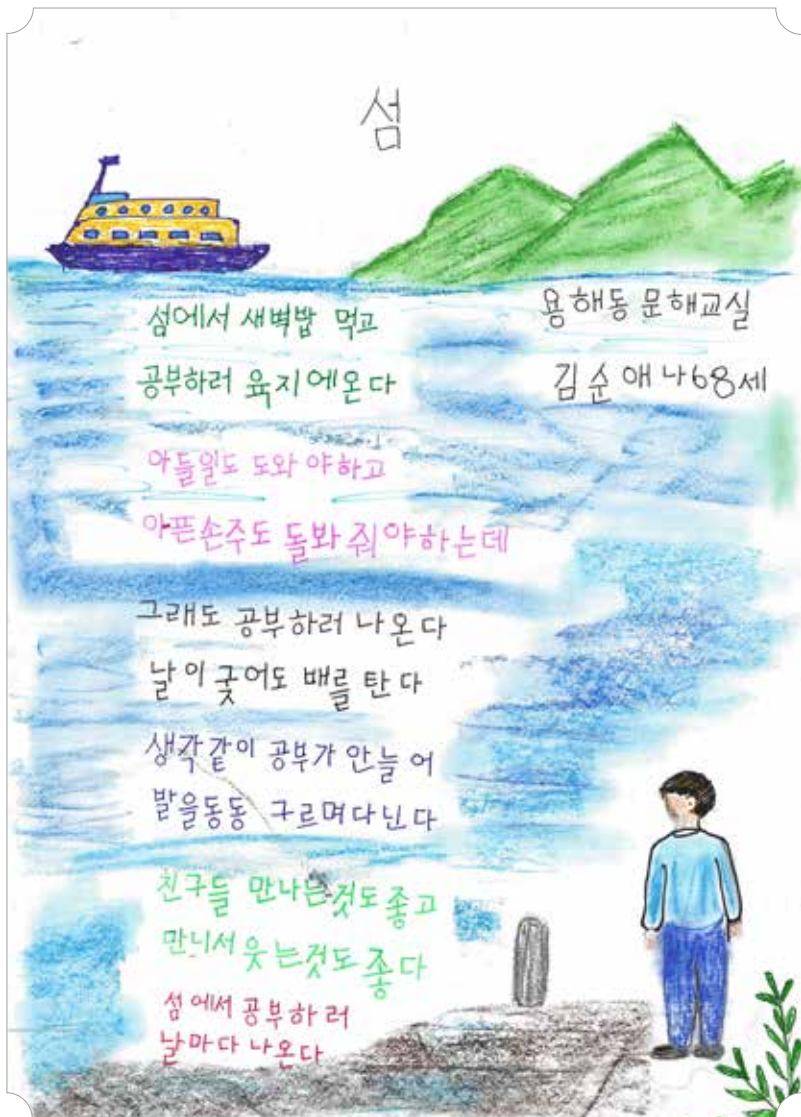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섬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김순애

섬에서 새벽밥 먹고
공부하러 육지에 온다

아들 일도 도와야 하고
아픈 손주도 돌봐줘야 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러 나온다
날이 꺾어도 배를 탄다
생각 같이 공부가 안 늘어
발을 동동 구르며 다닌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만나서 웃는 것도 좋다
섬에서 공부하러
날마다 나온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웃음꽃 문해교실

김 애 라

구구팔팔 칸글공부
 옥공 칠공 문해교실
 마을회관에서 샅샅이 모여서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서로 정답게 카하 호호
 웃음꽃이 활짝핀다.
 그동안 몰랐던 통익인간
 좋은 내가 해인것
 익은 나의 햇빛을 비취 주는것
 반갑습디라 - 당신은 나의 별이고
 나의 반입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예마리요 - (삼편에게) 왕 아시어
 어이마시 - (무인에게) 여왕아시어
 글의뜻을 몰랐을때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문해교실 통하여 뜻을알고
 사용하니 너무좋다.



수촌마을 문해교실



웃음꽃 문해교실

보성군청
김애라

구구팔팔 한글 공부
 육공칠공 문해교실
 마을회관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서로 정답게 하하 호호
 웃음꽃이 활짝 핀다.
 그동안 몰랐던 홍익인간
 흥은 내가 해인 것
 익은 나의 햇빛을 비취 주는 것
 반갑습니다 - 당신은 나의 빛이고
 나의 반입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예마리오 - (남편에게) 왕이시어
 어이마시 - (부인에게) 여왕이시어
 글의 뜻을 몰랐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문해교실 통하여 뜻을 알고
 사용하니 너무 좋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배우는 애순이

김애순

학교를 다니고 십분 애순이
친구들이 다닌 학교
나는 무간 학교
억울해 글 배운다.

그림그린 내글자
예쁜 내글씨 되고
아들이름
손주이름 써보너
마음이 너무 좋다
울고 싶 다
춤도 추고 싶 다.

사랑하는 우리손주
민지 지선 지혜 민정
든든한 내 아들
채호 승호 은호



글 배우는 애순이

완도군청
김애순

학교를 다니고 싶은 애순이
친구들이 다닌 학교
나는 못 간 학교
억울해 글 배운다.

그림 그린 내 글자
예쁜 내 글씨 되고
아들 이름
손주 이름 써보니
마음이 너무 좋다
울고 싶다
춤도 추고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로 배운 요리법

김연순

오즘에 와서 나는 요리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열무김치를 담았다
그런데 생각외로 열무김치가 맛이 좋아서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
그래서 기분히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치 담근 것은 카톡 에서 레시피 보고 했다.
친정 엄마한테도 안배운 거고 친구한테도 안배우고 카톡
글 보고 했다.

예전에는 카톡도 볼줄 몰라서 보지 못했지만 오즘에는 카톡도
친구와 주고 받을수 있어서 기분히 좋다.

카톡으로 요리법도 배우니 참 좋다.

복지관에 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재미 있게 공부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글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카톡도수월히
배워 요리도 새롭게 하니 참 기분히 좋다.

이제 내 요리법도 글도 남겨 볼까 ~~~.





글로 배운 요리법

목포시노인복지관

김연순

요즘에 와서 나는 요리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열무 물김치를 담았다.

그런데 생각 외로 열무김치가 맛이 좋아서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치 담근 것은 카톡에서 레시피 보고 했다. 친정 엄마한테도 안 배운 거고 친구한테도 안 배우고 카톡 글 보고 했다.

예전에는 카톡도 볼 줄 몰라서 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카톡도 친구와 주고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카톡으로 요리법도 배우니 참 좋다.

복지관에 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재미있게 공부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글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카톡도 수월히 배워 요리도 새롭게 하니 참 기분이 좋다.

이제 내 요리법도 글도 남겨 볼까~~~.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는 대학생

김영례

나는 대학을 나와도 졸업장이 없다.

노인대학 주부대학

대학만 다섯개 다녔다.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영감도 지식들도 아무도 모른다.

부지런히 배워서

부녀회장 한 자리도 해보아야 쓰겠다.



나는 대학생

홍지중고등학교 부설 성인문해교실

김영례

나는 대학을 나와도 졸업장이 없다.
노인대학 주부대학
대학만 다섯 개 다녔다.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영감도 자식들도 아무도 모른다.
부지런히 배워서
부녀회장 한 자리도 해봐야 쓰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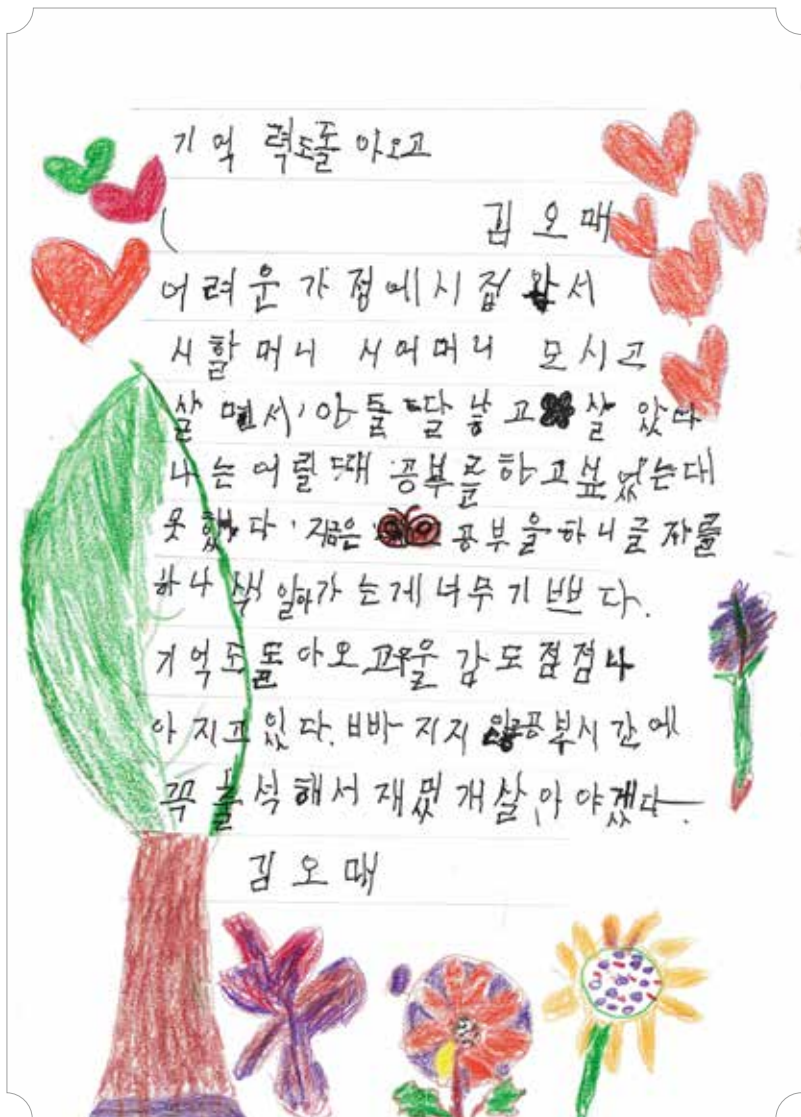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기억력도 돌아오고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김오매

어려운 가정에서 집 와서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아들딸 낳고 살았다
나는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지금은 공부를 하니 글자를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쁘다.
기억도 돌아오고 우울감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빠지지 않고 공부 시간에
꼭 출석해서 재밌게 살아야겠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아픈 몸과 마음



누가알까?

용해동문해교실

글물라 애타고 뒤로숨고

김용순 가세

늘 마음이 죽죽들고

가슴이 아파서 힘든서리움

이제야 배우러 나섰는데

허리가 아파서 힘들지만

공부할수있는 지금이

통증을 이겨낼만큼 즐겁다



다리에 통증이 오면

너무 힘들지만

글을 배우니 세상이 내편같이 좋다



아픈 몸과 마음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김옥순

누가 알까?

글 몰라 애타고 뒤로 숨고

늘 마음이 주눅 들고

가슴이 아파서 힘든 서러움

이제야 배우러 나섰는데

허리가 아파서 힘들지만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이

통증을 이겨낼 만큼 즐겁다

다리에 통증이 오면

너무 힘들지만

글을 배우니 세상이 내 것 같이 좋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만의 시간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김옥심

책가방 대신 고무장화를 신었지
어릴 적 나는 엄마를 도우며
가족의 끼니를 먼저 챙겨야 했어
학교는 늘 저만치 멀리 있었지
그래도 마음 한 켠에
늘 배움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이제야 중학교 책상에 앉아
그때 하지 못한 공부를 배우며
이렇게 시 써 내려가고 있어
늦었지만 참 잘 왔어
지금부터가 진짜 내 시간이야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춤추는 공부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김점심

봄이 오면 길가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어나듯
내 공부도 새싹이 돌아날까?

배우다 보면 봄비처럼
내 공부가 쏟아져서
세상을 흠뻑 적서 줄 때가 있을까?

봄비를 맞고 피어나는
매화꽃, 민들레꽃처럼
내 공부도 향내가 날까?

그런 날이 오기만 오면
한 마리 나비가 되어서
춤추며 온 세상을 날아갈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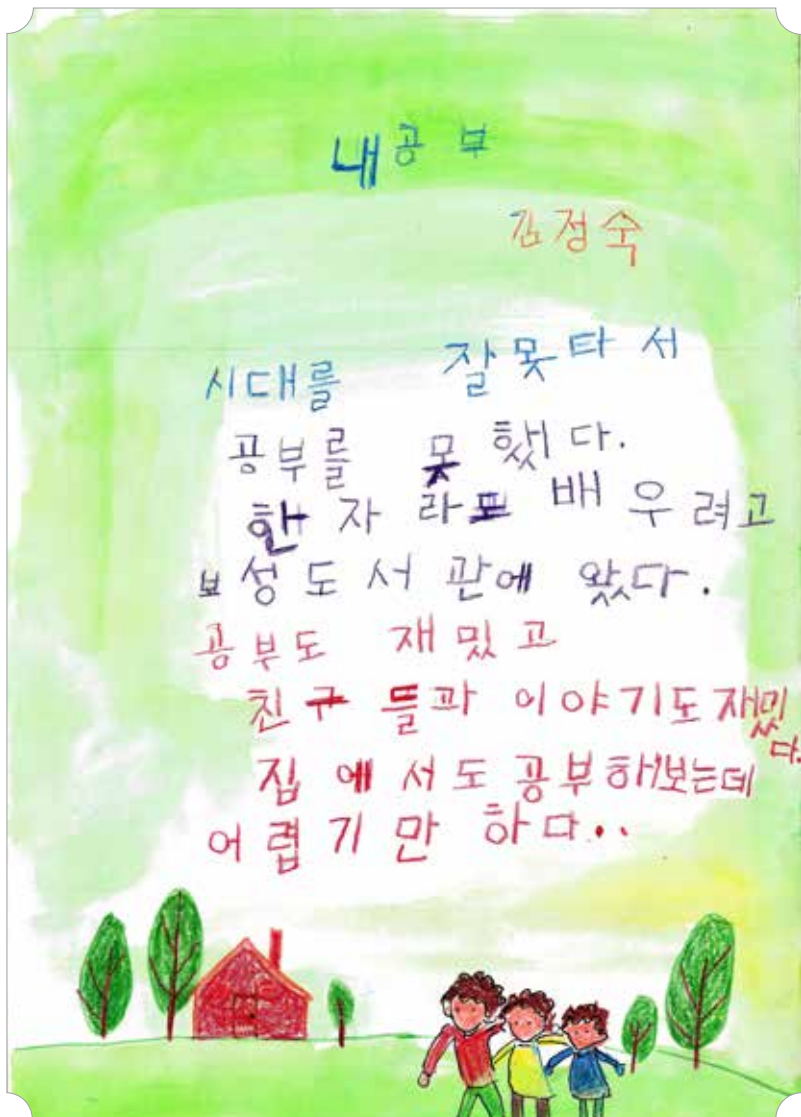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공부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김정숙

시대를 잘못 타서
공부를 못했다.
한자라도 배우려고
보성도서관에 왔다.
공부도 재밌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재밌다.
집에서도 공부해 보는데
어렵기만 하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의 꿈은 배움이다

세지면 화담마을 김정춘

아무것도 모른 것을 고마운 선생님
많아서 한자 한자 배우니
정말로 재미였다

엔날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
기금은 문해교육 때문에

달아져서 생활이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선생님이다

그러나 저는 항상
재미있었다 우리모도다
사랑합니다





나의 꿈은 배움이다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김정순

아무것도 모른 저를
고마운 선생님 만나서 한 자 한 자 배우니
정말로 재미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한 것을
지금은 문해교육 때문에
달라져서 생활이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선생님이다
그러나 저는 항상
재미있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만드는 희망

전라남도교육청 영광도서관

3 단계 김정자

글을 모르는 창피함이 무지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영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책을 펼치면

영에서는 볼 수 없는 글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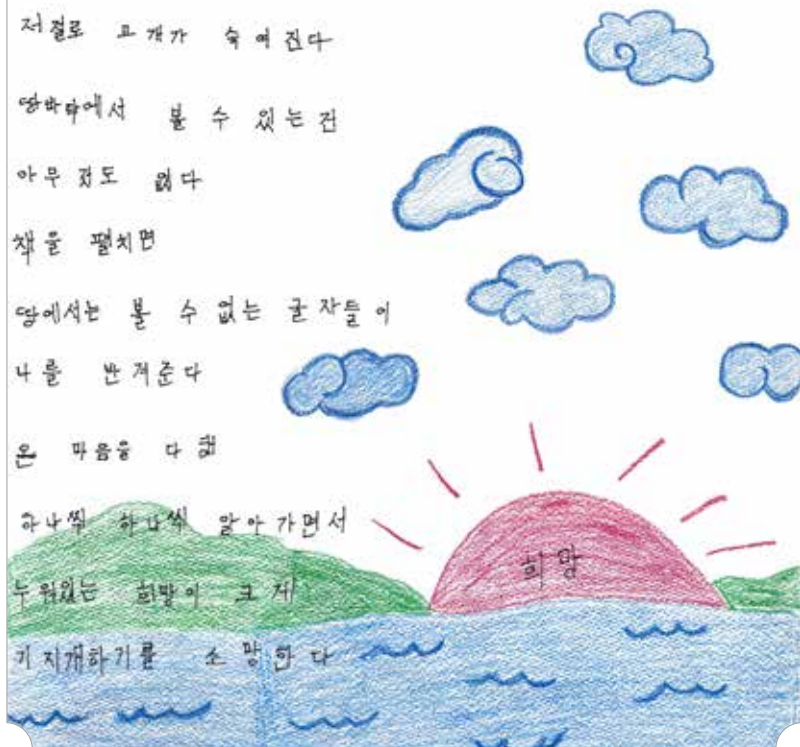
나를 반겨준다

은 마음을 다 읽

과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누워있는 희망이 크게

키지개하기를 소망한다





눈 뜨는 희망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김정자

글을 모르는 창피함이 무거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땅바닥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책을 펼치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글자들이
나를 반겨준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누워있는 희망이 크게
기지개하기를 소망한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귀한 손님



완도평생교육원

김정자

비어 있는 삶에서 채워 가는 삶으로
표현못한 삶에서 표현의 삶으로
바뀌는게 배움의 길이다.

그림 그리듯 써내려간 글자
그 속에 담긴 어린 시절의 서글픔
예전에는 쓰지 못 했던 내 이름 석자
알기에 배움의 길을 나선다
내 외생 끝자락에 찾아온
귀한 손님 배움이 있는 완도평생교육원



귀한 손님

완도평생교육원
김정자

비어 있는 삶에서 채워 가는 삶으로
표현 못 한 삶에서 표현의 삶으로
바뀌는 게 배움의 길이다.
그림 그리듯 써 내려간 글자
그 속에 담긴 어린 시절의 서글픔
예전에는 쓰지 못했던 내 이름 석 자
알기에 배움의 길을 나선다
내 인생 끝자락에 찾아온
귀한 손님 배움이 있는 완도평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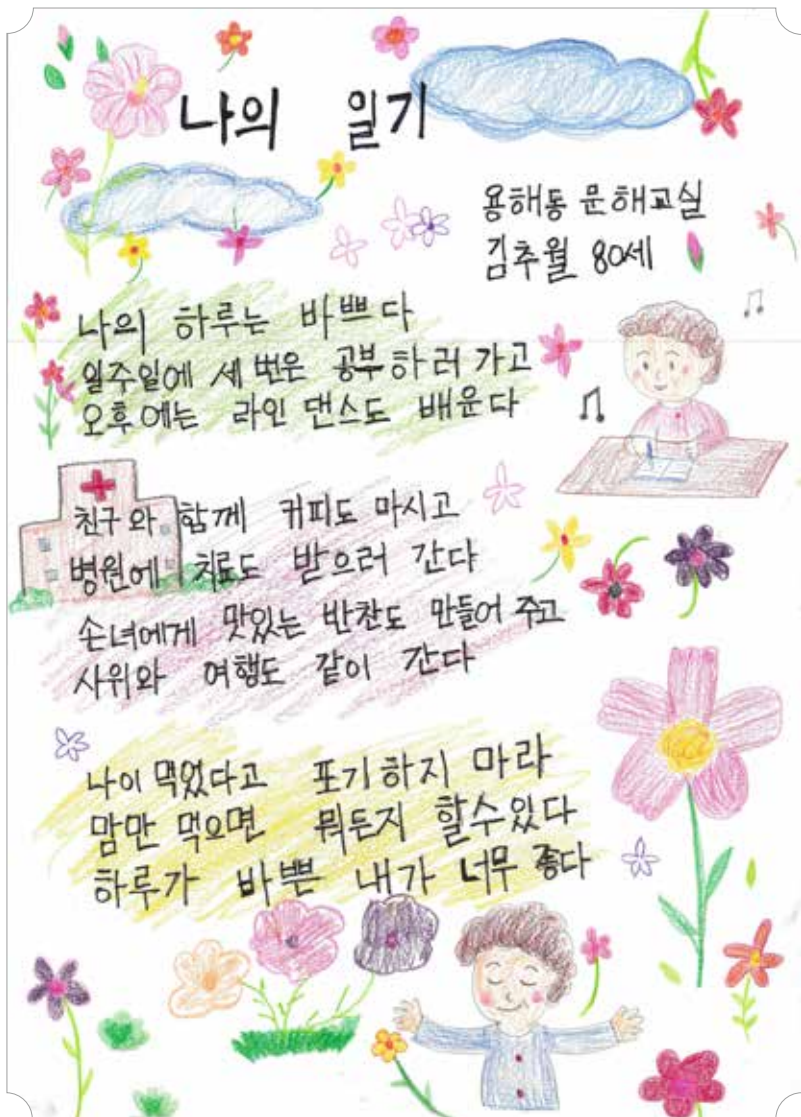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의 일기

목포시청(용해동 성인문해교실)

김추월

나의 하루는 바쁘다
일주일에 세 번은 공부하러 가고
오후에는 라인 댄스도 배운다

친구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병원에 치료도 받으러 간다
손녀에게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주고
사위와 여행도 같이 간다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루가 바쁜 내가 너무 좋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키오스크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김 판님

언제부터인가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 키의 무인계산기가 딱 하나 서있다
 무언가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은 다행히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의 도움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무사히 주문은
 마쳤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하다
 젊음 평생을 살았는데
 점점 낯설어지는 세상살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릴까?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기뻐해 본다





키오스크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김 판 님

언제부터인가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 키의 무인 계산기가 딱하니 서 있다
무언가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은 다행히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의 도움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무사히 주문을
마쳤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칠십 평생을 살았는데
점점 낮설어지는 세상살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릴까?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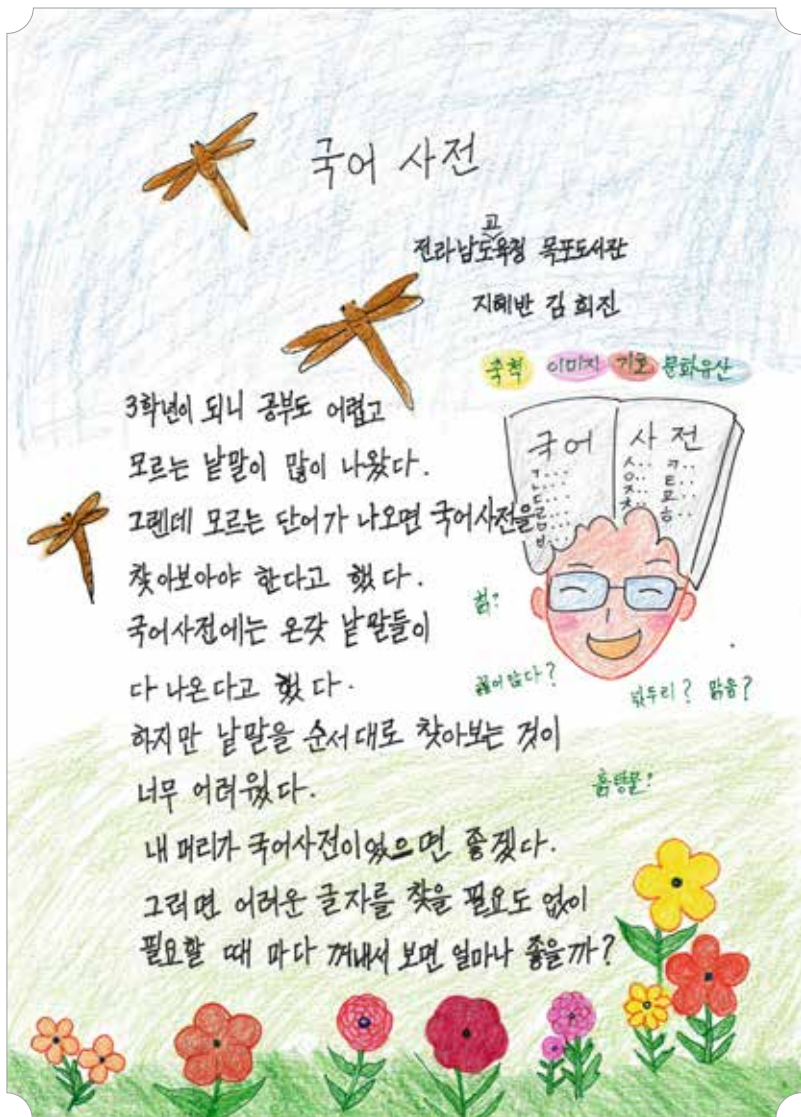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국어 사전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훈민정음대학

김희진

3학년이 되니 공부도 어렵고
모르는 낱말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국어사전에는 온갖 낱말들이
다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낱말을 순서대로 찾아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내 머리가 국어사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려운 글자를 찾을 필요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행복한 학교 길

나영순

제일정보학교에 다닌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웃는다
 공부를 하니 기쁘고
 주소도 쓰고 간판도 있을 수 있다
 서울 아들 집도 이제는 혼자 찾아갈 수 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작은 기적을 만나다
 어릴 적 엄마 머리맡에 앉아
 학교 가고 싶다며 울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로부터 일흔 해가 흘렀다
 지금 나는 학교에 다닌다
 친구도 생기고 매일이 기다려진다
 나는 오늘도 배움의 길 위에서
 참 맑기 참 깊이 행복하다



나영순



행복한 학교 길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나영순

제일정보학교에 다닌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웃는다
공부를 하니 기쁘고
주소도 쓰고 간판도 있을 수 있다
서울 아들 집도 이제는 혼자 찾아갈 수 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작은 기적을 만난다
어릴 적 엄마 머리맡에 앉아
학교 가고 싶다며 울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로부터 일흔 해가 흘렀다
지금 나는 학교에 다닌다
친구도 생기고 매일이 기다려진다
나는 오늘도 배움의 길 위에서
참 많이 참 깊이 행복하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꽃이 피었네



수리아을 노 캄레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우리 자을 회판 에
 문해 교실 한가득 꽃이 피었네
 아름답고 예쁜 꽃
 선생님 꽃 엄마 꽃
 언니 꽃 친구 꽃 꽃이 피었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우리들 아름속에 꽃이 피었네
 배움의 꽃 소망의 꽃
 희망의 꽃 믿음의 꽃
 즐거움의 꽃 행복의 꽃
 웃음의 꽃 사랑의 꽃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수리 아을 문해교을 꽃이 피었네
 꽃 피 워서 보람 채고
 꽃 피 워서 결실 맺어
 축복의 꽃을
 날려 보내 세.





꽃이 피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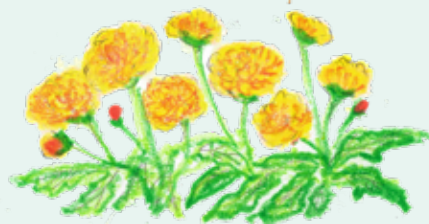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노점례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우리 마을 회관에
 문해교실 한가득 꽃이 피었네
 아름답고 예쁜 꽃
 선생님 꽃 엄마 꽃
 언니 꽃 친구 꽃 꽃이 피었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우리들 마음속에 꽃이 피었네
 배움의 꽃 소망의 꽃
 희망의 꽃 믿음의 꽃
 즐거움의 꽃 행복의 꽃
 웃음의 꽃 사랑의 꽃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수리마을 문해교실 꽃이 피었네
 꽃피워서 보람차고
 꽃피워서 결실 맺어
 축복의 꽃을
 날려 보내세.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마지막 소원

해남북지관

명용순

언제 감정을 지나고
 오빠 다섯, 언니, 막내도 태어난 나는 서울 아포에서 태어 났어
 2학년 때 학교가 6.25 전쟁으로 불타고
 그아저도 학교를 수습소로 만들었어
 책상도 의자도 없는 천막같은 곳에서
 비오면 비워서 학교가 쉬고 겨우 겨우 학교 다녀서
 분당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어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노량진 오빠 집에서 근근히 살아야 했고
 6.25 전쟁 때 참전한 두 오빠는
 다쳐서 오고 도포로 돌아 왔지만
 한국 세상을 일찍 떠났어
 20살 꽃같은 나이에 안 태 본 장사가 없었어
 떡장사 훗장사 나물장사 밥장사 커피장사
 새벽 네 시면 나가고 늦은 밤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는 소리만 들었지
 시집가는 딸아이 장롱이라도 해주고 싶어
 외상으로 가구를 사는 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오진 세월 가고 얼마를 귀하게 여기는, 딸과 나구에서 살고 있어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매일 복지관을 가는 거야
 마지막 소원이라면 지금처럼 사는 것
 거친 풍파를 거치고 잔잔한 바다에 다다른 것 같아





마지막 소원

중부노인복지관 문해학교

맹용순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오빠 다섯, 언니, 막내로 태어난 나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어
 2학년 때 학교가 6·25, 전쟁으로 불타고
 그마저도 학교를 수용소로 만들었어
 책상도 의자도 없는 천막 같은 곳에서
 비 오면 비 와서 학교가 쉬고 겨우겨우 학교 다녀서
 분당 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어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노량진 오빠 집에서 근근이 살아야 했고
 6·25 전쟁 때 참전한 두 오빠는
 다쳐서 오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결국 세상을 일찍 떠났어
 20살 꽃 같은 나이에 안 해 본 장사가 없었어
 떡 장사 옷 장사 나물 장사 밥장사 커피 장사
 새벽 네 시면 나가고 늦은 밤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는 소리만 들었지
 시집가는 딸아이 장롱이라도 해주고 싶어
 외상으로 가구를 사는 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모진 세월 가고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딸과 나주에서 살고 있어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매일 복지관을 가는 거야
 마지막 소원이라면 지금처럼 사는 것
 거친 풍파를 거치고 잔잔한 바다에 다다른 것 같아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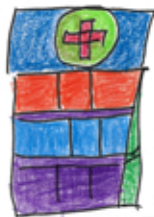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후련한 내 인생

소라북거관 문해교실

박규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다섯 남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
 남의 집 농사 일이나 동네 일은 물론이고
 공사장 막노동 일까지 하다 보니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다
 허리 수술 어께 수술 무릎 수술도
 두 번이나 해서 몸은 뻥신이 다 됐다.
 지금은 자식들이 절대 일을 못하게 해서
 복지관 문해교실에 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한다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하느라 전신 마취를 여러번 해서 그런지
 돌아서면 까먹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 버리지만
 배운 것을 악착 같이 읽고 써 보니
 이제는 뭔가 감이 잡힌다.
 이제 담담한 마음도 후련해지고
 내 생각을 글로 쓸수 있어 너무 좋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참고맙다.





후련한 내 인생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박규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저세상으로 떠나고
 다섯 남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
 남의 집 농사일이나 동네일은 물론이고
 공사장 막노동 일까지 하다 보니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다
 허리 수술 어깨 수술 무릎 수술도
 두 번이나 해서 몸은 병신이 다 됐다.
 지금은 자식들이 절대 일을 못 하게 해서
 복지관 문해교실에 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한다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하느라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돌아서면 까먹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 버리지만
 배운 것을 악착같이 읽고 써보니
 이제는 뭔가 감이 잡힌다.
 이제는 답답한 마음도 후련해지고
 내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어 너무 좋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참 고맙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부방

연동 주민센터

박금심

이름은 몰라도
 사는 곳도 몰라도
 그저 보면 반갑고
 공부방 가는 것이 즐겁다
 누구의 엄마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나이 불문 다친구다
 배우다 보니 잊었던
 글자도 배우고
 삼익하나 역사하나
 모든 것이 배워진다
 그래서 공부방이 좋다
 모여서 함께하니 좋다





공부방

목포시청(연동 성인문해교실)

박금심

이름은 몰라도
사는 곳도 몰라도
그저 보면 반갑고
공부방 가는 것이 즐겁다
누구의 엄마인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나이 불문 다 친구다
배우다 보니 잊었던
글자도 배우고
상식하나 역사하나
모든 것이 배워진다
그래서 공부방이 좋다
모여서 함께하니 좋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학교에 간다

박금안례

학교에 간다
우리 동네 정로당으로

책상에 앉아
내 이름 쓰고 식구를 이름도 쓴다

눈은 킁킁하고
손은 떨떨떨떨하고
마음은 콩닥콩닥
지렁이 기어간다고
서로 쳐다보고웃는다



그래도 선생님은
"참 잘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해주신다



학교에 간다

완도군청

박금안례

학교에 간다
우리 동네 경로당으로

책상에 앉아
내 이름 쓰고 식구들 이름도 쓴다
눈은 침침하고
손은 덜덜 떨리고
마음은 꿈닥꿈닥
지렁이 기어간다고
서로 쳐다보고 웃는다
그래도 선생님은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부가 재미져

박금자

그 림그 리기가 좋 아

큰 씨쓰 기눈 이 아 퍼

의 자 에 안자 있기도

허 리 가 아 프 프 다 리 부 서

쉬 었 다 하 라 고 하 도

더 하 고 자 와 서 못 쉬 어

공 부 가 이 렇 게 재 미 진 지

이 제 사 알 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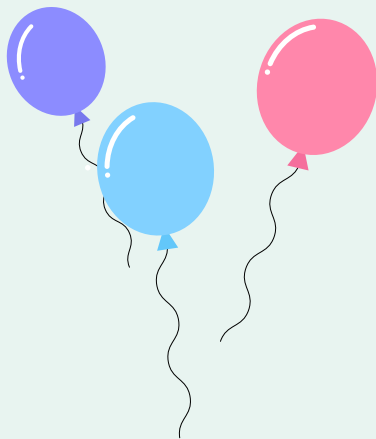




공부가 재미져

화순군청
박금자

그림 그리기가 좋아
글씨 쓰기 눈이 아퍼
의자에 앉아 있기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부서
쉬었다 하라고 해도
더하고 자와서 못 쉬어
공부가 이렇게 재미진지
이제사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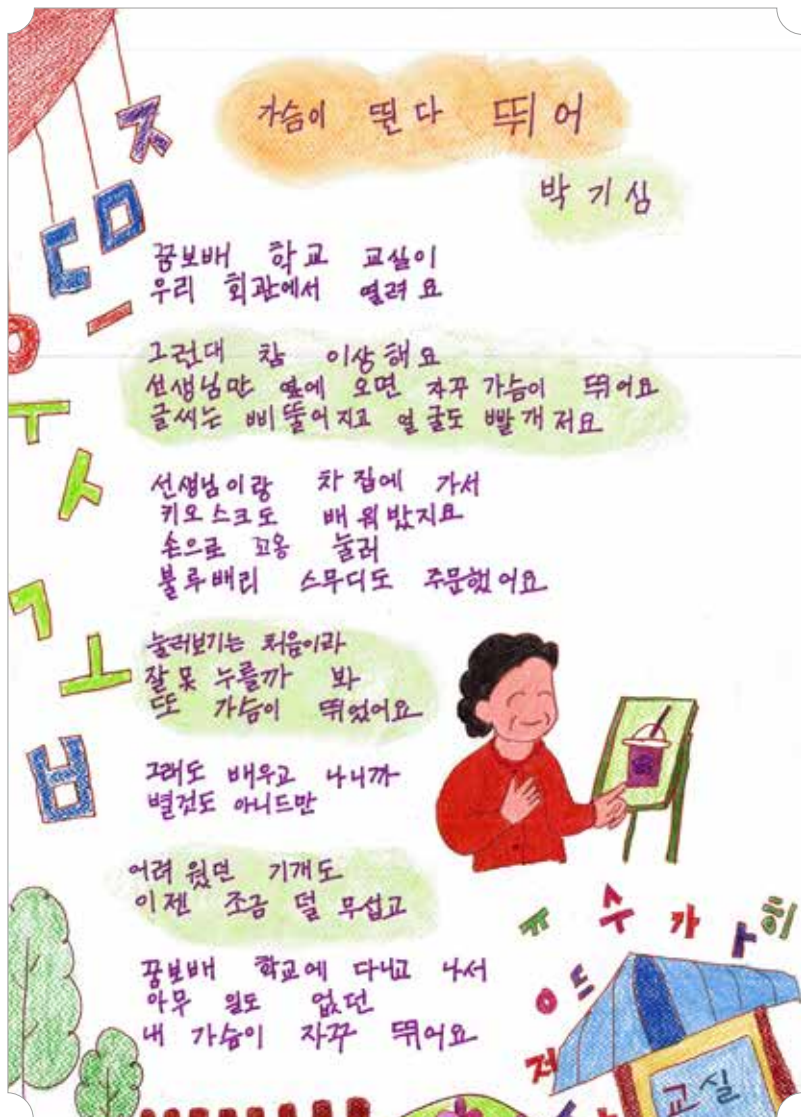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가슴이 뚱다 뛰어

해남군꿈보배학교

박기심

꿈보배 학교 교실이
우리 회관에서 열려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선생님만 옆에 오면 자꾸 가슴이 뛰어요
글씨는 빼뚱어지고 얼굴도 빨개져요

선생님이랑 찻집에 가서
키오스크도 배워 봤지요
손으로 꼬옥 눌러
블루베리 스무디도 주문했어요

눌러보기는 처음이라
잘못 누를까 봐
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도 배우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드만

어려웠던 기계도
이젠 조금 덜 무섭고

꿈보배 학교에 다니고 나서
아무 일도 없던
내 가슴이 자꾸 뛰어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서러움과 기쁨

박노영



글 모르는 서러움은 아무도 모른다

가슴에 한이 마치 큰암 먹고

민자라도 한글을 배울라고 부가관

한글학교에 다닌다



글을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달마다 한문씩 배

민자라는 한글을 조금 배웠다고 길가다가

글자가 보이던 한자 한자 읽고 이길 일간판도 읽고

부담간판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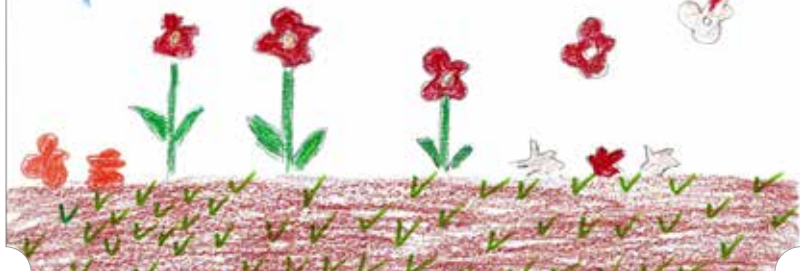
영결에 아들 딸들이 우연 받아서 100점도 자랑하고

이 뽕 꿀 그림도 자랑 하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칭찬하고 안아 주고

우울 바다가 된다

나도 민자라는 가슴에 한이 들었어라

아
가
어





서러움과 기쁨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박노덕

글 모르는 서러움은 아무도 모른다
 가슴에 한이 맺혀 큰맘 먹고
 인자라도 한글을 배울라고 복지관
 한글학교에 다닌다
 글을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날마다 한다는 게
 인자는 한글을 조금 배웠다고 길 가다가
 글자가 보이면 한자 한자 일고 미장원 간판도 일고
 식당 간판도 읽어 본다
 명절에 아들딸 들어 오면 받아쓰기 100점도 자랑하고
 이쁜 꽃 그림도 자랑하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웃음바다가 된다
 나도 인자는 가슴에 한이 풀었어라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즐거운 문해 학교

박복례

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원망만 했던 나였습니다.
 지금은 문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확도 배우고 알파벳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배웁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영어가 간판에
 써 있으면 읽을 수 있다. 행복 합니다.
 내가 몰라던 글씨를 알게 되어 문해 학교 가는 날이
 참 즐겁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문해 학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박복례

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원망만 했던 나였습니다.
지금은 문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배우고 알파벳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배웁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영어가 간판에 써 있으면 읽을 수 있다.
행복합니다.

내가 몰랐던 글씨를 알게 되어 문해 학교 가는 날이
참 즐겁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강아지 눈뜨듯이



박 삼 예

세상에 나왔어도 보지 못한 강아지처럼
 이나이 되도록 눈발으로 다니면서 일만할줄 알았지
 배움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허 보고 살았는게
 감사하게도 문해 교실이라는 배움터가 있어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글을 알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글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글을 읽고 보니 세상이 밝아 보이고
 혼자서 어디든지 갈수도 있다.

글을 모를 때는 혼자서 여덟 가기가 씩지 앉았는데
 이제 눈뜬 강아지 처럼 어디든지 가고 싶다
 참 좋은 세상이다





강아지 눈 뜨듯이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박삼예

세상에 나왔어도 보지 못한 강아지처럼
이 나이 되도록 눈발으로 다니면서 일만 할 줄 알았지
배움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문해 교실이라는 배움터가 있어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글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글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글을 알고 보니 세상이 밝아 보이고
혼자서 어디든지 갈 수도 있다.

글을 모를 때는 혼자서 어딜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눈뜬 강아지처럼 어디든지 가고 싶다
참 좋은 세상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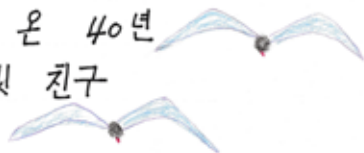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세 친구

박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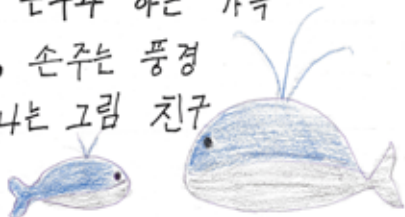
김미역 다시마 쿨느라
바다에서 살아 온 40년
물새는 나의 옛 친구



버스 캉밖 담벼락 그림 보며
그림말기에 그린 2월 매조
옆지기는 배춧이 웃는다
우리는 백년 친구



초등학생 손주와 하는 카톡
나는 고래, 손주는 풍경
손주와 나는 그림 친구





세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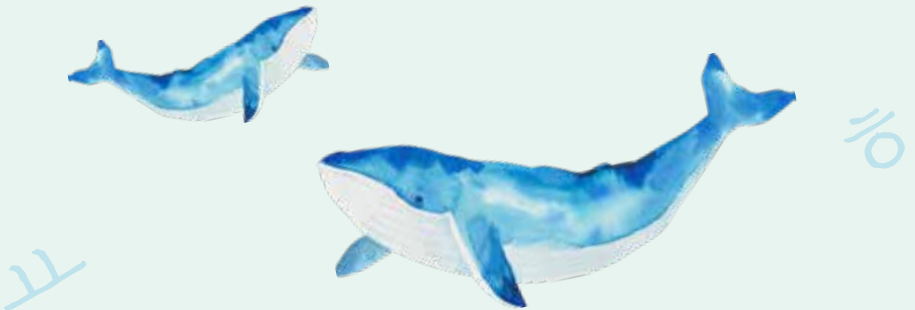
고금비전한글학교

박성임

김 미역 다시마 하느라
바다에서 살아온 40년
물새는 나의 옛 친구

버스 창밖 담벼락 그림 보며
그림일기에 그린 2월 매조
옆지기는 빠긋이 웃는다
우리는 백 년 친구

초등학생 손주와 하는 카톡
나는 고래, 손주는 풍경
손주와 나는 그림 친구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글 공부



수북정공 정보배깅 박성자

나는 공부 하는 것이 참 좋다



나는 한글을 배운다는 생각만 해도 좋다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녀서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학교가는 친구들을 바라만 봤다

나는산골에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 밭농사 조금



논농사 조금 짓는 농부여서

가 나 다 라

아주 힘들게 살았다

A B C D E F G H

아버지 어머니 하신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성자를 초등학교 보내자"고 하니까

엄마가 "남부름 내야하고 차비 내야하고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다투는소리 듣고 유 채 꽃

나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하였다

이제라도 한글을 배우니 참 감사합니다



한글 공부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박성자

나는 공부하는 것이 참 다
나는 한글을 배운다는 생각만 해도 좋다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녀서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학교 가는 친구들을 바라만 봤다
나는 산골에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 밭농사 조금
논농사 조금 짓는 농부여서
아주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 하신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성자를 초등학교 보내자”고 하니까
엄마가 “납부금 내야하고 차비 내야하고
세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다투는 소리 듣고
나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하였다
이제라도 한글을 배우니 참 감사합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봄나물과 언니

박순단



결혼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려고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도 봄만 되면
뒷산에 올라가
쑥과 곰뽕부리, 엉겅퀴를 뜯어 와서
나물로 무쳐서
서울 사는 언니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나물 50년 만에 먹어본다야”
언니 말에 무릎이 아파도
나는 또 뒷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나물 뜯던 언니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봄나물과 언니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박순단

결혼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려고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도 봄만 되면
뒷산에 올라가
쑥과 곰밤부리, 엉겅퀴를 뜯어 와서
나물로 무쳐서
서울 사는 언니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나물 50년 만에 먹어본다야”
언니 말에 무릎이 아파도
나는 또 뒷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나물 뜯던 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 공부 재미

박순자

우리 손버는 “할머니 검색가 이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요
“할매 반찬 정말로 잘해요

내가 시집가도 할매 반찬해주세요” 말올함니다

~~나는 반찬을 만든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손극들보면 행복합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글을 배우니

배우리법을 적어볼랍니다

글로 작어서 손녀에게

요리법을 알려주고싶어요

글배웠의 새터어야겠어요



글 공부 재미



글 공부 재미

목포시노인복지관

박순자

우리 손녀는

“할머니 김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요

“할매 반찬 정말로 잘해요

내가 시집가도 할머니 반찬 해주세요” 말을 합니다

나는 반찬을 만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손주들 보면 행복합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니

내 요리법을 적어볼랍니다

글로 적어서 손녀에게

요리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글 배웠으니 써먹어야겠어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키 오 스 크 가 뭐 지

박 순 희

음식점 가서 여기 주문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나에게겐 너무나 생소한 말
 키오스크가 뭐지?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다
 들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물건이
 내 앞에 떡하니 있는게 아닌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창피했다
 이른날 디지털 수업
 키오스크를 배운단다
 귀가 좋게 해졌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됐지만
 몇 번 수업을 듣고 주문을 해보니
 신기하기 세상 참 좋아졌다

NEW MENU





키오스크가 뭐지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박순희

음식점 가서 여기 주문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나에겐 너무나 생소한 말
 키오스크가 뭐지?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다
 듣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물건이
 내 앞에 떡하니 있는 게 아닌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창피했다
 이튿날 디지털 수업
 키오스크를 배운단다
 귀가 쫑긋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몇 번 수업을 듣고 주문을 해보니
 신기방기 세상 참 좋아졌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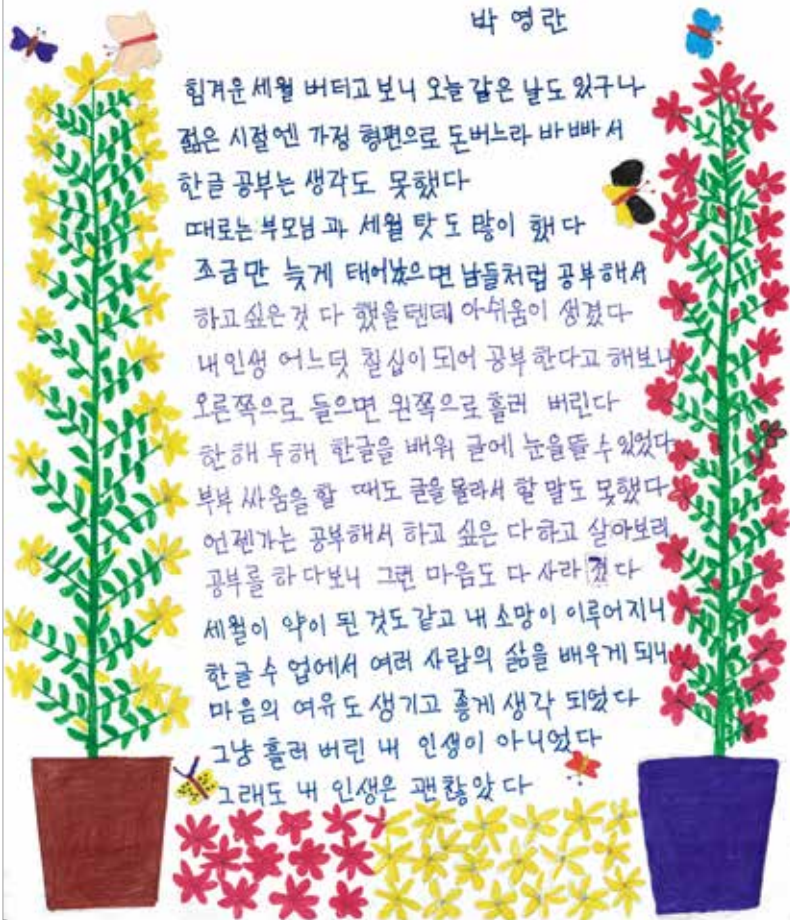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괜찮은 내 인생

전남 교육청 나주도서관

박영란





관찮은 내 인생

나주도서관
박영란

힘겨운 세월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젊은 시절엔 가정 형편으로 돈 버느라 바빠서
한글 공부는 생각도 못 했다
때로는 부모님과 세월 다투기도 많이 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남들처럼 공부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했을 텐데 아쉬움이 생겼다
내 인생 어느덧 칠십이 되어 공부한다고 해보니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흘러 버린다
한 해 두 해 한글을 배워 글에 눈을 뜰 수 있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글을 몰라서 할 말도 못했다
언젠가는 공부해서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보리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마음도 다 사라졌다
세월이 약이 된 것 같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니
한글 수업에서 여러 사람의 삶을 배우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좋게 생각되었다
그냥 흘러 버린 내 인생이 아니었다
그래도 내 인생은 관찮았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마늘밭

나주시노인복지관

박영란

봄이 찾아 온 마늘밭
 바람따라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초록으로 물든 마늘밭을 보니
 영아덥 살 시절 온 어린 새색시가
 생각합니다

세상물정 모르고 허둥지둥 살아 온
 젊은 새댁이 보입니다
 내 푸름 청춘은 떠나가고

웅크려 마늘처럼
 익어가는 내 인생만 남을 테지요.





마늘밭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박영란

봄이 찾아온 마늘밭
바람 따라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초록으로 물든 마늘밭을 보니
열여덟 살 시집온 어린 새색시가
생각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허둥지둥 살아온
젊은 새댁이 보입니다
내 푸른 청춘은 떠나가고
육쪽마늘처럼
익어가는 내 인생만 남을 테지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어머니

박영순

모	든	결	주	시	고	도
부	족	하	다	하	셨	던
어	머	니	마			
이	제	야	알	것	같	아
						요



늘	사	랑	의	눈	빛	으	로	보	시	던
어	머	니	와	손	길	은				
정	말	정	말	따	뜻	했	조			

어	두	운	밤	별	처럼	빛	나	던
어	머	니	의	별	소리			
귀	전	을	매	들	고			
저	침	어	진	소				



나	의	갈	이	되	었	조
힘	한	세	살	속	에	
줄	로	서	속	있	을	때
때	때	한	품	으	로	

날	어	머	니	와	주	시	던
언	제	나	봄	이	속	은	되
							었
							조





어머니

장성군청 찾아가는 문해교실

박영순

모든 걸 주시고도
부족하다 하셨던
어머니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늘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정말 정말 따뜻했죠

어두운 밤 별처럼 빛나던
어머니의 목소리
귓전을 맴돌고
거칠어진 손
나의 길이 되었죠

험한 세상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따뜻한 품으로
날 감싸 주시던
어머니의 품속은
언제나 봄이 되었죠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아름다운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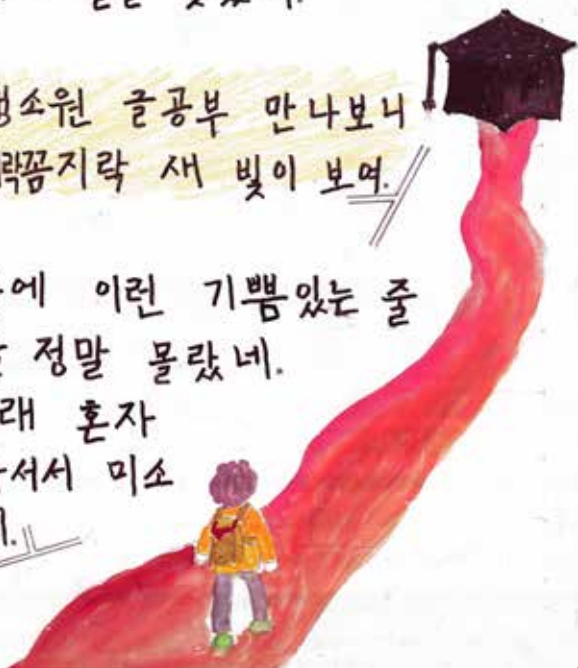
박옥희

나를 내던져 산 세월
허! 허! 벌써 팔십을 넘었어.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헤매다 길을 찾았네.

평생소원 글공부 만나보니
꿈지락꿈지락 새 빛이 보여.

글 속에 이런 기쁨있는 줄
정말 정말 몰랐네.

남몰래 혼자
돌아서서 미소
짓네.





아름다운 미소

섬사랑평생교육원

박옥희

나를 내던져 산 세월
허!허! 벌써 팔십을 넘었어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헤매다 길을 찾았네.

평생소원 글공부 만나보니
꿈지락꿈지락 새 빛이 보여.

글 속에 이런 기쁨 있는 줄
정말 정말 몰랐네.
남몰래 혼자 돌아서서 미소 짓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인생
박점자

내인생도 이제는 나도 행복하다
나도 이제는 하지 못한 공부를한다

이제는 나도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재미있다

이제는 잘 할수있다
남편 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 지만

이제는 나도할수있다
남편도 이제는 좋아한다





내 인생

무안군청
박점자

내 인생도 이제는 나도 행복하다
나도 이제는 하지 못한 공부를 한다

이제는 나도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재미있다

이제는 잘할수있다
남편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남편도 이제는 좋아한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지금여절 좋아 박정순

어린시절 가난하여 학교에 못갔어요
이십리길 걸어갔다 물고 그냥 왔어요

지금여절 좋아요

즐자 하나 하나 알아가니 너무 기뻐요

은행에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식씩하게 잘 갑니다





지금이 켈 좋아

목포시노인복지관

박정순

어린 시절 가난하여 학교에 못 갔어요
이십 리 길 걸어갔다 울고 그냥 왔어요

지금이 켈 좋아요
글자 하나하나 알아가니 너무 기뻐요
은행에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잘 갑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스도쿠

부경자

처음엔 잘안 되서

3 옆집 대학생한테 물었더니

나보고 하라고 안 가르쳐 준다

아들도 와서 물었더니

천천히 혼자 하라고 안 가르쳐준대

7 지우개는 다라지고

종이는 시꺼매지고

그래도 재미 저서

6 간을 맞추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도쿠가 완성되부뤼어

			3	1
1	5	8		3
9	8	3	2	1
6	3	2	8	5
4	1	5	4	2
9	6	1	6	4
1	9	8		



스도쿠

화순군청
박정자

처음엔 잘 안돼서
옆집 대학생한테 물었더니
나보고 하라고 안 가르쳐준다
아들도 와서 물었더니
천천히 혼자 하라고 안 가르쳐준당께
지우개는 닳아지고
종이는 시꺼매지고
그래도 재미져서
칸을 맞추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도쿠가 완성돼 부랴어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물렀거라 키오스크

박정자

나 혼자 광주 병원에 다녀왔어!

출발하자마자 기계하고

전쟁이 벌어졌지.

터미널			
서울	부산	대전	완도
09:00 10:00	09:30 11:30	06:00 09:00	05:30 07:30
	12:30	11:00	09:00
	14:00	12:30	10:30

완도 버스터미널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졌드만.

키오스크 매표기만

알뜰게 웃고 있더라고.

속으로 니까짓 게 했을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내가 교직원에서 머리 싸매가며

왜 공부를 했게?

병원 진료 예약, 계산, 다 통과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배움이 힘이야!



물렀거라! 키오스크

섬사랑평생교육원
박정자

나 혼자 광주 병원에 다녀왔어!
출발하자마자 기계하고
전쟁이 벌어졌지.

완도 버스터미널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졌드만.
키오스크 매표기만
얄밋게 웃고 있더라고.
속으로 니까짓 게 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내가 교육원에서 머리 싸매가며
왜 공부를 했게?
병원 진료 예약, 계산, 다 통과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배움이 힘이야!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친절한 사람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박형심

학교에 와서 보니
세상엔 친절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기사님도,
교육관 선생님도
모두 친절해요



딱 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모르면 마음속으로 애가 타고
잊어버리면 저를 막 혼내요
그래서 진짜 마음먹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배워서
성질도 내지 않는
친절한 박형심이 될 거예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는 강부자

배선임

자유도 모르고
시킨 것만 하면서
남편 자식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살았다

학교 가는 아침이 기대된다
맘대로 공부하니 행복하다
반침 글자가 어렵지만
이제 내가 선비 같다
날마다 새싹 나오는 봄날이다

이만기 나오는 동네 한바퀴
강부자처럼 살고싶다
달 아들 손주들 보며
뒤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로





나는 강부자

고금비전한글학교

배선임

자유도 모르고
시킨 것만 하면서
남편 자식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살았다

학교 가는 아침이 기대된다
맘대로 공부하니 행복하다
받침 글자가 어렵지만
이제 내가 선비 같다
날마다 새싹 나오는 봄날이다

이만기 나오는 동네 한 바퀴
강부자처럼 살고 싶다
딸 아들 손주들 보며
뒤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로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지나온 시간

광양시 종마노인복지관 백 미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갓집에서 자랐다.
 학교 다니는 또래들을 보며
 부러워 눈물짓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스무 살에 남편을 만났다.
 2남 1녀 내 자식을
 학교 다니는 많은 날들 동안
 까먹는 엄마는
 숙제 한 번 외주지 못했다.
 이제야 한글 배운다.
 자음 ㄱ, ㄴ, ㄷ
 모음 ㅏ, ㅑ, ㅓ, ㅕ
 열심히 배워서
 나도 한 번 어깨 펴고 살아보아야지





지나온 시간

광양시청_직영
백미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갓집에서 자랐다.
학교 다니는 또래들을 보며
부러워 눈물짓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스무 살에 남편을 만났다.
2남 1녀 내 자식들
학교 다니는 많은 날들 동안
까막눈 엄마는
숙제 한 번 봐주지 못했다.
이제야 한글 배운다.
자음 ㄱ, ㄴ, ㄷ
모음 ㅏ, ㅑ, ㅓ, ㅕ
열심히 배워서
나도 한 번 어깨 펴고 살아보아야지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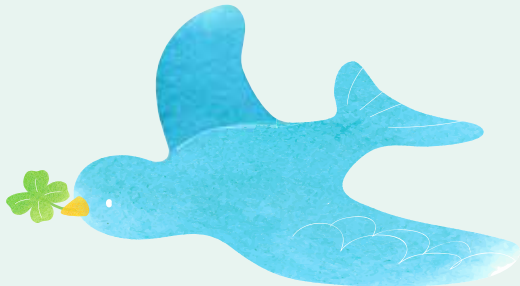


파랑새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백정자

파랑새는 행복을 품고
멀리 날아가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비우는 날들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파랑새가
조용히 날아와
내 마음속에 앉아 있다는 것을
행복은 배움의 자리
바로 이곳에 왔어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금일소망 한글학교
성감덕

8년 전, 내 나이 일흔아홉살
소량도에 한글 교실이 처음 생겼다.
공부를 하니 새로운 글자도 배우고
새로 알게 되니 너무 재미 있었다.

공부를 하던 중 코로나 시국을 만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고,
어느 해부터는 남편이 편찮아서
병수발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하루 하루를 견디게 해주었다.

지금은 배움의 나무를 배우니
시조도 배우고, 시도 써보고
처음으로 시화전에 도전해 본다.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래서 나는 책보는 재미로 산다.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금일소망한글학교
성감덕

8년 전, 내 나이 일흔아홉 살
소랑도에 한글 교실이 처음 생겼다.
공부를 하니 새로운 글자도 배우고
새로 알게 되니 너무 재미있었다.

공부를 하던 중 코로나 시국을 만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고,
어느 해부터는 남편이 편찮아서
병수발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주었다.

지금은 배움의 나무를 배우니
시조도 배우고, 시도 써보고
처음으로 시화전에 도전해 본다.
공부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나는 책보는 재미로 산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이름 석 자

송사레

배운 울케 다다라 애기 망진다고
학보 못 가게

아버지가 신발 감췄다
착란 남편과 논밭 바다에서 일만 했다

몰해만 하자고
새운 꼬추가 기이주

내 이름 석 자만 써도 행복하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좋다

암수 정다운 비둘기처럼
우리 내외 서로 익지하며

남은 시곤 보내고 싶다

송사레



내 이름 석 자

고금비전한글학교

송사례

배운 올케 따라 애기 망친다고
학교 못 가게
아버지가 신발 감춰다
착한 남편과 논밭 바다에서 일만 했다

올해만 하자고
심은 고추가 700주
내 이름 석 자만 써도 행복하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좋다

암수 정다운 비둘기처럼
우리 내외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 보내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기커 세상 이겨 보자

송준재

워신가 오르겠지만
 지금은 워면 기계도 똑똑 놀르지 않르면
 먹기도 사기도 찾기도 힘든 세상이 되부렸네
 이런 놀라움을 어찌 살라고
 자식들 끼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이어
 아휴 참.....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놀리기 연습한다
 핸드폰 부터 은행 에서 넌그 배고
 가르켜 준에도 한번씩 연습하다 보면 자가 되겠제
 내가 기계를 이겨 볼란다.





기계 세상, 이겨보자

영암군청
송춘재

뭐신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든지 기계로 꺾꺾 누르지 않으면
 먹기도 사기도 찾기도 힘든 세상이 되부렀네
 이런 늙은이를 어찌 살라고
 자식들 끼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니
 아휴 참.....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누르기 연습한다
 핸드폰부터 은행에서 넣고 빼고
 가르켜 준 데로 한 번씩 연습하다 보면 지가 되것제
 내가 기계를 이겨 볼란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평동 아짐

바실 신금순

나의 이름은 평동 아짐
바실 부락에서 자은 이름
시집 와서 바뀐 이름

내 이름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슬퍼진다

나의 이름은 신금순
시집 오기 전까지
몇천 번 들은 이름
내 먹어 찾은 내 이름

내 이름 여자
귀한 내 이름
금보다 귀한 이름





평동 아짐

나주시청 은빛배움터

신금순

나의 이름은 평동 아짐
박실 부락에서 지은 이름
시집와서 바뀐 이름

내 이름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슬퍼진다

나의 이름은 신금순
시집오기 전까지
몇천 번 들은 이름
나이 먹어 찾은 내 이름

내 이름 석 자
귀한 내 이름
금보다 귀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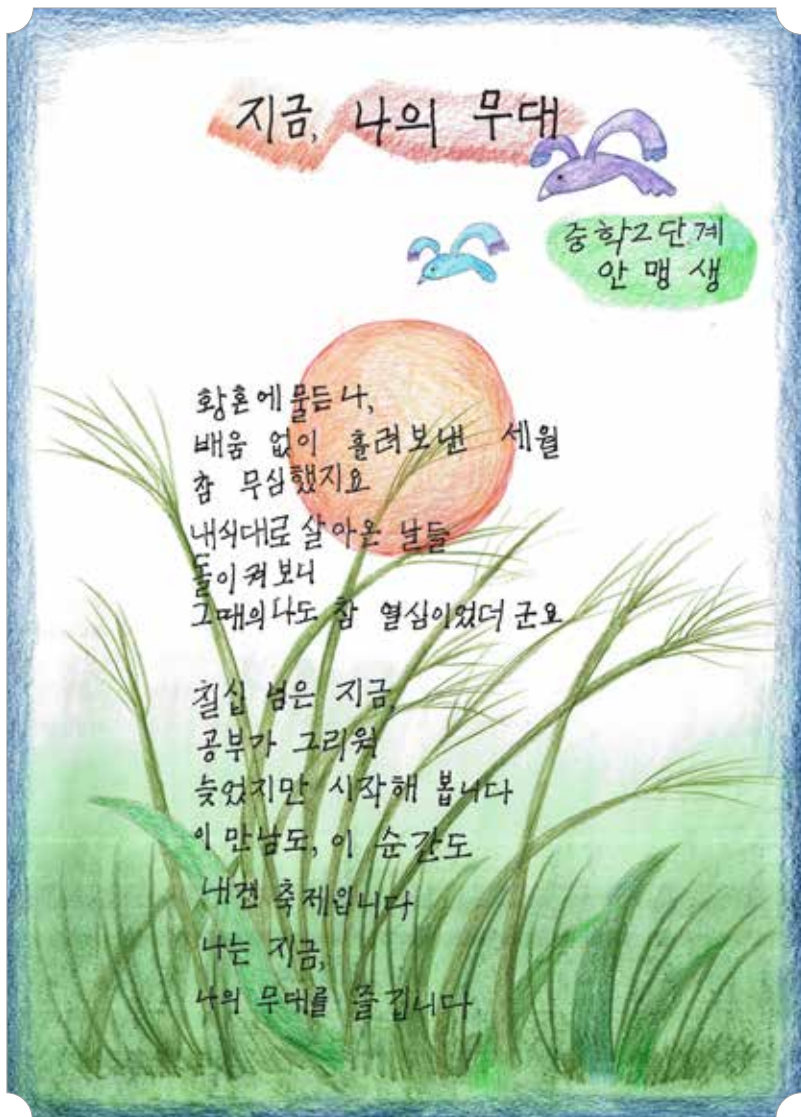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지금, 나의 무대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안맹생

황혼에 물든 나,
배움 없이 흘러보낸 세월
참 무심했지요
내식대로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그때의 나도 참 열심이었던군요

칠십 넘은 지금,
공부가 그리워
늦었지만 시작해 봅니다
이 만남도, 이 순간도
내겐 축제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무대를 즐깁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인 생

빛가람동 성당 빈첸시오 한글 교실 오 정 래

인생이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일찌기 부모님을 잃고 목숨이 포도렁이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 인생이 한갓 흙처럼 넘어 버렸네
 가족과 먹고 살려진 쥘 거품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머리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 안잡네
 장선 되기를 하고나니 이제서야 권글을 배웠다
 이제라도 배울수 있어서 다행이다
 독학으로 뒤임 뒤임 공부원글자를 제대로 배워
 한 자 한 자 영글어 가는
 내자신이 자랑스러워 혀들을 보냈잖네





인생

빛가람동성당(빈첸시오회)

오정래

인생이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 인생이
환갑을 훌쩍 넘어 버렸네
가족과 먹고 살려고 중소기업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머리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네
정년퇴직을 하고나니 이제서야 한글을 배운다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독학으로 띄엄띄엄 공부한 글자를 제대로 배워
한 자 한 자 영글어 가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하늘을 날 것 같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세 번째 학교

구일 소망 한글학교
유남심

내 나이 팔십 하고도 여섯
세 번째 학교에 다닌다.

12살, 야학당에 처음 학교에 다녔고,
몇 년 전 복지회관에서 한글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배우다 말았다.



“코로나 끝나면 공부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세 번째 학교에 다니니 참 좋다.”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책도 읽고, 밭아쓰기도 하고
지팡이 짚고 오늘도 학교에 간다.





세 번째 학교

금일소망한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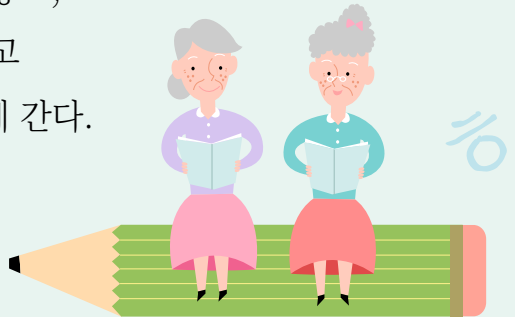
유 납 심

내 나이 팔십 하고도 여섯
세 번째 학교에 다닌다.

12살, 야학당에 처음 학교에 다녔고,
몇 년 전 복지회관에서 한글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배우다 말았다.

코로나 끝나면 공부할 수 있다던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세 번째 학교에 다니니 참 좋다.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책도 읽고, 받아쓰기도 하고
지팡이 짚고 오늘도 학교에 간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하

재 있다 한글

윤성자



글자를 어떻게 쓴다오 아이고 어렵네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네 내일도...
내가누군지 모르져?

하

뜻심으로 알아온 가이여 이름이 뜻심이란게
한글공부도 시작했으니
뜻심하나로 끝까지 해볼라고
왜냐고 재밌으니까

하

나도 할수 있어~~~~ 할꺼여~~~~
끝까지 해 나는 뜻심이너까!!



하하하



하



재밋다 한글

풀뿌리희망문화학교

윤성자

글자를 어떻게 쓴다요 아이고 어렵네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네 내일도...
내가 누군지 모르제?
뚝심으로 살아온 나여 내 이름이 뚝심이랑께
한글 공부도 시작했으니
뚝심 하나로 끝까지 해볼라고
왜냐고 재밋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할꺼여~~~
끝까지 해 나는 뚝심이니까!!
하 하 하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을 읽고 배우기

윤 소심

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한지

일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연필을 잡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짧은 글은

제법 능숙하게 써 준다

자식들에게

짧은 편지도 쓴다

꾸준히 공부할 것이다

열심히 위해서 좋은책도 읽을 것이다





글을 읽고 배우기

여주시노인복지관

윤소심

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연필을 잡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짧은 글은
제법 능숙하게 읽는다
자식들에게
짧은 편지도 쓴다
꾸준히 공부할 것이다
열심히 익혀서 좋은 책도 읽을 것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있 다 었 다

나주시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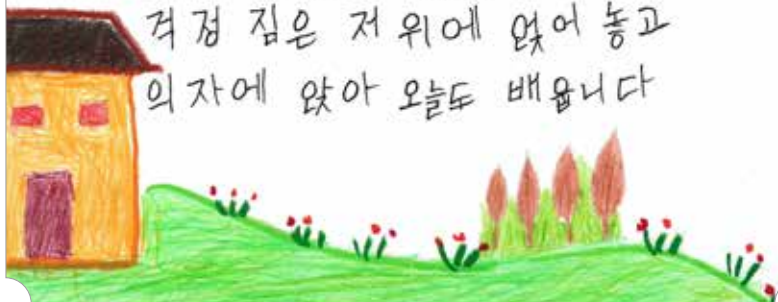
이금자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한글을 배웁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날만 새면 싹 지워지는 데도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있 다 었 다’ 받침이 두 개 있는 것도
배웁니다.

마음은 꽃밭에 앉았 습니다
걱정 짐은 저 위에 얹어 놓고
의자에 앉아 오늘도 배웁니다





앉다 었다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이금자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한글을 배웁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날만 새면 싹 지워지는 데도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앉다 었다’ 받침이 두 개 있는 것도
배웁니다.
마음은 꽃밭에 앉았습니다
걱정 짐은 저 위에 었어 놓고
의자에 앉아 오늘도 배웁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과 일 집



청무화과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소망반이말심

우리집에는과일나무가 많다.
살구나무 청포도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우리집과일은 참 맛있었다.

오빠하고 나하고살구나무 아래에
누워있으면살구가입으로 푹 떨어졌다
“엄마~ 말 심이 입에 살구가 떨어졌어”



청포도 나무에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나눔몰래 따서맛있게 먹었다.

그 때는 한글을 몰라서 못 적었지만
이제는 배운 글자로 적어본다.
살구, 청포도, 감, 무화과 나무



살구



청포도



감



과일 집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훈민정음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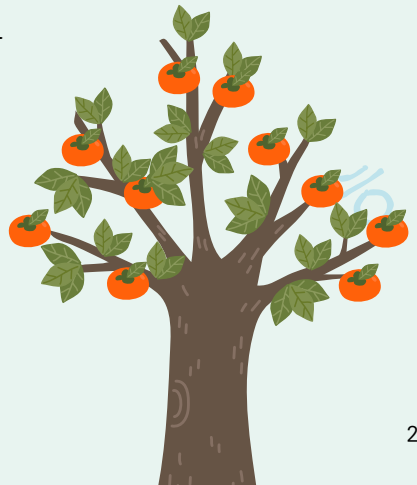
이 말심

우리 집에는 과일나무가 많다.
살구나무 청포도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우리 집 과일은 참 맛있었다.

오빠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아래에
누워있으면 살구가 입으로 품 떨어졌다
“엄마~ 말심이 입에 살구가 떨어졌어”

청포도 나무에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나는 몰래 따서 맛있게 먹었다.

그때는 한글을 몰라서 못 적었지만
이제는 배운 글자로 적어본다.
살구, 청포도, 감, 무화과나무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학교에서 CAFE 까지

이명임



바다에서 전복키우고 김막고 툃하고

매일 매일 일만 했는데
 학교에 가니 신기하게 테이블 PC 뭐라
 했는데 허도 안돌아 가네
 테이블 PC로 공부하는데 선생님은
 터치 터치 내손은 굳은살 박혀
 터치가 ~ㅇ 터치
 또 키키 뭐라 했는데 키오스기로
 커피주문 주스주문, 동남주문 연습
 드디어 카페에 가다
 심장이 두근 두근 내가 먹을 키오스
 커피 주문 앞싸 성공 성공이다
 연습하니깐 되네





학교에서 CAFET까지

보길도 꿈꾸는 학교

이명임

바다에서 전복 키우고 김 막고 톳하고
 매일매일 일만 했는데
 학교에 가니 신기하게 태블릿 PC 뭐라
 했는데 혀도 안 돌아가네
 태블릿 PC로 공부하는데 선생님은
 터치 터치 내 손은 굳은살 박혀
 터치가 No 터치
 또 키키 뭐라 했는데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 주스 주문, 통닭 주문 연습
 드디어 카페에 가다
 심장이 두근두근 내가 먹을 키오스크
 커피 주문 앓싸 성공 성공이다
 연습하니깐 되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하 다 보 면 되 겠 지

이 미 금



평 생 일 만 하 다 가 별 을 보 며

학 교 에 가 다 종 종 걸 음 으 로 문 을 열 고 들 어 가 다

새 로 운 글 자 들 이 나 를 반 기 다

오 늘 은 무 슨 글 자 를 배 울 까 궁 금 하 다

한 글 공 부 영 어 공 부 음 악 공 부 하 며

뭔 가 뭘 지 아 리 송 하 다

말 기 만 하 면

재 미 있 겠 는 다...

? 하 다 보 면

되 겠 지





하다 보면 되 것지

보길도 꿈꾸는 학교

이 미 금

평생 일만 하다가 별을 보며
학교에 간다 종종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새로운 글자들이 나를 반긴다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울까 궁금하다
한글 공부 영어 공부 음악 공부 하며
뭐가 뭔지 아리송하다
알기만 하면
재미있었는데...
하다 보면
되것지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할머니도 이런 걸 해?

이부순

할머니도 이런 걸 해?

그림 그리는 나를 보고

손주가 물어 본다

그림 영판 재밌다

선생님이 잘 한다고 칭찬 해주고

뭘로 칠할까 생각하다 보면

시간도 잘가고

글자는 만들어와도

그림은 너무 좋다





할머니도 이런걸 해?

화순군청
이복순

할머니도 이런 걸 해?
그림 그리는 나를 보고
손주가 물어본다
그럼 영판 재밌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뭘로 칠할까 생각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글자는 안 들어와도
그림은 너무 좋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마음의 지주 전라남도교육청 영광도서관
이숙자

고추를 심고 지주를 세웠다
 고추가 지주에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고 쑥쑥 커서
 가지를 활짝 펼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며 붓도 해 주었다
 튼튼하게 한다고 했는데
 센 바람에 못 견딘 고추가
 목을 꺾고 말았다
 어찌나 속상하던지
 튼튼하게 지주를 세워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인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안다고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에
 단단한 지주를 세워두지 않았가 때문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내 마음의 지주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이숙자

고추를 심고 지주를 세웠다
고추가 지주에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고 쭉쭉 커서
가지를 활짝 펼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며 볏도 해 주었다
튼튼하게 한다고 했는데
센 바람에 못 견딘 고추가
목을 꺾고 말았다
어찌나 속상하던지
튼튼하게 지주를 세워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에
단단한 지주를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새 책을 받고

이윤자

문해 학교 입학해서 처음 새 책을 받고
 책속 내용이 궁금 해서 펼쳐보았다.
 아는 글자 모르는 글자 뒤죽 박죽
 머리 속에서 엉키는 기분
 일주일에 세 번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보다 더 밝은 글자가 머리속에 기억된다
 한 글자를 배우고 알게 되니까
 오늘은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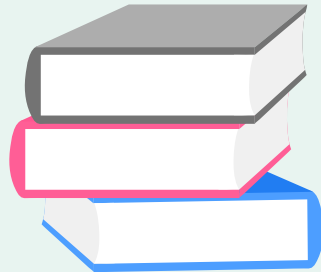


새 책을 받고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이윤자

문해 학교 입학해서 처음 새 책을 받고
책 속 내용이 궁금해서 펼쳐보았다.
아는 글자 모르는 글자 뒤죽박죽
머릿속에서 엉키는 기분
일주일에 세 번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보다 더 많은 글자가 머릿속에 기억된다.
한 글자를 배우고 알게 되니까
오늘은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이름은 채소장사 이었다.

광양노인복지관 이음진

내 이름은 채소장사 이었던

날마다 장에서

고추, 가지, 오이, 배추, 무,

눈만 뜨면 나가서 채소를 팔았다.

이젠 나이 들어 김사도 못해

복지관 조미

선생님이 나와서 이음진 학생이라고 부른 날

즐거워 영양식을 좋은 죽이다.

채소장사 이었던이 아낀

이음진 학생 이음으로 거듭 살고 싶다.





내 이름은 채소 장사 이샌떡

광양시청_직영

이음전

내 이름은 채소 장사 이샌떡
날마다 장에서
고추, 가지, 오이, 배추, 무시
눈만 뜨면 나가서 채소를 팔았다.
이젠 나이 들어 장사도 못해
복지관 오니
선생님이 나한테 이음전 학생이라고 부른 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채소 장사 이샌떡이 아닌
이음전 학생 이름으로 계속 살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받아쓰기 백점

이인진

한자 한자 써보고
다시 써보고
또 써보고
맞았구나!

안 보고도 술술
내마음은 허벌나게
좋아

백점 받고 싶은 마음
수업시간만 기다리네.





받아쓰기 백점

완도군청
이인진

한 자 한 자 써보고
다시 써보고
또 써보고
맞았구나!

안 보고도 술술
내 마음은 허벌나게 좋아.

백 점 받고 싶은 마음
수업 시간만 기다리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씨를 배운 기쁨



완도 평생교육원

이장덕

학교에 가기 전 나는 글씨를 몰랐습니다
 한글도 숫자도 간판도 그저 그림처럼보였지요.
 버스를 탈 때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운전기사님께 물고 또 물고
 우편물이 오면 이웃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학교에 와서 한글자 숫자 
 또박 또박 배워가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글씨를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약봉투에 글씨도 읽고 버스 노선도 알 수 있고 
 은행에 가서 혼자 번호표도 받고
 통장에 돈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선 뽑아 마십니다 
 너무 기뻐 혼자 웃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글씨를 배운 기쁨

완도평생교육원

이장덕

학교에 가기 전 나는 글씨를 몰랐습니다
한글도 숫자도 간판도 그저 그림처럼 보였지요
버스를 탈 때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운전기사님께 물고 또 물고
우편물이 오면 이웃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학교에 와서 한 글자 숫자
또박또박 배워가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글씨를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약 봉투에 글씨도 읽고 버스 노선도 알 수 있고
은행에 가서 혼자 번호표도 뽑고
통장에 돈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선 뽑아 마십니다
너무 기뻐 혼자 웃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의 꿈

이재명

세월을 뒤흔들듯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
 학교는 갈 수도 있지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와서
 살림살이 들어나는 재미로
 작식들 보는 재미로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장녀들 다 여우살이 하고
 참 재미있고 좋다 보내고
 편지문 써서 작선돈 화에
 일기도 쓰고 잡다
 무안군부합센터
 화목반 이재명

공손어



도마토



나의 꿈

무안군청
이재영

세월을 탓할 수밖에
위낙 어렵게 살다 보니
학교는 갈 수도 없었지
얼굴도 모르고 시집와서
살림살이 늘어나는 재미로
자식들 보는 재미로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자녀들 다 여우살이하고
참 재미있고 좋다
편지를 써서 자손들한테 보내고
일기도 쓰고 잡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엄마얼굴

나는 어릴적 엄마를 잃어 이행자
엄마라는 단어가 웬지 어색하지

그러면 나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하늘을 보며 그려보지

동그란 얼굴일까
가끔한 얼굴일까
아무리 떠올리려해도

어느유행가 가사처럼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고
오늘도 잠이 들지



엄마 얼굴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행자

나는 어릴 적 엄마를 잃어
엄마라는 단어가 왠지 어색하지

그러면 나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하늘을 보며 그려보지

동그란 얼굴일까
가름한 얼굴일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고
오늘도 잠이 들지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돋보기

금일소망한글학교

임평녀

한글 공부는 돋보기
이제 글씨가 들어온다

심봉사가 눈뜬 것처럼
내 눈이 밝아졌네
더 열심히 해야지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커피》

임형빈

커피 커피 따뜻한 커피
 커피 한잔손에 들고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
 눈물이 자꾸 흐르네
 그때처럼 웃어 볼까요
 그때처럼 울어 볼까요.
 하지만 웃고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아니잖아
 이미 차가워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일이잖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다시 돌아가 따뜻해지고 싶다.





커피

무안군청
임형빈

커피 커피 따뜻한 커피
커피 한잔 손에 들고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
눈물이 자꾸 흐르네
그때처럼 웃어 볼까요
하지만 웃고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미 차가워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다시 돌아가 따뜻해지고 싶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세상이 달라보여요 슬로스를 잠키레

세상이 달라보여요 시를 쓰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써볼랍니다

배우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책을 읽으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어니 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재미있고

무엇보다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읽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보인다는 건가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끝을 배우니 세상이
더크고 더 밝고 더 재미있어 졌습니다

배움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단법인 슬로스쿨

장귀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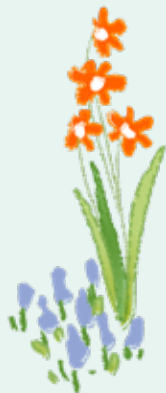
세상이 달라 보여요 시를 쓰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써볼랍니다

배운다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책을 읽으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언니 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재미있고

무엇보다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건가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글을 배우니 세상이
더 크고 더 밝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배움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카드기 사용법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장금임

나는 시장에서 전어물 장사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현찰이 아닌
 카드결제를 많이 한다
 처음에 카드기를 설치해놓고도
 손님이 주는 카드를 돈을 줄몰라서
 옆집감 김치 장사집에 가서 대신 물어주라고 했다
 한번은 십만원을 물어야 하는데만원으로
 물어서 손해를 본적도 있었다
 그래서 글공부를 어찌고 해서라도 배워야
 겠다고 했더니 딸이 지금 이 복지관을
 소개해 주어서 글공부를 진짜로 배우고 있다
 글을 알게되고 더하기 빼기를 알게되니
 세상 속에 또다른 세상이 있다는 행복한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아직 글올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카드기 사용법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장금임

나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현찰이 아닌
카드 결제를 많이 한다
처음에 카드기를 설치해 놓고도
손님이 주는 카드를 긁을 줄 몰라서
옆집 갓김치 장삿집에 가서 대신 긁어주라고 했다
한번은 십만 원을 긁어야 하는디
만원으로 긁어서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그래서 글공부를 어찌고 해서라도
배워야겠다고 했더니
딸이 지금 이 복지관을 소개해 주어서
글공부를 진짜로 배우고 있다
글을 알게 되고 더하기 빼기를 알게 되니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행복한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아직 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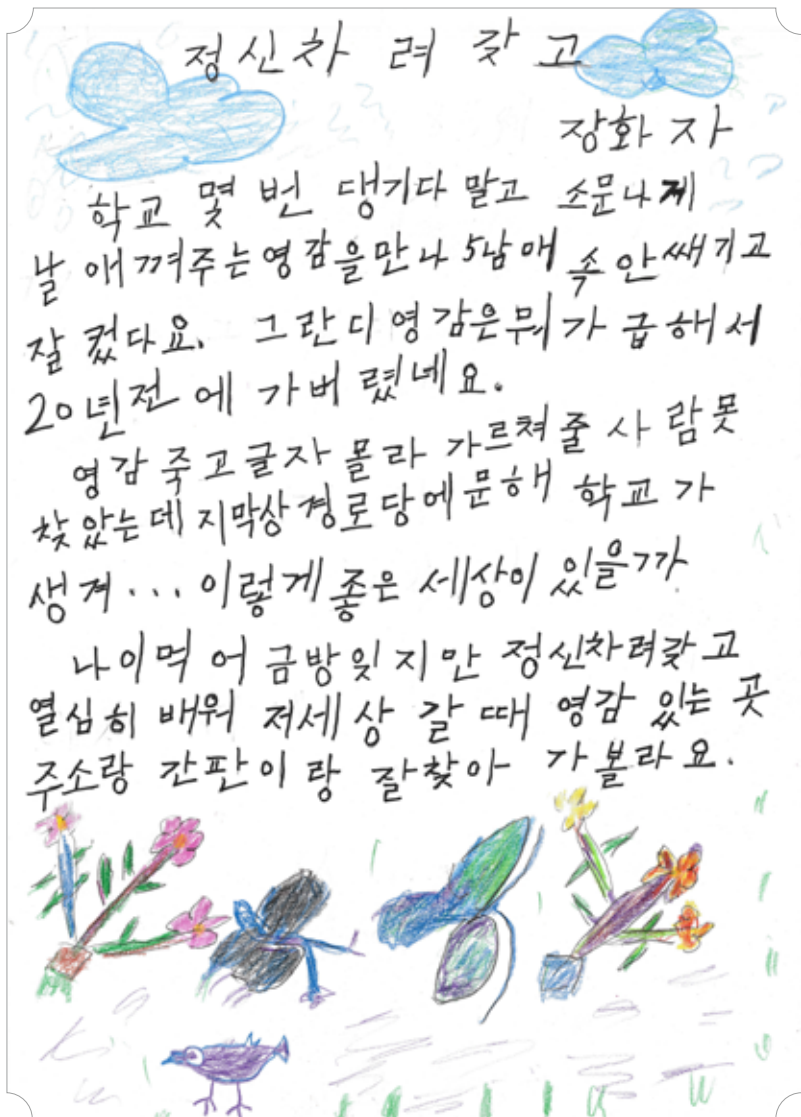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정신 차려 갖고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장 화 자

학교 몇 번 댕기다 말고 소문나게
날 애껴주는 영감을 만나 5남매 속 안싸기고 잘 컸다요.
그란디 영감은 뭐가 급해서
20년 전에 가버렸네요.
영감 죽고 글자 몰라 가르쳐 줄 사람 못찾았는데
지막상 경로당에 문해학교가 생겨...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까.
나이 먹어 금방 잊지만 정신 차려 갖고
열심히 배워 저세상 갈 때 영감 있는 곳
주소랑 간판이랑 잘 찾아가 볼라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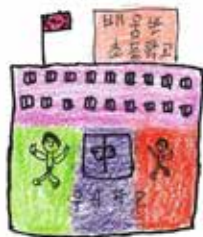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이 어 주 는 말 '그 리 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배움반 정성명

운동했다
 그리고 샤워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미나리를 먹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다
 그리고 숙제를 했다
 '그리고'가 이어주는 말 인걸
 오늘에야 알았다





이어주는 말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훈민정음대학

정쌍봉

운동했다

그리고 샤워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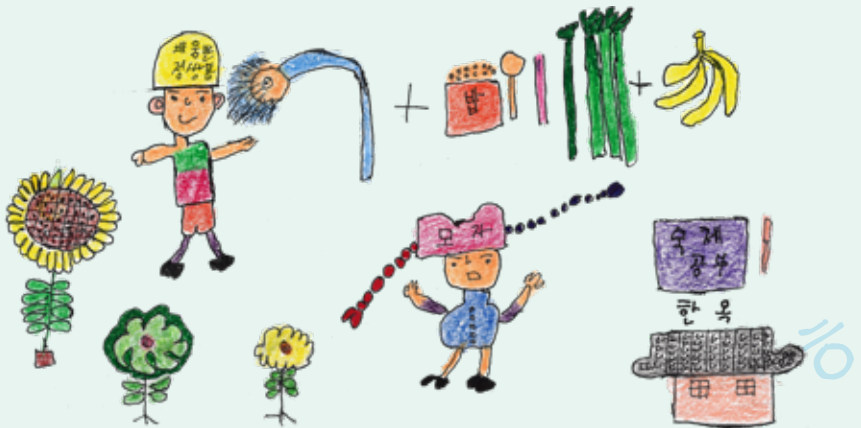
그리고 미나리를 먹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다

그리고 숙제를 했다

‘그리고’가 이어주는 말인걸

오늘에야 알았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보배눈 보배손

수촌마을 문해교실

정오례

문해교실에서 글을 배워
 책을 돌보기 없이 읽는다
 잠이 안오면
 밤새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
 중년에 녹차 따는 손은
 번개손이란다
 금방 한바구니
 모두들 놀란다
 이제야 금메달 구십세라고
 젊은 사람들이 놀란다





보배눈 보배손

보성군청
정오례

문해교실에서 글을 배워
책을 돋보기 없이 읽는다
잠이 안 오면
밤새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
중년에 녹차 따는 손은
번개 손이란다
금방 한 바구니
모두들 놀랐다
이제야 금메달 구십 세라고
젊은 사람들이 놀란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 글 공부

소망한글학교
정창심

이제 시작한 글자
8십5세가 되도록
못 했던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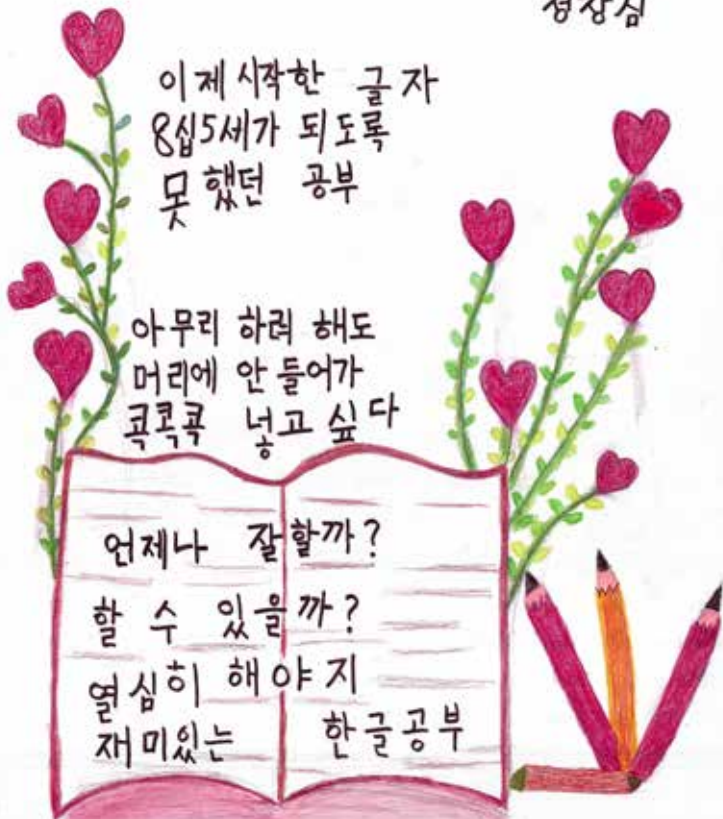
아무리 하려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
꼭꼭꼭 넣고 싶다

언제나 잘 할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야지

재미있는 한글 공부



한글공부

금일소망한글학교

정창심

이제 시작한 글자
8십5세가 되도록
못했던 공부

아무리 하려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
꼭꼭꼭 넣고 싶다

언제나 잘할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야지
재미있는 한글 공부



고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아버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조양순

내 이름은 조양순
애지중지 큰 딸내미
아버지 보물 조양순

장날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가던 그 길을

눈깔사탕 입에 물고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돌아오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 걷는 그 길을

오늘도 쓸쓸히 걸어본다
아버지를 그리우며
생각에 눈물지으며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새로운 도전

조종금

일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제
 공부도 쉬운것은 하면 재밌고
 아는것 나오면 재밌고
 어려운것, 모르는 것 나오면 어렵제
 알면 재미지고 한글자 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제

농협가서 입금 출금도 쓰고
 내손으로 돈도 찾고 학교에서
 많은것 가르쳐 주네
 내인생 새로운 도전도 알려주는 학교





새로운 도전

보길도 꿈꾸는 학교

조종금

일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제
공부도 쉬운 것은 하면 재밌고
아는 것 나오면 재밌고
어려운 것, 모르는 것 나오면 어렵제
알면 재미지고 한 글자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제
농협 가서 입금 출금도 쓰고
내 손으로 돈도 찾고 학교에서
많은 것 가르쳐 주네
내 인생 새로운 도전도 알려주는 학교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글 간판

주 원마

밤 되면 말이야
간판들이 반짝반짝 해

영어는 도통 모르겠는데
한글은 그냥 워해서 좋아

풍선처럼 방싹방싹한 것도 있고
재밌는 간판도 많더라

다들 쉬운 말로
간판 달았으면 좋겠어





한글 간판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주 월 막

밤 되면 말이야
간판들이 반짝반짝해

영어는 도통 모르겠는데
한글은 그냥 읽혀서 좋아

풍선처럼 방실방실한 것도 있고
재밌는 간판도 많더라고

다들 쉬운 말로
간판 달았으면 좋겠어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다시 쓰는 내 삶

여수 상북서관 주정례

한자 한자 낯설었던 글자들이
이젠 나를 반깁니다
버스 정류장의 이름도
약 봉투에 적힌 글씨도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작은 손편지를 쓰며
다음 전하는 기쁨을 알아 갑니다
수감해요 라는 말도 내 손으로
꼭꼭 눌러 쓸 수 있게 됐죠
뉴스 자막이 반갑고
가게 간판이 친근해졌어요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세상이 내게 말을 거는 듯 해요



늘었다 생각했던 배움이
내 삶을 다시 서 내려갑니다





다시 쓰는 내 삶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주 정 례

한 자 한 자 낫설었던 글자들이
이젠 나를 반깁니다
버스 정류장의 이름도
약 봉투에 적힌 글씨도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작은 손편지를 쓰며
마음 전하는 기쁨을 알아 갑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도 내 손으로
꼭꼭 눌러쓸 수 있게 됐죠
뉴스 자막이 반갑고
가게 간판이 친근해졌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세상이 내게 말을 거는 듯해요

늦었다 생각했던 배움이
내 삶을 다시 써 내려갑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다시 태어난 나의 인생길
 채복례
 배우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어렵게
 사라 온 세월
 늦었지만 문해교실을 다니면서
 배움의 기쁨을 알았다



그리고 농협에 출자도 입금. 출금
 계좌 이체 등등 할수있서서세상을
 사는것 같다



문해 교실 선생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나니
 더열심히 배우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가고 싶은
 희망이 생겼다
 오늘도 배움의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 가련다.





다시 태어난 나의 인생길

진도군청 지막(상) 문해학교

채복례

배우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세월
늦었지만 문해교실을 다니면서
배움의 기쁨을 알았다
그리고 농협에 혼자도 입금, 입출금
계좌 이체 등등 할 수 있어서 세상을
사는 것 같다
문해교실 선생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열심히 배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고 싶은
희망이 생긴다
오늘도 배움의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련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작은 네모 속 큰 세상

최 권 려

가방 메고 평생 배움학교 가는 길
 마을회관이 내 학교다
 제자리 걸음인 글자 공부지만
 매번 시작처럼 다들 설렌다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작은네모, 이름하여 컴퓨터
 창말로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속이다

돈을 배고 예금하는 법도 이제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
 그 얼굴은
 내 마음속 가장 빛나는
 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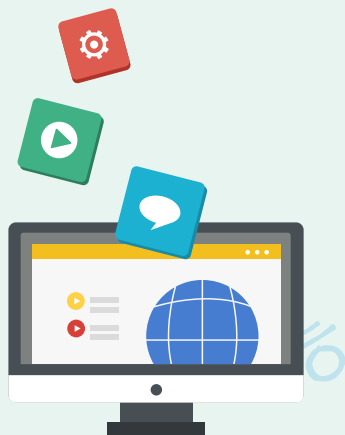
작은 네모 속 큰 세상

영암군청
최 권 려

가방 메고 평생 배움 학교 가는 길
마을회관이 내 학교다
제자리걸음인 글자 공부지만
매번 시작처럼 마음이 설렌다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작은 네모, 이름하여 컴퓨터
참말로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 속이다

돈을 빼고 예금하는 법도 이제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니
그 얼굴은
내 마음속 가장 빛나는
별이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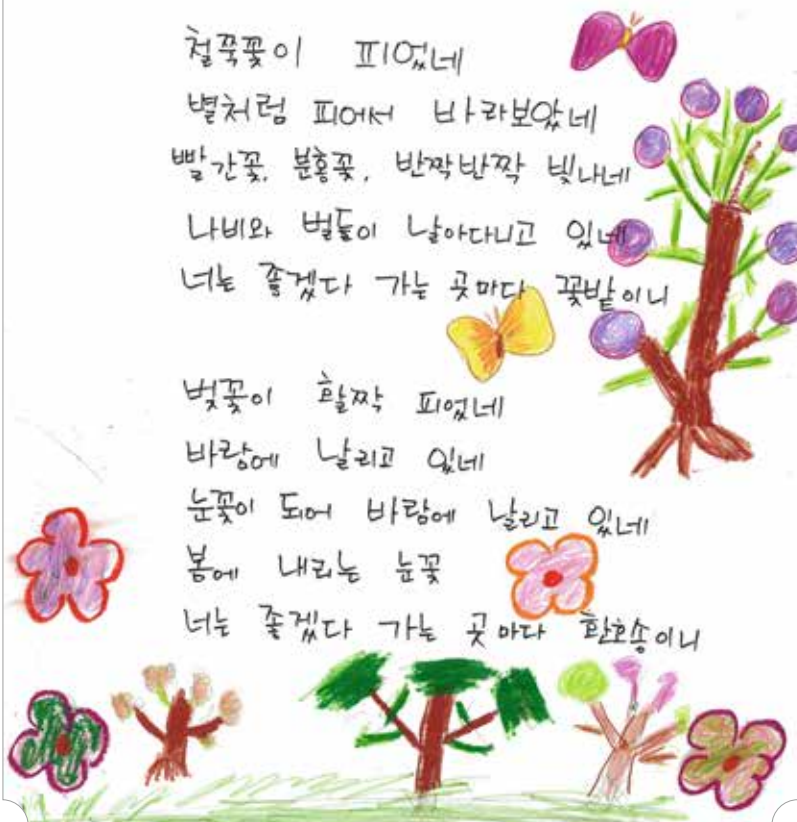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봄 꽃

나주시노인복지관
최귀임

철쭉꽃이 피었네
 별처럼 피어서 바라보았네
 빨간꽃, 분홍꽃, 반짝반짝 빛내네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네
 너는 좋겠다 가는 곳마다 꽃밭이니

벚꽃이 활짝 피었네
 바람에 날리고 있네
 눈꽃이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네
 봄에 내리는 눈꽃
 너는 좋겠다 가는 곳마다 화환송이니





봄꽃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문해학교

최귀임

철쭉꽃이 피었네
별처럼 피어서 바라보았네
빨간 꽃, 분홍 꽃, 반짝반짝 빛나네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네
너는 좋겠다 가는 곳마다 꽃밭이니

벚꽃이 활짝 피었네
바람에 날리고 있네
눈꽃이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네
봄에 내리는 눈꽃
너는 좋겠다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니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당당한 나

화련문해교실
최상덕

괴로운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말
마음에만 꾀꿍 숨겨두고
살아 온 세월

나도 잘 배웠으면
말이라도 잘 할텐데

이제라도 한자 한자 배워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당당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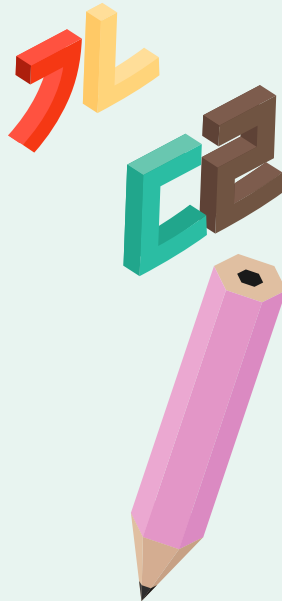
여수시청 행복문해학교

최상덕

죄지은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말
마음에만 꾀꾀 숨겨두고
살아온 세월

나도 잘 배웠으면
말이라도 잘할 텐데

이제라도 한자 한자 배워서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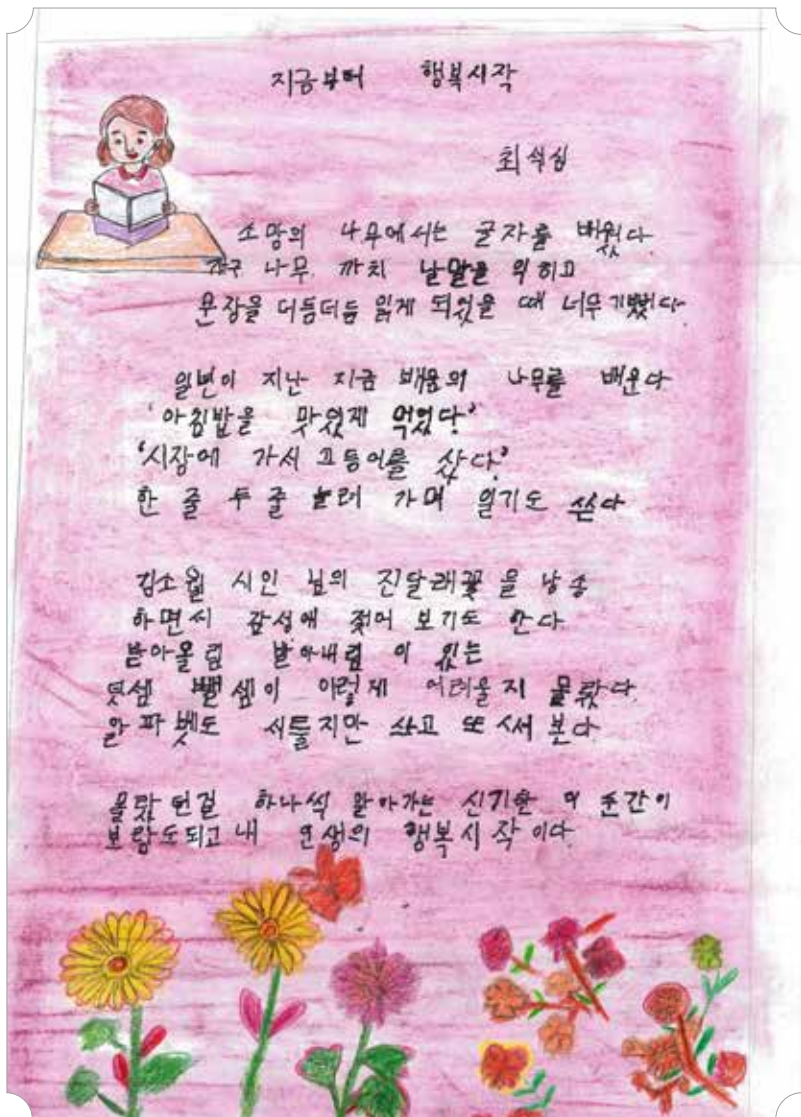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지금부터 행복 시작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최석심

소망의 나무에서는 글자를 배웠다.
가구, 나무, 까치 낱말을 익히고
문장을 더듬더듬 읽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다.

일 년이 지난 지금 배움의 나무를 배운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샀다.’
한 줄 두 줄 늘려 가며 일기도 쓴다

김소월 시인 님의 진달래꽃을 낭송하면서
감성에 젖어 보기도 한다.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
알파벳도 서툴지만 쓰고 또 써본다.



몰랐던 걸 하나씩 알아가는 신기한 이 순간이
보람도 되고 내 인생의 행복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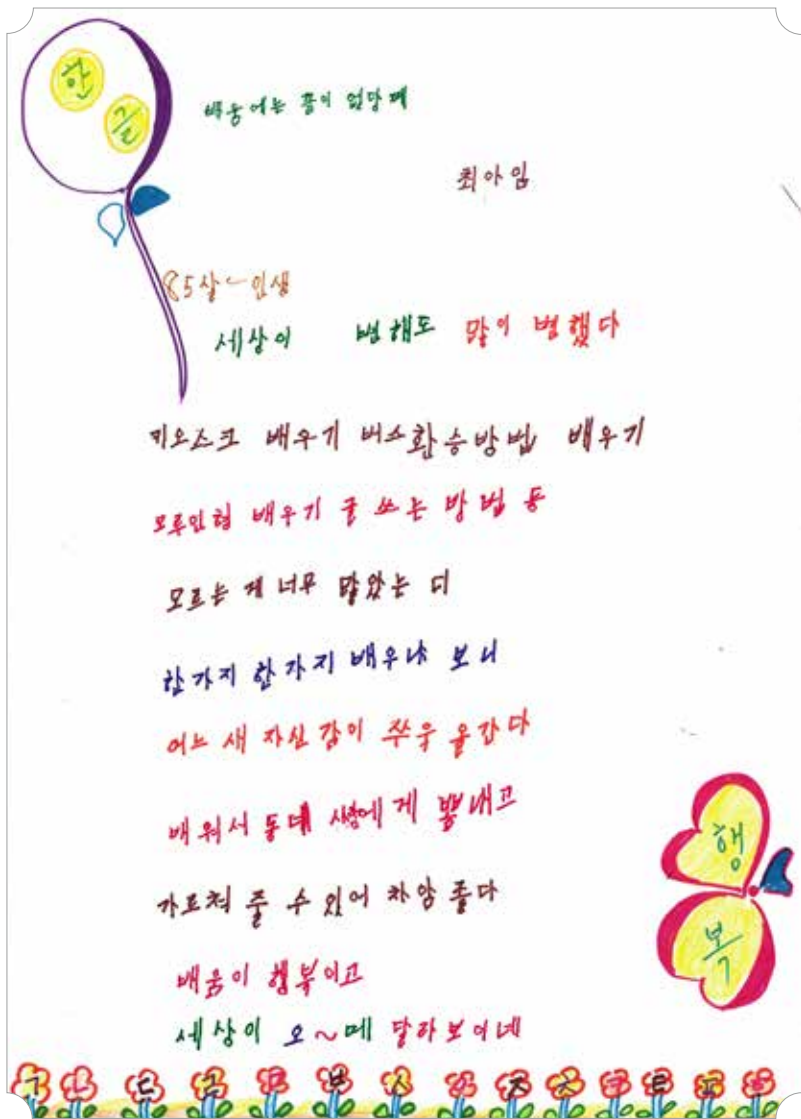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배움에는 끝이 없당께

풀뿌리희망문화학교

최아임

85살 인생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키오스크 배우기 버스 환승 방법 배우기

모루 인형 배우기 글 쓰는 방법 등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디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이 쭉욱 올간다

배워서 동네 사람에게 뽐내고

가르쳐 줄 수 있어 차암 좋다

배움이 행복이고

세상이 오~메 달라 보이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



무점관 2반 문해교실
최양순

눈은 침침하고
 글자도 자꾸 춤을 추지만
 배운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몇자 배우고
 글을 써 보지만
 도 잊어버려 답답합니다
 늦게 핀 꽃이 예쁘듯이
 늦게 핀 글꽃도
 예쁘고 눈부십니다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최양순

눈은 침침하고
글자도 자꾸 춤을 추지만
배운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몇 자 배우고
글을 써 보지만
또 잊어버려 답답합니다
늦게 핀 꽃이 예쁘듯이
늦게 핀 글꽃도 예쁘고 눈부십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마음

사단법인 슬로스쿨

최연화

나는 중노 학생
입학하던 날 처음으로 하얀 카라 교복을 입고
수줍어하는 예쁜 수선화 같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철부지 소녀처럼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왠지 마음이 째했다

듣고 들어도 요놈의 까마귀 때문에
머리는 멍하고 영어는 입안에서 따로 놀지만
난 오늘도 바다처럼 넓어지려고 다짐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배워나갔다

항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소심한 나
어느새 저 넓은 바다처럼 더 넓고 풍성해지겠노라고.
나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감사했다

영어로 이름 석 자 쓴 것도 큰 기쁨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배웠기 때문

어느 누가 가꾸지 않고 짓밟아도 곳곳하게 피는 민들레처럼
난 오늘도 나에게 Very Very good이라고 칭찬한다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제 철에 피지 못한 꽃 

 최영희

나는 일 삼아서 공부하요
 한글자라도 배어볼라고 글씨을 쓰고 또 알거보요
 고해가서 찬송가도 불고 성경책도 읽어요
 구단한디 성경해 나온 이름들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다 이상해
 인자는 글자를 안게 읽어보고 또 읽보요
 인자 짝까 알긋서
 그걸을 알라고 별 짓을 다 한당께
 잠도 오고 일도 해야라고
 바쁜뒤 공부는 끝끝 네할나요
 배운 재미가 여간 좋아 





제철에 피지 못한 꽃

해남군꿈보배학교

최영희

나는 일 삼아서 공부하요
한 글자라도 배워볼라고 글씨를 쓰고 또 읽어보요
교해가서 찬송가도 불고 성경책도 읽어요
그란한디 성경해 나온 이름들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다 이상해
인자는 글자를 안게 읽어보고 또 읽어보요.
인자 째까 알긋서
그것을 알라고 별 짓을 다 한당께
잠도 오고 일도 해야하고
바쁜 뒤 공부는 끝끝내 할라요
배운 재미가 여간 좋아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첫 사랑

전남도교육청 나주도서관
최 화 순

글도 모르고 무지렁이처럼 세상을 살다가
 나의 첫사랑이 하늘나라로 가고
 혼자 남아 답답했다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다
 두려운 반, 기대 반이었다
 한글교실에서 한자 한자 배울 때마다
 마음의 큰 돌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첫사랑이 없는 세상에 한글이 찾아왔다
 마음의 큰 돌이 모두 사라지는 그때까지
 열심히 배워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싶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공부는 배워야 한다





첫사랑

나주도서관
최화순

글도 모르고 무지렁이처럼 세상을 살다가
 나의 첫사랑이 하늘나라로 가고
 혼자 남아 답답했다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다
 한글 교실에서 한 자 한 자 배울 때마다
 마음의 큰 돌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첫사랑이 없는 세상에 한글이 찾아왔다
 마음의 큰 돌이 모두 사라지는 그때까지
 열심히 배워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싶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공부는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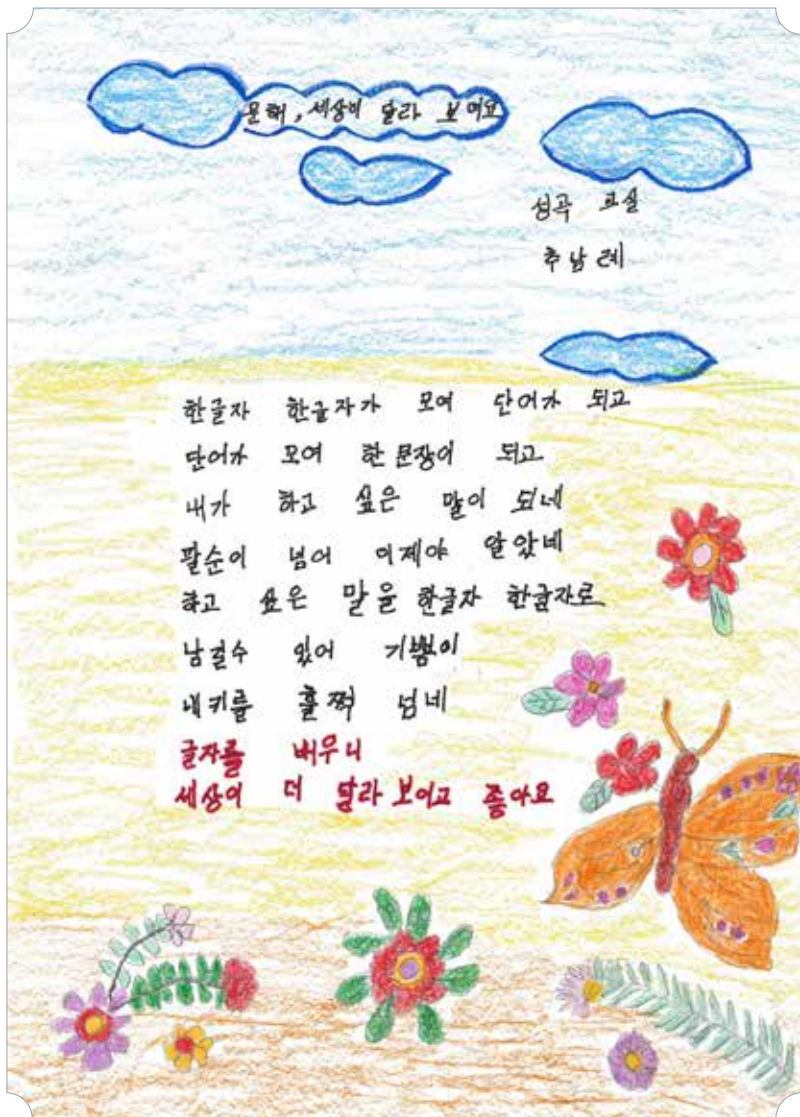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추남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한 문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네
팔순이 넘어 이제야 알았네
하고 싶은 말을 한 글자 한 글자로
남길 수 있어 기쁨이
내 키를 훌쩍 넘네
글자를 배우니
세상이 더 달라 보이고 좋아요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더 나은 나

하 복례

남의 머리를 평생 다듬다

세월 가는 줄 몰랐다.

허리가 아파서 쉬다보니

공부가 하고 싶었다.

머리 만진 손재주로

글씨가 참 예쁘다고 하셨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다.

도서관에서 내 머리가 빛난다.





더 나은 나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하복례

남의 머리를 평생 다듬다
세월이 가는 줄 몰랐다.
허리가 아파서 쉬다 보니
공부가 하고 싶었다.
머리 만진 손재주로
글씨가 참 예쁘다고 하셨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다.
도서관에서 내 머리가 빛난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세월

-하정자-

알없이 흘러가는 세월
 부잡을 수없고 세월속여
 운머며 버린 버릇다운
 짙음 세월아, 세월아.
 되들려 줄수 없을까
 비외속 이대로 남차져

가면 43점 가선님이
 날올라 보고 돌아설까봐
 문화요실 이서 열심등고

배운 공부한것 어께에
 힘주고 자랑하고 싶은데
 가없이 간세월 어쩌살까
 완냐고 묻는말 듣고싶은데
 버마음 올라주는 병정한 세월
 한없이 원망하며 일터로 간다

세월

광양시청_직영
하정자

말없이 흘러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세월 속에
무더져 버린 내 꽃다운
젊음 세월아, 세월아.
되돌려 줄 수 없을까
내 모습 이대로 님 찾아가면
43 전 가신 님이
날 몰라 보고 돌아설까 봐
문화 교실에서 열심 듣고
배운 공부한 것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싶은데
나 없이 긴 세월 어찌 살라
왔냐고 묻는 말 듣고 싶은데
내 마음 몰라주는 냉정한 세월
한없이 원망하며 일터로 간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디지털 문해교육



완도평생교육원

한 문 석

평생교육원을 다닌지가 일년 반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

그건 바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디지털 문해교육
첫날 내 핸드폰보다 크게 책상앞에 놓여 있었다.

무엇인가 했더니 태블릿 PC란다.
아무것도 몰라 전원 버튼 켜고 끄는 것도
헛갈리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화면은 잠시 사라지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다시 화면이 나오는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기능도 모르고 기계가 어려웠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자꾸하다보니 요즘은
문자, 카톡도 하고 신기하고 편리한 세상
디지털 문해교육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디지털 문해 교육

완도평생교육원

한문석

평생교육원을 다닌지가 일년 반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

그거 바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디지털 문해교육
첫날 내 핸드폰보다 큰 게 책상 앞에 놓여 있었다.

무엇인가 했더니 태블릿 PC란다.
아무것도 몰라 전원 버튼 켜고 끄는 것도
헛갈리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화면은 잠시 사라지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다시 화면이 나오는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기능도 모르고 기계가 어려웠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자꾸 하다보니 요즘은
문자, 카톡도 하고 신기하고 편리한 세상
디지털 문해교육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나는일자무늬이었다

한삼려

나는
 글자 하나 몰랐지요
 내 이름 복사
 그것도 남이 써 줘야 했어요
 그랬던 내가
 가나다
 천천히 또박또박
 세상이 조금씩 들어와요
 글자 하나 읽을 때마다
 세상이 나를 위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무늬어 아니에요
 이름도
 꿈도
 네 손으로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나는 일자무식이었다.

여수시노인복지관

한삼례

나는
글자 하나 몰랐지요
내 이름 석자
그것도 남이 써줘야 했어요
그랬던 내가
가나다
천천히 또박또박
세상이 조금씩 들어와요
글자 하나 읽을 때마다
세상도 나를 읽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무식이 아니에요
이름도
꿈도
내 손으로 써내려 가는 중입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행복

소카 복지관

홍송자

복지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상을
받아서 과일 잔치를 했어요.

언니를 여섯사람을 안내해
한글 공부반에 입학했어요.

금년에는 열 두사람 한글 공부반이
씩씩 합니다.

또 시화전에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월요일은 과 화. 목요일은 한글 공부
수요일은 노래 부르기 나는 팔순이 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 가겠습니다.





행복

소라종합사회복지관

홍송자

복지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상을 받아서
 과일 잔치를 했어요.
 언니들 여섯 사람을 안내해
 한글 공부반에 입학했어요.
 금년에는 열두 사람 한글 공부반이
 씩씩합니다.
 또 시화전에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월요일은 요가 화, 목요일은 한글 공부
 수요일은 노래 부르기 나는 팔순이 되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입 벌린 고등어

나주 충부노인복지관

화 선순

“사천원이랑 오천원이랑

어떤 수가 더 커요?”

“당연히 오천원이 더 크지요”

5000이 4000보다 더 크다는

5000 > 4000

5000에 부등호 입을 벌려요

내 귀에는

5000에 고등어가 입을 벌려요 한다

“고등어가 입을 벌려요?”

고등어가 아니고 부등호라면서

반 친구들과 하하하 웃는다

우짜까 집에 가면 고등어만 생각날 것인디





입 벌린 고등어

중부노인복지관 문해학교

황선순

“사천 원이랑 오천 원이랑
어떤 수가 더 커요?”

“당연히 오천 원이 더 크지요”

5000이 4000보다 저 크다는

5000 > 4000

5000에 부등호 입을 벌려요

내 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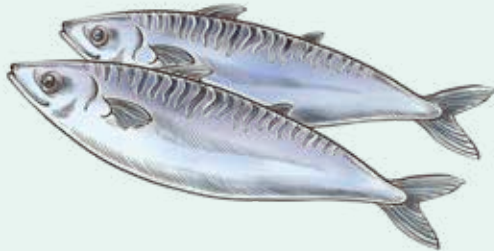
5000에 고등어가 입을 벌려요 한다

“고등어가 입을 벌려요?”

고등어가 아니고 부등호라면서

반 친구들 하하하 웃는다

우찌까 집에 가면 고등어만 생각날 것인디



무엇이,
나에게
달라보여줄까

2025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전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소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연락처	전화 061-285-9471 / 팩스 061-283-1007
홈페이지	www.jntle.kr
함께하는 기관	고금비전한글학교,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광양시청, 금일소망한글학교,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시청, 담양인문학문해교실,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목포시청,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무안군복합문화센터문해학교, 무안군청, 보길도꿈꾸는학교, 보성군청, 빛가람동성당, 시단법인 슬로스쿨, 성서원평생교육원, 소리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 여수시청, 영암군청, 원도군청, 원도평생교육원, 장성군청, 정흥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전라남도교육청공평평생교육관, 전라남도교육청 나주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별교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영광도서관, 중부노인복지관, 진도군청, 풀뿌리희망문화학교, 해남군 꿈보배학교, 홍지중고등학교부설성인문해교실, 화순군청